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5월 2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4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부처님 오신날 하루전인 2일 아침, 비내리는 서울 신내동 아파트 하늘 아래로 부처님을 사랑하는 불자들이 모였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립대종합복지관에서 단지내 60세대에게 반찬봉사를 해왔던 일산 J보살, 망우리 K보살, 정릉 H보살이 주축이 돼 부처님 오신날의 큰 뜻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경로잔치를 연 것.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할머니 이리로 앉으세요. 고기 더 드릴까요" 새벽부터 만든 고깃국과 전, 회무침 등 푸짐한 먹을거리가 준비됐고, 이웃 아파트의 노인과 장애인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당초 이들 세 보살은 부처님 생일이니까 떡이나 함께 나눠 먹을까 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엄두도 못낼 정도로 커져버렸고, 경로잔치를 열기위해 수십군데 사찰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오신날 소외받는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요"라는 이들

경로잔치 연 세보살



의 호소에 예천 연꽃마을, 양천구 약사사, 길음복지관, 일붕선원, 미아리 정토사, 봉원사, 신내동 극락정사, 보현정사, 영화사, 성남 불광선원 등에서 쌀과 보시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정성에 신내동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129봉사원들까지 동참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초청, 한끼 식사에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담아냈다. 점심공양과 함께 승무, 부채춤, 탈춤 등 무료공연도 예정됐지만 밤부터 내린 비로 취소됐다. 어렵사리 준비한 공연을 할 수 없게 돼 서운했지만 상(相) 일으키지 말고, 더 하심(下心)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저희들에게 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믿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무릎꿇고 감사드립니다"며 이웃과 부처님의 자비에 고마움을 전하는 세 보살.

이들은 그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앞으로도 일생의 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조계종,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위탁운영

실직 노숙자 복지 '빠른행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16일부터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소장 능관 조계종사회부장)를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IMF사태 이후 발생한 실직노숙자 대책에 종교계에서는 가장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리를 떠도는 실직자들에게 잠시나마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노동부 근로복지관 뒤쪽에 연건평 5백74평(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마련되었다. 적정 수용인원은 3백20명이나 최대 5백명까지 생활할 수 있다. 취업정보실 의무실 상담실 샤워실 공중전화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고용 전산망'을 설치하고 취업알선 상담요원을 배치,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줄 예정이다. 또 △종교교육 △마음 다스리기 △위기극복 체험담 △창업교육 등을 주제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심신안정을 위한 취미클럽도 운영한다. 상담 등을 통해 실직 노숙자임이 확인된 18~65세 남성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02)678-4992~3.

조계종은 지난달 22일 '보현의 집'을 개원한데 이어 '시립 실직노숙자 합숙소'를 잇달아 개설하면서 '실직자 대책에 가장 앞선 종교'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사회복지사업의 공신력 제고를 동시에 이뤄냈다. 지난 4월30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조사한 〈종교계,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보고에서 불교시설이 58곳으로 천주교 57곳, 기독교 43곳, 원불교 14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 것도 이같은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영등포근로자 합숙소 위탁운영을 전기로 타종교에 뒤진 빈민·노동복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20일 오전11시 개원에 앞서 16일부터 문을 연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조계종은 자체부담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10일 하안거 결제

전국서 2천여스님 정진

무인년 하안거 결제 법회가 10일 5대총림과 전국선방에서 봉행돼 2천여 사부대중이 정진에 들었다.

해인총림 결제법회에서 방장 법전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대의 방광이를 휘두를때는 때려도 돌아 오지 않더니/무쇠대문 거듭치니 고리가 겨우 열린다/ 딱하구나 쌀 한톨도 쌓아두지 않고서/십자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접대하네"라는 게송으로 수행을 독려했다.

또 들리는 청와대 찬송가

김대통령 부부 미사-예배…교계 민감 반응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여사가 청와대에 신부와 목사를 각각 초청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해 교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김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 온 후 두달동안 한번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두분이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한 것은 주말 외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미사에는 세종로 성당의 안병찰 주임신부가 예배에는 신촌 창천교회의 박춘화 목사가 참석한다.

김대통령 부부의 청와대 미사·예배 소식이 알려지자 교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론과 "개인의 종교활동"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남북 불교지도자 LA합동 법회

북측 7~8월께로 연기요청

6월15일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불교지도자 통일평화 기원법회'가 북한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7~8월께로 연기됐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15일 '남북불교지도자 통일평화 기원법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차 남측 실무자 한명을 북한에 급파했다. 22일경 평불협의 공식적인 개최일정 및 상황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거리상담 나선 청소년 선도 23면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현장 11면

지구 환경위기-인간성 상실 '경고'



미술대전 대상에 신치현씨의 '지구'

현대문명의 생태계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차갑고 무감각한 알루미늄을 통해 표현한 조각품 '지구'(신치현 홍익대 강사 작품)가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수덕사서 참선철야합시다

- **철야정진: 5월 25일(월) 밤9시~26일 새벽3시**
- **참회대법회 회향법요식: 26일(화) 오후2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각 종단이 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참회대법회로 한국선종의 본찰인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참선 철야정진을 합니다. 경허 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있는 수덕사에서 갖는 참선 철야정진은 나라의 어려움을 조속히 이겨낼 의지를 모으며, 불자로서는 뜻깊은 수행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날 법회는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동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상싱한 우리 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하시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되며, 실직자까지 도움수 있는 통제대비의 실천현장이 될것입니다. 수덕사 참선 철야정진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법회일정

〈25일〉
- 참선 철야정진 입제/ 오후9시

〈26일〉
- 참선정진 방선/ 오전3시
- 아침예불/ 오전3시30분
- 농축수임산물 직거래장/ 오전10시~오후5시 (연예인불자 판매자원봉사)
- 참회대법회 회향법요식/ 오후2시

동참방법

△출 발: 5월25일(월) 오후5시 조계사앞
△회 비: 3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322-04-221460(선정호)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주관: 조계종 수덕사
후원: 국민회의 연등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군승단 · 경승단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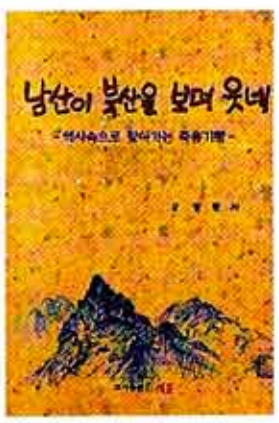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뱅란자 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고은 시인 추천사에서〉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부의 외 6인
- 사라진 사람들/ 빗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의 9인
- 죽음과의 악수/ 사약을 독촉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해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논과 벽송선사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철저한 삶을/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휠덜린, 뭉크, 헤드가 앓란 모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끌로델과 나혜석
- 화려한 명성, 처참한 최후/ 클레오파트라와 빈비, 우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목련존자와 혜가, 공초 오상순과 양관선사, 마더 테레사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 · 유치원 · 사원복 · 음식점 유니폼 · 도복)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교계-공단 협조체제를

그동안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엄대우씨가 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엄씨는 임명을 받고 즉시 불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6개항에 이르는 대불교 국립공원 정책을 발표하여 불교계의 이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지도자를 만나 이 정책공약들을 전달했고, 전임자가 불교와 관련된 공원관리업무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정식 사과까지 했다.

우선 엄대우 신임 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박수를 보낸다. 불교계와 공개적으로 약속한 여섯가지 정책은 하루속히 구체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기구의 구성이다. 불교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단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정변경을 내세워 취임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다. 지금까지 공원정책에서도 이런 공약파기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신임 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립공원과 불교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고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찰이 모여있는 국립공원, 도 시공원은 본래의 목적인 자연환경보존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공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원입장료의 지급문제, 사찰경내지 확보문제, 공원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 불교계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우선 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는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되, 과도기적으로는 입장료수입은 공원내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복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찰이 공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공원용지의 상당부분이 사찰소유 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와함께 점차 공원내에서의 사찰 경내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초기 공원법제정 그 당시 관계당국과 합의한 사항임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사찰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신성해야 할 수도 도량이 관광지로 전락했는가 하면 사찰이 마치 공원의 일부가 되어, 즉 사찰이 공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려 사사건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찰의 보수, 복원은 물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실정을 헤아려야 한다. 종교시설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구역안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증 개축이 허용되어야 하고 일반 건축단계법령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원위원회에 당해 사찰 주지 등 불교계 인사가 반드시 50%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각급 공원에 있어 사찰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원시성의 수려한 자연경관보존에 기여해 왔으며, 누구보다 당해 불교계는 공원관리에 대한 애착이 절실한데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불교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국가사업임을 명심하고 공원정책을 바르게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1600여년 이상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는데 요람이 된 전통사찰을 보존 발전시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장 중 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엄 신임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갑사 토지수용 철회등 6개 공약 전달



◇엄대우 신임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6개항의 공약사항을 전달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공원관리 업무에 불교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엄대우(51) 신임 이사장은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 6가지의 공약사항을 전달했다. 엄이사장은 공약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원칙으로 불교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엄이사장은 또 △그간 말썽을 빚어 온 계룡산 갑사의 청소년 야영장 건설 추진과 관련 수행환경의 보존 차원에서 갑사의 토지 수용을 철회할 방침이고 △사찰 개보수와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등에 대해 행정권 의주의 중심의 공단 운영을 탈피 불교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원 관리소장의 임명에 있어 종교적 균형감각과 환경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임명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단본부에 사찰등의 문화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를 추가 선정하는등 불교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7월중 관람료 사찰운영위원을 초청하여 공단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설명 및 여론수렴의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엄이사장은 6일 취임식에서도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립공원에는 유명 사찰과 유적이 많아 불교계와 협의할 업무가 많을 것이므로 불교계와 관련된 업무는 최대한 협조하여 우리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이사장은 6일 취임식 직후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종교와 관련 불교계가 취임을 반대한 것과 관련 "군산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개신교 성직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며 집사직을 맡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엄이사장은 중앙대 문과대학과 고려대정책대학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녹색교통운동중앙이사와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환경정보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임연태 기자〉

"한-일 불교도협력 지구촌 정화"

日조동종 영평사서 한일불교문화대회 열어

제19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조동종 본산 영평사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한국측 대표단 80여명과 일본측 대표단 1백여명이 참가 양국 불교의 문화 교류와 우의를 다졌다. 13일 환영 만찬에 이어 14일 열린 본대회에서 일본측 회장 다나까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 대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도의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우호친선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이래 양국 불교는 긴밀한 협조를 해 왔다"며 "이번 대회에서 양국불교가 경제난과 도덕의 타락, 환경 파괴, 핵전쟁의 위협등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서는 한국측의 인환스님(경국사한주)이 '한 일 선사상의 통로'와 일본의 마마후지센다까(天藤令孝)스님이 '한일 양국에서의 선사상의 전통에 대해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가졌다. 강연에서 인환스님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양국의 선사상이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두 나라의 선수행자들이 자주 방문하며 함께 수행을 경험하여 서로의 선사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엄이사장 전력시비

국회 환경노동위

1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이사장의 전력을 놓고 업무보고를 거부해 파행을 기록했다.

두차례 정회 끝에 야당의원들은 엄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결의문을 냈다. 엄이사장은 "문제의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안기부 지시에 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93년 3월 구속돼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계종 행자등록 학력미달자 심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처음으로 실시한 행자등록 신고 학력미달자 사전 심의가 14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교육원에 신고를 마친 초등학교 중퇴~고등학교 중퇴 남녀행자 46명 가운데 28명이 참가, 수학능력시험과 출가동기·발심상태·예경·행해 등의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의 합격자는 해당 교구본사로 개별 통보되며,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자격을 갖게된다.

심의에서는 교육부장 향적스님 불학연구소장 밀원스님 연수국장 정혜스님 등이 개별 면접과 적성여부를 심사했다.

여야 지방선거 불심잡기 '가시화'

조계종 '공명선거' 촉구 성명

6월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불심잡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18일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역감정이나 금권선거, 인신공격이나 상호비방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성명에서 각 당후보자들은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는 지역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6·4 선거를 앞두고 1일 고건 서울시장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등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으며 한나라당은 불교대책위원장에 함종한 의원을 임명하고 지난해 연말 대선때 가동했던 불교대책팀을 구성하는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도 나름대로의 불교관련 조직을 동원 '불심잡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
지역별 5차례 실시

불기 2542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가 21일~7월 2일까지 각지역 본말사별로 총 5차에 걸쳐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는 사찰에서 주지의 역할과 지도력 제고방안·21세기 수행자상과 성직자상·IMF시대 불교계 과제와 역할·불교문화 21세기 문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신회' 직무대행체제로

조계종중앙신도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건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신도회는 회장직무대행에 김한곤부회장(7교구 신도회장, 전 농수산부차관)을, 부회장과 각 교구 신도회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달 말경 중앙신도회 발전안을 만들기 위한 신행단체 간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8일 사무실을 서울 견지동 68번지 서흥빌딩3층으로 이전했다. 733-7277.

인터뷰 중신회 회장 직무대행 **김한곤씨**

"교구 분담금 신설 검토"



김한곤 조계종중앙신도회 회장대행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빨리 정식 회장체제로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행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 대행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계획을 세우겠다. 이와함께 중앙신도회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키 위해 교계 주요 신행단체들과의 토론회를 열겠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총무원에 제출하겠다.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가장 큰 현안인데.

- 재력있는 몇 사람에게 의존해선 안된다. 신도회 운영은 참여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단이 솔선해서 회비납부운동을 펼치겠으며, 현재 중앙신도회에 참여치 않고 있는 신행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교구신도회 분담금 제도의 신설도 제안하겠다.

▷총무원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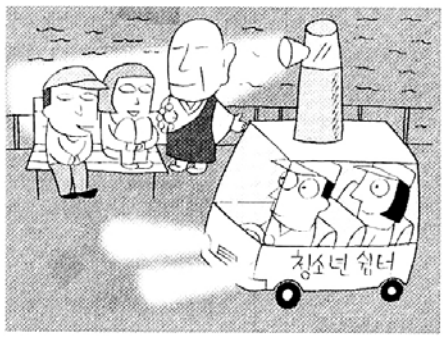
- 총무원과 신도회의 의견을 조정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상부상조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를 중흥하겠다는 방향에는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없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가출청소년들의 등대가 되어…

공 고

불기 2542년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소집

종단은 소임자스님들의 소양을 높이며 21C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본말사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교육법 제 109호 1항에 의거하여 매년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광역별(도별)연수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연대감을 공고히 하며 I.M.F체제를 대처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불기 2542년도 본말사 주지 연수에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1)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2) 산내 암자 원주스님 및 재산관리인(스님에 한함)
3) 불기 2542년도 본사 7직 국장스님 연수회 불참자
※ 고령(만 65세 이상)으로 연수참석이 어려울 경우 당해 말사 소임자중에서 대리참석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참석일 경우 연수참가 신청시 대리참석임을 밝혀야 합니다.

2. 교육기간

1박 2일(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3. 연수생스님 준비물

1) 법복(장삼, 가사) 2) 세면도구

4. 연수장도착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연수장 도착(단, 경남권은 오전 10시까지)

5. 교육관리

1) 수료자 : 종단인사에 반영(미수료자는 주지직에 재임할 수 없음)
2) 교육시간 2회이상 불참시 교육수료를 인정하지 않음

6. 연수일시, 장소 및 접수

차례	본 사	연수일자	장 소	접 수 일	접수처
1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5월 21일~22일	통도사	5월 11일까지	각 교구본사 ※직할교구는 교육원
2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6월 1일~ 2일	경주 코오롱호텔	5월 20일까지	
3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6월 10일~11일	지리산 프라자호텔	6월 1일까지	
4	직할교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봉선사	6월 16일~17일	중소기업 개발원 연수원	5월 30일까지	
5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7월 1일~ 2일	주택은행 연수원	6월 20일까지	

※ 23교구본사 관음사 본말사주지 연수는 추후 별도 실시 합니다.

■ 문의처 :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 027732-4923/4>

불기 2542년 5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암 도

"문화재보존비 정부 지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이후 교계 대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신임이사장이 입장료 폐지 의사를 확고히 밝힘에 따라 입장료 폐지의 원칙은 굳어졌으나 그에따른 불교계의 대응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간 입장료 폐지를 목소리 높혀 외쳐 왔을뿐 폐지 이후 공원내 사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측도 아직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그간 공원내 사찰이 입장료 수입중 일부(10~30%)를 문화재 수리 보존비로 지급받던 부분을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입장료의 폐지에 따른 공단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만큼 공원내 사찰에 지급해 온 문화재 수리보존비도 기존의 관례를 인정해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료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문화재 수리보존비까지 떠 맡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문화재 수리보존비 지급 근거 자체가 '원인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불교계는 지금까지 연간 10억 이상씩 지급 받아 온 문화재 수리 보존비 수급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문화재관람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입장료의 폐지에 따라 사찰측이 단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매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매표소의 설치 위치도 새롭게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매표 인력의 수급은 사찰의 재량에 따라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으나 매표소의 위치 조정은 사찰 탐방객의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중이 요망된다. 또 사찰이 소장문화재를 안내하고 그 가치를 탐방객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적 보호장치 마련 힘 모아야
탐방객 유치 홍보등 관심 절실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와 불교계가 신중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지만 그에따른 불교계의 대안은 불교계 내부의 화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원관리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불교계가 발빠른 대응을 함으로 입장료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연태 기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하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4월 5일 신흥사 법회에이어 25~26일 수덕사에서 철야정진 법회로 열린다. 대법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만났다.

수요 인터뷰

5월 25~26일 참선철야 대법회 여는
수덕자 주지 법장스님

"파사현정 실현은 공생의 길"



- 불교계가 하나토 뭉쳐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신흥사에서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2차 법회로 수덕사에서 파사현정 실현을 위한 철야 참선정진법회가 열리는데, 의의를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제금융 체제 속에서, 실업자 급증 물가고 등 일시에 몰아닥친 경제대란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돌이켜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도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이번에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갖는 참선 철야정진도 바로 이같은 원력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덕사는 한국불교 선종의 본찰로 경허-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있는 가람이라 법회장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직자 돕기
농축수임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 참선을 통한 참회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요.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됐으며 빛나는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수덕사는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 연말부터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사중 전대중과 신도들이 참여해 참선 철야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으로서의 철야 참선도 되고 그 선한 인연으로 국난극복을 앞당길 것입니다. 철야 참선정진은 불자의 필수 수행과정이라고 봅니다. 국난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바로 자리이타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직자를 돕는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법회인데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봅니다.

- IMF체제의 극복 과정에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실직자를 위한 지원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슴 아픕니다. 따라서 이번 국난극복을 위한 대법회에서는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는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농·축·수·임산업 협동조합의 참여로 우리 농축수임산물 공동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실업자를 위한 기금으로 불교계 실업자 구제창구에 전달할 것입니다. 장터는 26일 오전 10부터 오후5시까지 엽니다.

- 우리 농수축임산물 공동직거래 장터는 사찰에서는 처음 열리는 신종 불사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국민이 지은 싱싱한 우리 농축수임산물을 직접 거래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거지요. 그래서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시중가격보다 싸게 우리 산물을 구입해서 좋고, 농어민들은 제값을 받아 좋고, 무엇보다 실직자 돕기 기금이 많아져서 좋은 1석3조의 기대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끝으로 이날 법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5일 밤9시에 참선 철야정진에 들어가 26일 새벽3시에 방선합니다. 아침공양후 만공스님의 수행처인 정혜사를 참배하고, 오후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회 회향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위영란 기자



◇새불교전국승가회가 14일 마련한 '실업자를 위한 불교 프로그램 연구' 포럼

"공급자보다 수용자 중심 실업 프로그램 마련해야"

새불교전국승가회 '실업대책' 포럼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형식적이고 공급자 중심에서 내실있고 수용자 중심으로 모색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삼보정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종교인들이 실업자들의 새출발에 정신적 모티브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불교전국승가회(회장 진관 석담)는 14일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실업자를 위한 불교프로그램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준교수(동국대)는 불교계를 비롯 천주교 개신교의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현 종교의 대응 양태를 설명하고 실직자돕기 범불교대책위(가칭) 구성 등의 불교계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박교수는 또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에 있어 △수용자 중심 △종단 및 본사급 사찰의 특별예산 책정 △신도들이 생활화할 수 있는 실천지침의 제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와 진철승씨(한국종교연구회)는 종단의 유휴토지를 이용한 귀농학교를 확대, 스님과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공동체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재스님(범어사 계명암 주지)은 종교적 이념과 사상을 통한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직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줘 새출발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사섭법 경제윤리 재정립"

교수불자련 '국난극복 자비실천' 세미나



◇박선영교수



◇유필화교수



◇정기웅교수



◇황진수교수

IMF 관리하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불교적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조희영)가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와 자비의 실천'을 주제로 16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최한 봉축학술세미나에서는 이와관련, 경제위기 및 탈북자를 위한 사회정책 등 국난극복 방안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는 '국난극복을 위한 사회개혁과 불교의 자비실천'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자비정신에 바탕한 사회개혁"이라며 "일찍이 불교에서 전륜성왕이 정법의 구현에 의해 이타자비를 실현하였던 것과 같이 무소유의 삶을 이상으로 하는 도덕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는 완전무결한 무소유의 삶은 있을 수 없으나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동리(東利)의 사섭법(四攝法) 등 불교에서 제시하는 경제윤리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발표한 유필화교수(성균관대 경영학과)는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는 신뢰의 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성장 고물가 시대도래, 구조조정의 진통, 강도높은 금융개혁, 경제개방의 가속과, 외국자본의 진출, 실업증대와 사회불안 등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탈북 이주자를 위한 사회정책'에서 황진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이들에 대한 접근은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의 시각에서 다루기 보다는 인간애, 동포애,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웅교수(경찰대 법학과)는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통해 "무엇보다 사찰이 수행과 신행의 도량이자 민족문화유산을 간직한 성스(聖所)임을 자각하는 한편, 전통사찰보존법 등 엄격한 법률적 대응이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목어

책잔치와 불교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 부보다 물질적 부를 누리려 한다. 그래서 재물에 탐착한다.

정신적 부를 축적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손쉽고 가까운 길은 책속에 있다. 책은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넓히는 보고(寶庫)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정신적 부가 물질적 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신적 부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돈벌듯 책을 읽거나 사재기를 할 것이다.

지난 3월 두 군 데 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평균 책 읽는 시간이 해마다 감소하고 반면에 TV시청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국민전체 연평균 독서량은 9.5권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변화가 없는데 독서시간은 94년의 54분(평일)에서 97년에는 40분으로 줄었다. TV시청시간은 평일 1백34분 주말 1백52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조사한 97년 년간 국민독서량은 7.6권 94년에는 9.0권이었다.

"1년간 한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은 94년 18.9%에서 97년 21.8%로 늘어났다.

독서문화 감소현상은 정신 궁핍화 현상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떠할까.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다 어느날 불어닥친 IMF바람과 책안읽는 풍조와는 무관할까.

두개의 대형 책잔치가 서울서 열리고 있다. 21~27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알뜰도서전은 재고도서축제다. '좋은 책-좋은 만남'의 이 행사에서는 3백여 출판사가 출간 2년이 지난 책을 아주 싸게 판다.

'책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17개국의 25만권 책이 세계출판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유감스럽게도 두개의 큰 책잔치에 불교출판사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기독교 출판사들은 국제도서전에서 홍보책자와 무료 전도지까지 배포했다.

참으로 21세기의 빛과 희망으로 활용되게 하려면 불교종단과 사찰 신도가 불교출판독서문화 육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부자되게 하는 불교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난극복 국민화합 기원대법회

김교각 지장보살상 및 진사리탑 점안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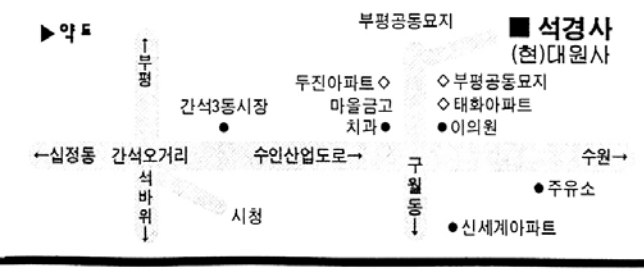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은 서기 696년 신라 선덕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24세에 왕위를 버리고 중국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구화산에 들어가(화성사)를 개창하고 지장도량을 일구니 만민이 지장보살로 추앙하고 구화산은 중국의 4대 불교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99세에 앉은 자세로 열반에 드셨으니 육신을 금으로 입혀져 중생의 변함없는 숭배의 대대상으로서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날 구화산은 김교각 대존자님을 찾는 참배객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줄을 잇고 있으며 교각스님이야말로 전인류의 스승이용 한국민의 자랑이며 역사적 인물로서 천추만대에 길이남을 것입니다.
국내의 많은 분들이 교각 대존자님을 찾아가고 있건만 정작 태어나신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흔적하나 없음은 후대의 아쉬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중국에서는 교각스님 탄생 1300주년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안위성장과 구화산 방장스님께서 스님의 고향을 방문하여 한중 양국민의 우호 증진과 양국불교의 교류를 위하여 경주 불국사에 지장왕보살 교각상을 동불로 모시고 그분의 태어나신 땅 서라벌에 모시는 것을 지난해에 처음으로 불국사에 김교각 대존자불을 모시고 이번 석경사(현 대원사)에서는 석불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민은 불심에 의해 위대한 조상이며 교개의 긍지인 김교각 대존자님 탄신 1300여년만에 고향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석불로서는 제1호로 모시게 된 것은 김교각 대존자님의 가피력과 원력에 힘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번 이불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하고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에 진사리탑과 김교각 대존자님의 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원력으로 제 1차 석경사(현 대원사) 대웅전 사찰 창건불사와 제 2차 사회복지관 불사가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전 불자는 수희 동참하여 대원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 사 내 역 ●

⊙ 행사제목 : 국난극복 국민화합 기원법회 및 김교각 대존자님 지장보살상 및 사리탑 점안 대법회 대웅전 사찰창건 불사
⊙ 일 시 : 1998년 6월 2일(불기 2542년/음력 5월 8일) 화요일
⊙ 시 간 : 제1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점안법회
제2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법회
⊙ 장 소 : 석경사 (현 대원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116번지
⊙ 전 화 : (032)463-1630, 462-7322 핸드폰 : 011-322-1630
⊙ 주 최 : 석경사 (현 대원사) 신도회

지장보살 김교각상 및 진사리탑 합동봉안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천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석 경 사 (현 대원사) 해월 최태광 합장

대웅전 사찰창건 불사에 동참하실 분은
온라인 : 212-2190838-968 (예금주 : 최석호)





"2천년대 꿈나무 용기 가져야…"

결식아동 돕기나선 운월스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운월스님(여래원 주지)이 나섰다.

"경제한파 때문에 점심을 굶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스님은 "여래원과 한국불교교화원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서울 남사초등학교와 방배초등학교의 결식아동 2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학교에 이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측에서 이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스님은 "2천년대를 짊어질 우리의 꿈나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남북 이질감 커…상호신뢰 절실"

밀가루 北 전달한 유지원 사무총장



"민족화합을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동포돕기에 각 종교계가 종교적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비의 밀가루 2백50톤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기탁하기 위해 적십자사 일원으로 북한 남포항을 다녀온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유지원 사무총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총장은 북한에 다녀온 소감을 "착잡하다"는 한마디로 대신하고 "상호 괴리감과 이질감의 폭이 생각보다 깊고도 컸다"며 체류기간 준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고 정책적 합의가 아닌 동족간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또 "통일을 논하는데 있어 지나친 종교적 색체 부각은 오히려 북한측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종교계의 통일운동을 명분으로한 과다한 경쟁을 지적했다.

당초 조불련이 남포항에서 유총장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북한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모금 총액 1,995,760원(37명) △한 주 한끼굶기 775,000원(37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2,835,000원(41명) △포럼2001 300,000원 △정토포교원 대학생회 245,000원 △청년정보문화센터715,000원 △서울대역사학과 '87동기 35,000원 △청주정토지회 795,000원 △제일선교교회 100,000원 △서울대 645,000원

〈5월13일 현재 총 1,029,085,19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행복의 열쇠는 긍정적 사고"

철웅스님 효성가톨릭대서 법문



◇21일 효성가톨릭대에서 강연하는 철웅스님.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이 21일 효성가톨릭대학 대강당에 운집한 신부·수녀·가톨릭신자 3천여명에게 사자후를 토했다. '무한성(神의 뜻)의 구현'이라는 주제의 이 강연회는 효성가톨릭대 교목실 구본식신부 등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법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석가와 예수가 이땅에 온 까닭은 분별심과 부정적인 의식을 깨뜨리고 신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겁생에 걸쳐 무수한 죄를 지어왔으며 닦고 또 닦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죄는 본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닦을 것도 따로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수경에 보면 죄의 성품은 본래 없는 것이어서 마음이 멸(滅)하면 죄도 따라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요 구원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데 긍정적 사고의 극치에 이른 분들이 예수요 부처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집에 승려가 와서 성경을 노래하니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에는 병과 죽음과 가난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의 힘(power of word)이라는게 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실패로 이끕니다.

내가 곧 부처요 예수라고 믿으면 그 순간에 해탈이지만 그게 어려우니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처·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기도문에서 말하듯 신(神)의 뜻이 이미 이뤄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돈 한푼 추구하지 않은 예수와 석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립니까? 이 위대한 경영의 노하우는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에서 한량없는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IMF시대에 어렵다고 하소연만 하지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미 부와 성공이 이뤄져있다고 믿으세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윤호 기자

교차로

훙은동 노인초청 잔치



현성 청교련회장 스님은 8일 서대문구 현성정사에서 훙은동 주거 노인 1백50여명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성북지역 경로 잔치 열어



동광 도선사 주지는 7일 우이동 계곡에서 강북·도봉·성북지역 노인 위안 잔치를 열었다.

실직자에 무료급식



정우 구룡사 주지는 4월 30일부터 IMF 실직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02)575-7766

청송교도소 재소자 위문



혜철 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스님은 6~7일 청송 제2감호소와 제2교도소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노인정에 떡·과일 전달



일관 서울 상계동 보현사 주지는 12일 연꽃노인잔치 일환으로 관내 40여곳의 노인정을 방문해 떡과 과일을 전달하고 대중공양을 베풀었다.

불교중흥회위원 간담회



정념 한민족불교중흥회 위원장 스님은 6~7일 양평 요운산에서 중앙위원 산행·간담회를 가졌다.

동원정사 대웅보전 상량



송묵 남양주시 동원정사 주지는 24일 오전11시 대웅보전 상량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오후1시 화도읍 경로잔치 및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댁미와 생활비 전달식도 갖는다.

중고생에 장학금 5백만원



수봉 경북 냉림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6일 상주시 거주 중·고등학생 27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시찰음식 무료강좌



적문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스님은 29일 일산 장애인복지타운에서 사찰음식 무료 공개강좌와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자랑스런 서울 법대인' 선정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4일 서울대 법대 동창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런 서울 법대인'으로 뽑혔다.

금강국수공장 후원 첫 모금



김도현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장은 10일 봉은사에서 첫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02)735-5559

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에



이용부 前 문화체육부 종무관은 9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고려대 14대 총장에



김정배 고려대학 문과대교수는 14일 고려중앙학원 이사회에서 고려대 제14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美 길퉁교수 초청 강연



김희오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장은 12일 동국대 원효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2+3을 통한 협력'을 주제로 요한 갈퉁 하와이대 정치학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LA 불교방송 법회 참석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은 28일 L.A 불교방송국 주최 특별법회 참석차 출국한다.

고궁차문화 큰잔치 열어



김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은 17일 서울 덕수궁에서 제5회 고궁차문화 큰잔치를 개최했다.

충남 공주에 공방 열어

오해균(조각가)씨는 16일 충남 공주시 검상동 7-2 공방을 열었다. (0416)54-9246

학사모 쓴 보살님



Focus

학사모를 쓰고 붓과 책을 든 보살님. 불자들에게 생소한 이 보살님의 명호는 학사보살이다. 13일 경북 군위군 고원사(주지 송호)에서 점안식을 봉행한 학사보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봉안된 보살상이다.

고원사는 "학사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전적 뒷받침이 없이 조성된 보살상일 가능성이 높아 불교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 주양자 前 복지부장관

"투기한적 없어…복지사업 펼터"



"인사조차 제대로 올릴 기회도 없이 저의 불찰로 인해 사임케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8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보도처럼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씨는 "남편과 함께 72년 노후생활을 위해 농장을 샀고, 그 농장을 경영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로 24년만에 팔았다"며 "투기 목적이라면 20년 넘게 소유했겠느냐"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고 판 적이 한번도 없다"며 "사실과 달리 보도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56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주씨는 "이러한 시련을 세상의 물욕을 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 대흥사 참선 수련회 ⊙

2542 禪 의향연 1998 (Zen Retreat)

일 정

찻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6일(월)-10일(금)	남:30명,여:30명	19세-55세 초보자
2차	7월13일(월)-17일(금)	남:30명,여:30명	19세-55세 초보자
3차	7월20일(월)-26일(금)	남:30명,여:30명	19세-55세 경험자
■ 자원봉사자 - 수련경험자로 매 찻수마다 5명			

신청서 양식

대흥사 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____한자____불명____성별: 남·여

주소: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 및 팩스: _____

직업: (구체적으로)_____종교:_____

수련회 경험 無( ) 有__회_____년도 제 차

희망찻수: 제 차(월 일부터~일까지)

참가소견(상세히)

년 월 일

신청인_____

모 집 요 강

1. A4용지에 본인이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좌측 양식대로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6월 20일(토) 우체국 소인분까지입니다.
5. 6월 25일(목)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6. 동참금은 1.2차 7만원, 3차는 9만원입니다.(자원봉사자 면제)
7. 수련기간중 조석 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을 가지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수련원

■ 문의처 : 종무소 TEL : 0634-34-5502,5503
FAX : 0634-35-5357

■ Foreigners may join.
A Korean style Koan Zen Retreat to be held at Daehungsa Buddhist Monastery, Send enquires and application to :

Daehungsa, Retreat Centre, Gurimni
Samsanmyon,
Haenamgun Channam 536-810

불기 2542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흥사(대둔사)** 주 지 천 운
수련원장 지 수 합장

근대불교 승가교육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근대 불교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98 춘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승가교육시와 불교근대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승가교육과 관련된
아래 주제들을 중점 논의하여 향후 한국 승가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주 제 : 근대 불교의 승가교육
2. 일 시 : 불기 2542('98)년 5월 25일(월) 오후 2시
3. 장 소 : 동국대학교 학림관(사범대학) 소강당
4. 회의 진행 및 내용 :
   ㄱ. 사 회 : 이 봉 춘 - 동국대학교(경주)교수
   ㄴ. 주제발표
   ◇ 제 1발제 : 「일제의 종교정책」 김순석(호서대 겸임교수)
   ◇ 제 2발제 : 「일제하 승가교육과 근대화」 정혜정(동국대 교육학과 강사)
   ◇ 제 3발제 : 「근대불교 유학생의 동향」 이경순(선우도량 근현대사연구회 간사)
   ◇ 제 4발제 : 「1930년대 강원제도 개선 문제」 김광식(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ㄷ. 종합토론
   ◇ 토 론 자 : 임혜봉스님 (경기 이천 지족암 주지, 근현대불교연구자)
   효탄스님 (동국대학교 강사, 前불학연구소 사무국장)
   김 경 집 (한국불교학회 연구간사, 동국대학교 강사)
5. 문의처 :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TEL. 02-732-4921~4 FAX. 02-720-4641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암 도

우리 모임에선

유마회 등산객에 무료급식

안양 유마회(회장 강부동)는 24일 관악산 삼막사에서 주민과 등산객 2천여명에게 국수무료공양을 실시한다. 유마회는 삼막사 부부불자 12명으로 구성, 불교포교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악산 등산객들에게 매달 넷째주 일요일 12시부터 삼막사에서 무료 국수공양을 해오고 있다. (0342)701-5611

심우회 노동자에 무료공양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일 사당1동 사무소앞에서 새벽 3시부터 아침6시까지 인력시장에 나온 1백여명의 건설노동자들에게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어 서초구 미화원 1백10명에게 대중공양을 했다.

하불동 낙산사 철야정진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6, 17일 낙산사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철야정진및 불교유적지를 참배했다.

하이텔 불동 강원지역모임(지역장 이성모, 춘천동성한의원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6일 오후 6시 낙산사에서 법회를 시작으로 새벽예불, 의상대 해맞이 등을 갖고 향토사학자 홍성익선생의 안내로 진전사지와 선림원지등 불교유적지를 순례했다.

국립재활원 문화 한마당

국립재활원 불교법우회(지도법사 정진스님)는 4월 22일 재활원 강당에서 법경스님(조계종 포교국장), 한충기 재활원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파일 기념법회 및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상도동 보문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장애인교육생과 입원환자 5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천주교 수녀 5명과 신자 50여명도 참석하여 종교의 벽을 허문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자고 축사했다.

한라서 백두까지 연등 밝힌다

◇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9일 총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통일 한국건설을 위해 매진키로 했다.

불교산악인련 내년~2001년 추진
6월14일 선포식…통일운동 앞장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가 내년부터 2천1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대현그룹회장)는 9일 총47개 지회중 33개 산악회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창립1주년 기념법회 △회보발행 △각 지회 및 단위산악회간 합동 산행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6월14일 광주불교산악회가 주관하여 광주 무각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개최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남북간 종교교류를 통해 통일 한국 건설에 앞장선다'는 케치프레이즈로 마련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의 이번 21세기 통일한국 기원 대장정은 국토최남단 마라도와 한라산을 거쳐 휴전선을 통과하여 백두산까지 1 백두대간과 1 정간, 13 정맥에 민족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 21세기 세계인류와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을 밝힐 계획이다.

산행방법은 47개 전국산악회에서 2명씩 선발하여 전구간 종주팀이 끝까지 종주하고, 각 지회는 해당 봉우리에 종주팀이 도착하면 함께 연등점화법회를 갖는 부분구간 이어가기 산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구간은 북한불교도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산악회와 합동으로 산행할 방침이다.

손현수회장은 "불교산악인연합회가 창립이후 1년간 발전을 위한 조직화작업을 해왔다면 2년차부터는 중·장기 사업을 펼쳐나가며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며 "통일한국을 건설하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속에 통일사업 추진위를 구성하여 북한동포돕기 기금모금등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고문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인곡(태고종 총무원장)스님, 서돈각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송석구동국대총장, 박봉식 통도사신도회장을, 자문위원에 불교신문 사장 정휴스님, 불교TV 사장 정우스님,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을 위촉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동호회內 사이비종교 활동

유니텔, 영생교 침입…스님비방·교리 왜곡

유니텔불교동호회에 영생교도의 침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유니텔 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영생교를 비롯한 사이비종교들의 불교왜곡과 관련 정법수호차원에서 발본색출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하나'라는 ID를 사용하는 위장불자 영생교도 현경서씨는 최근 유니텔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불자여러분'이라는 메일을 보내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허망한 유의법"이며 스님을 '잡승'으로 표현하며 '3천년간 속았으면 됐다' '큰스님들은 밥을 축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등 영생교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영생교도들은 또 4월24일부터 13일까지 유니텔통신 토론마당에 한도율씨(ID Victdr81)가 의장으로 '석가는 성불한 부처인가?'리는 1142번 토론실 참여란을 개설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며 불교를 왜곡하고 영원히 죽지않는 진리인 영생교를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토론방을 이끌어 왔다.

무려 9백32건이나 올라온 토론방에는 '신금강경' '팔만대장경의 숨겨진 비밀' '감로…' '성불해탈자 조희성' 등 영생교관련 내용이 무수히 등록돼 있고 불교인들의 토론내용은 부정적인 부분만 남겨둔채 거의 삭제된 상태. 이는 9백32건중 4백83건만 등록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유니텔불동 대표시삽 김희정씨는 10일 '일련의 사태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영생교도들이 교묘하게 불자로 위장하여 불교동호회에서 설쳐대고 있다"며 "영생교도들이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전국을 돌며 영생교교리를 주입시키고 회비까지 받아 착복해 왔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다수의 영생교도를 확인하여 제명처분하자 이교도들은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교교리를 이용한 자신들의 정당성과 영생교 교리파급, 대표시삽 인신공격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리는선수 장애인나들이

우리는 선수(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10일 '제5회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장충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노인 1백20명과 자원봉사자 1백4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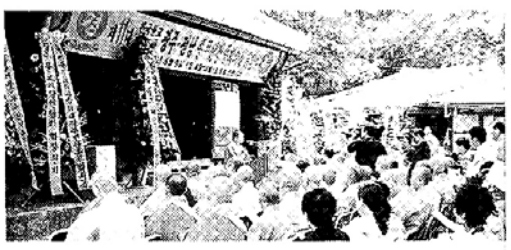
조계종 정각회 불자 초청만찬

조계종 총무원은 8일 오후6시 종로구 하림각에서 국회정각회와 정각동우회 소속 불자를 초청 만찬회를 가졌다. 만찬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서석재 정각회장, 김명윤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한규신의원을 비롯한 정각회원과 동우회원 5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고도보존법 추진과 사지복원 등 불교계 숙원사업들의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광주 향림사 전법도량 현판식

광주 전법도량 현판식이 10일 향림사(주지 천운스님)에서 거행됐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문을 통해 "전법도량 지정을 계기삼아 향림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불교중흥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광민스님(무각사주지), 광주시장 후보 고재유, 남구 이정일 구청장, 광주불교방송 이상진사장, 광주불교능인회 김두원회장, 광주불교빙원장 기우성씨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취임

제11대 광주·전남종무원장및 종회의장 취임식이 9일 광주 운천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현지스님, 전남불교신도회장 김두원,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렸다. 신임 총무원장 동환스님(나주 태평사주지)과 종회의장 법천스님(광주 선양사주지)은 "사회복지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광주·전남종무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덕유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열어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덕유1단지부녀회(회장 박순덕)와 함께 4일 오후 덕유마을 노인정에서 저소득 노인 1백여명을 초청,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사철 국회의원(한나라당)과 한병환 시의원(국민회의) 등 지역유지들이 참석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점심·다과회, 노래자랑 등의 잔치를 벌였다.

탐방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

신심과 화합 심는 '노래 포교사'

합창단 지휘자 등 27명 구성
종파 초월 '연합합창 발표'
불교오케스트라 창단 발원



◇음악을 통해 종단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 27명의 불교음악인들은 불교오케스트라 창단을 발원하고 있다.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는 음악을 통한 불법홍포와 자기수양을 위해 지난 91년 2월 대구지역 8개 불교합창단의 지휘자들로 결성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교합창제를 위해 창립, 거의 매년 4월초파일을 기해 연합합창제를 개최해왔다. 94년부터 경북지역으로 문호를 확대, 현재는 대구경북지역의 불교합창단 지휘자 및 불자음악가 2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이 지역의 불교음악을 선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진각종 금강합창단, 사원주지연합회합창단, 천태종 풍락합창단, 불국사합창단, 한마음선원 송언합창단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합창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회원들은 년1회 연합합창제를 개최하며 각 합창단은 개별적으로 합창발표회를 갖는다.

이 모임의 장점은 회원마다 전공이 다르다는 것. 국악전공에서부터 작곡 성악 기악 피아노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전공이 다양해 수준높은 연합합창을 창출해낸다는 평을 받고있다.

회원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석사출신만도 70%에 달한다. 또 대학에 출강하는 회원이 7명에 달하고 있으며 해외유학파도 5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종단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 조계종은 물론 진각종 천태종 총지종등 타종단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음악을 통한 대중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同협회는 올 가을 불지성악가 중심으로 찬불독창회를 열 계획이며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교계 최초의 불교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서원을 세워놓았다.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작곡자인 이달철회장(45·심인고교사)은 "불교음악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제고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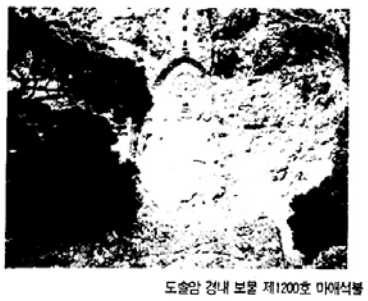
대구=이윤호 기자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윤 오월 삼사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삼사 참배도 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 은 1422년의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 삼장지장보살님을 친견합시다 ◆
天藏보살 보물 280호(도솔암)
人藏보살 보물 279호(선운사)
地藏보살 (신라말경 추정 - 참당선원)

◆ 도솔암 오는 길 ◆
◆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 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삼사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2천명까지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참 배 코 스 ◆
■ 제 1코스 : 도솔암, 참당암, 선운사
■ 제 2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 제 3코스 : 도솔암 선운사, 실상사(내변산)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0677)64-2861, 61-0075 팩스 : (0677)61-4080
문의처 부산 · 경남 : (051)632-0383/대구 · 경북 : (053)255-2838/서울 · 경기 : (02)238-9910

법회안내



송산스님(인천 보각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 화엄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학생법회. (032)887-1992



성운스님(삼천사 주지)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첫째 셋째주 오전10시 부부법회. (02)359-7766



철우스님(영산율원장) 24일 31일 오전11시 길상사 극락전 보살계 법문 강의. (02)3672-5945



초격스님(광명선원) 매월 음력 1~3일 오전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인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기도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3시 문사수중고법회. (02)574-1108



일연스님(동학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금강경 법문. (042)825-257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30년만에 빛본 만해정신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개관

역사적 인물로서의 만해 한용운을 연구하고 추모함과 동시에 그 정신의 확산과 새로운 기운 진작을 위해 마련된 만해기념관이 완공돼 20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는다.

만해기념관은 연건평 1백20평의 전통한옥 2층건물로 종합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교육관,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종합전시실에는 전보삼회장(만해사상연구회)이 30여년 동안 수집한 만해스님의 친필 유묵, 저술, 3·1운동당시 옥중투쟁과 관련된 신문자료, 연구서 등 6백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스님의 종교·사회·문학활동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기념관 관람을 통해 가슴으로 느낀 만해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추모의 장도 마련, 만해사상 선양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0342)44-3100

편하고 맵시있는 우리 옷
여불련 생활한복 바자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우리의 전통맵시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생활한복 바자회를 갖는다.



◇생활한복은 전통의 멋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려 낸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26일 오후1시~9시까지 종로5가 연강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바자회는 실용적인 소재를 이용한 생활한복을 비롯 어린이를 위한 개량한복, 실크 누비 등으로 만든 양장식 한복과 결혼예복 등도 선보인다.

우리민족의 슬기와 멋이 담긴 우리옷을 생활복으로 개량하여 활용함으로써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생활한복을 시중가격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바자회에는 경기불교연합합창단, 자원봉사연합회합창단, 현성여성합창단, 바라밀여성합창단 등의 불교음악 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02)738-5586

외국인과 함께 녹차를…
통도사부산포교원 하동답사

마음닦기를 소중히 하고 정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이 차를 즐긴다는 옛말이 있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소식.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에서 '외국인과 함께 차 만들기'라는 주제로 5월 24일 차의 고장 경남 하동으로 여행을 떠난다.

향긋한 차 한잔에서 우리들이 맛보는 것은 단순한 차맛만은 아니다. 차의 빛깔과 향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한켠에 밀려났던 타인을 향한 배려를 일깨워 차 한잔 알뜰히 우려내는 마음의 여유를 배운다.

푸릇한 차잎으로 정성껏 차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며, 우리문화에 낯선 외국인들과 차문화속에 어려있는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여행이 될 것이다. (051)816-2241

법흥사 식물 곤충의 세계
'맑고향기' 사찰생태기행

5월은 가정의 달.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는 우리의 자연을 온가족이 함께 만나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할 기회가 왔다.

맑고향기롭계(회주 법정)는 24일 영월 법흥사로 제9차 사찰환경생태기행을 떠난다. 법흥사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이번 생태기행은 잠서 곤충연구소 박해철 연구원과 경원대 조경학과 전승훈 교수가 법흥사 주변의 식물과 곤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줄 예정이다. 동참금 1만5천원. (02)741-4696

차 한잔에 담는 이웃사랑
길음복지관 23일 하루찻집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 저소득, 질병 등의 문제로 소외된 우리이웃의 자립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9시~오후8시까지 성북구 돈암동 커피전문점 조디악에서 하루찻집을 연다.

하루찻집 수익금은 IMF실직자 재취업·창업을 위한 무료교육과 실직가정 자녀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경제난으로 후원이 끊긴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 지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료 수술비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티켓은 1장당 3천원이며 당일 하루찻집을 방문해 후원금 등을 지원할 수 도 있다. 차 한잔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2)985-0161~4

나의 수행일기



전 현 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불교공부를 통해 부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인간이고 또한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니 대단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고(故) 병고(丙古) 고익진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불교신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배우자를 타종교인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타종교인도 될 수 있는 정도였다. 1985년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을 통해 그 당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계시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대학병원 정신과 전공의 2년차였다. 선생님은 일찍부터 아함부경전의 앞부분인 업설에 대해 배웠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법문이 업설인데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과연 그런가 하고 현실을 살펴볼 때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짧았다. 만난지 3년만에 돌아가셨고, 그 뒤는 선생님에게 먼저 배운 법우로부터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정신장애자들도 병난 과정을 잘 알아보면 처음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貪瞋痴) 삼독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이 쌓이고 쌓여 환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정신장애이다. 약물과 상담으로 비뚤어진 상태로 굳어진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데 힘이 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출발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삼라만상의 이치까지 다 깨치게 되었다고 본다. 불교와 정신치료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교공부를 하는 게 나에게는 외도가 아니고 본업에 충실한 것이다. 이점이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이다.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교경전은 정신치료서이다. 실제로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법구경을 보면 부처님 교단과 그 당시 사회의 온갖 인간군상이 다 등장한다. 그 사람들이 불교 교단과 사회에서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부처님은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다. 오늘날 경험있고 설득력있는 정신치료자 누가 그렇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고익진선생님을 만나 불교공부를 한지 13년이 되었다.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것인지, 내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알기위해 수행의 한 방편으로 경전을 보고 있다. 주로 팔리 경전을 직접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팔리어를 공부하여 번역되지 않은 경전도 봐야할 것 같다.

정신치료하기 불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불교로 부터 뭘 배우고 실제 환자 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생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것과 함께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다.

아함경 보며 세상이치 탐구
경전은 정신치료서…환자치료에 적용

승보살회라는 불교공부모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화의 삼부경 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선생님으로부터 아함부경전의 앞부분인 업설에 대해 배웠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법문이 업설인데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과연 그런가 하고 현실을 살펴볼 때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짧았다. 만난지 3년만에 돌아가셨고, 그 뒤는 선생님에게 먼저 배운 법우로부터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

게 시 판

♣ 인사

중앙승가대 △학생계장 이복우 △교무처장 김영만 △총무주임 강율원 △법인주임 박길현 △기획주임 김창룡 △총동문회 사무국장 정혜스님(조계종 교육원연수국장)

♣ 알림

△무료마을문고 개장=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복지관 2층에 무료 마을문고를 개장했다. 이용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12시까지다. (02)282-1100

△무료구인·구직 알선=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무료로 구인·구직자를 알선한다. 건축이용직, 일당잡부, 기술자, 현장보조, 식당파출부, 가정파출부, 일당제 또는 시간제 근무 희망자를 모집중이다. (02)458-1664

△이선숙씨(前 불교TV 마케팅 부차장)는 5일 강서구 외발산동에 카페 온에어(ON AIR)를 개업했다. (02)661-7778

♣ 강좌

△직장인을 위한 교리=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은 6월 3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연다. (02)732-1206

△금강경 강좌=불교대구교육원은 25일부터 2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무비스님의 금강경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2만5천원. (053)253-7063

♣ 모집

△유마경특강=문사수법회 김태영법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7시30분 견지불교사 3층 견지광장에서 유마경 특강을 한다. (02)722-7160

△출판경리=민족사(사장 윤창화)는 출판경리를 구한다. 출판경리 유경험자면 가능하다. (02)732-2403

△쌍계사승가대학=쌍계사승가대학(학장 통광)은 사미과 신입생, 사집과 사교과 편입생들 모집한다.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입학금 및 방부비는 없다. (0595)83-1906

△어린이바둑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한다. 입문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지도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무료 및 감면혜택이 있다. (02)852-0525

△염불만일회 지회=전국염불만일회는 5월말까지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 정토불교운동에 관심이 있고, 사찰이나 포교당 등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불자면 가능하다. (02)732-1215

△한글·수화교실=대구 자비의전화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한글교실을 연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053)253-2655

△불교문화센터 23기 강좌=불교문화센터가 2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반야심경, 법화경 신해품, 불화그리기, 위빠사나, 유아교실, 어린이글짓기 등의 강좌가 오는 6월 1일~8월31일까지 3개월동안 개설. (02)703-0108

△원효불교대=원효불교대학(학장 증악)은 중급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매주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주간반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야간반을 운영한다. 수시입학가능. (053)563-9154

♣ 화촉

△이인아씨(이태행 불교TV 본부장 차남)는 16일 KBS신관에서 이수정양과 화촉을 밝혔다.

마음을 다스리는 큰스님 27인의 가르침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신국판 332쪽/값 8,000원 (일반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 시대 지혜의 등불을 밝힌 큰스님들과 석학들 27인이 진리의 전당인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설법하신 주옥같은 법문들. 어려운 시대 지혜의 등불을 밝혀 용맹정진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는 선지식들의 간곡한 글이다.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바로 그대안에 있다.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쉴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법정스님 법문 중 '인도 시인 카비르의 詩'

엮은이 법산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 (02)260-3016

법보시 권해용으로 구입하실 분은 동국대학교 정각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 사진은 책의 목차에 따른 배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 刊
100-728서울 중구 필동 1가 51번지
TEL 2626-427,2626-442 FAX 271-0463

국악-양악 어우러진 호국불심의 선율

"팔만대장경 정신 음악으로"

13일 대장경음반 봉정

울해는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옮겨진 지 6백주년이 되는 해.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해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이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스님)와 김수철씨는 14일 오후 3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팔만대장경' 음악 봉정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

'팔만대장경' 시리즈 중 첫번째로 나온 이번 CD는 모두 4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악기와 서양클래식, 중국악기 그리고 현대의 신서사이저 등 각각의 음악적 효과를 살리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팔만대장경이 태어난 배경,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표현했다.

제1악장 '서곡-다가오는 검은 구름'은 평화로운 멜로디로 시작돼 점차 감도는 전운을, 제2장 '전장에서'는 서양 중세의 교회 음악이 바탕에 깔리고 태평소 아쟁 피리 오고북 그리고 중국악기 얼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전쟁이란 침략하는 자 침략당하는 자 모두의 인간성이 파괴됨을 나타냈다. 3악장 '구천으로 가는 길'은 신서사이저가 주로 사용돼 전쟁의 비참함과 좋은 세상을 열망하는 민심을 담았고 4악장 '천상의 문에서'는 장엄한 서양클래식과 우리 소리와의 조화를 통해 팔만대장경조성 공덕으로 위기와 국난이 극복되고 평화가 도래했음을 표현했다.



◇14일 조계사에서 작곡자 김수철씨가 팔만대장경 CD음반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있다.

김수철씨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대중음악적인 2집, 서양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든 3집, 해인사의 소리를 담은 4집 등을 차례로 낼 예정"이라면서 "음악공연과 세계시장 진출도 모색해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정식에는 지관·암도·무관스님,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 '팔만대장경' 음반 출간을 축하했다.

구입안내 (02)3785-0632 〈숙〉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 22일~6월14일 예술의 전당 '이강백 연극제' 4번째 작품

화합과 중도 '가치찾기'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 이강백(사진 위)의 최신작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곡작가 이강백씨(51). 예술의 전당이 2년마다 한번씩 우리 연극계의 대표적인 연극인을 선정하여 집중조명하는 '오늘의 작가' 시리즈 세번째 인물로 선정돼 열리고 있는 '이강백 연극제'가 불교작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4월 16일부터 '내마'(74년) '쥬라기의 사람들'(82년) '영월행 일기(95년)'에 이어 '느낌, 극락같은'이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것. '느낌, 극락같은'은 중도라는 이상적 경지를 지향하는 작가의 동양적 세계관을 엿볼수 있는 최신작이다. '…극락같은'은 특히 '오구' '파우스트' '문제적 인간 연산' 등 숱한 화제작을 양산해 낸 이윤택씨가 연출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연극에는 5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최고의 불상제작자 함묘진, 그의 두 수제자인 동연과 서연, 함묘진의 무남독녀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승인. 동연과 서연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스승의 딸인 함이정을 좋아한다. 그러나 불상제작에 대한 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동연은 불상을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 그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찾으려 하고 서연은 부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완벽한 형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세속의 잣대대로 결국 함묘진의 후계가 동연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해 동연은 최고의 불상제작자라는 세속적 성공과 스승의 딸인 함이정까지 차지하게 된다. 서연은 진정한 부처의 마음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산과 들, 길가에 석불, 토우 등을 만들다가 죽음에 이른다.

어느 편의 삶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가. 현실에서는 '형식'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세계관이 화해하고 융화된 자리에 진정한 '극락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편을 흐른다. 동연과 서연의 상충되는 삶의 방식사이에서 고민하던 조승인이 "소리속에는 침묵이 있고 침묵속에 소리가 있는 … 극락의 음악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꿈꾸며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조화된 경지가 바로 '극락'이라는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양 극단을 피하고 조화된 중도(中道)의 경지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불교의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강백의 초기의 작품들이 이원적 세계의 대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느낌, 극락같은'은 불상을 만드는 장인정신을 통해 참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연극이다.

이 연극에는 함묘진역을 맡은 관록과 배우 신구를 비롯 조영진 이용근 김소희 씨등이 출연한다. 또한 12명의 코러스들이 화려한 채색의 봄의 불상, 여름을 상징하는 금동불상, 쓸쓸한 가을의 토우, 황량한 겨울들판의 돌부처 등을 몸으로 형상화해 이색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공연시간 평일 7시30분 토 3시 7시30분 일 3시. (02)580-1880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8〉

솔창의 반나절 졸음만 하랴

一塢雲霞只寂然 한 언덕 구름 안개 다만 적연한 고요 속 (일오운하지적연)
十年甁鉢遠人煙 십년의 바리때와 물병은 세상 연기 멀리하다 (십년병발원인연)
遙知槐穴千鍾祿 멀리 알겠다, 저 괴수나무 골의 천 종의 녹이 (요지괴혈천종록)
不博松窓半日眠 소나무 들창의 반나절 졸음보다 크지 못함을. (불박송창반일면)

연파대사의 '산거잡흥'에 있는 20수 연작의 하나이다. 십년을 하루같이 산 속의 고요함에 묻혀 있는 스님의 한가함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스님으로서야 한가함일는지 모르나, 속인의 처지에서는 어쩌면 지루함일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듯 한가하다든가 지루하다는 상반된 개념도 처지에 따른 차이이지, 그 대상의 본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계니 세속이니 하는 경계가 있는 것이지, 자연사물 그 자체에 선속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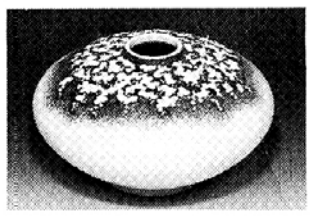
구름이나 안개로 덮여 있음은 일차적으로 세속과의 경계를 짓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속계라 해서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언덕(一塢)이란 한 이 하나의 숫자적 인상이 여럿이라는 속세적 시끄러움과 구별짓는 한계를 느끼게 하면서, 다음 구의 '적연'과 어울려 승속의 거리를 느끼게 한다.

여기에 1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은 앞 구의 하나라는 공간과 대조되어 더 긴 시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시의 수사적 묘미다. 이 긴 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물병과 하나의 바리때로 만족하는 생활이니 세속과의 거리는 자연적으로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 있어서 다음 구의 '멀다(遠)'는 천연적 수사의 진솔함이다. 무엇이 멀다는 말인가. 멀다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히 속세의 삶이다. 연기란 사람살이의 수단으로서의 대표성을 띤다. 이것이 인연(人煙)이라 하게 된 이유이다. 아울러 속세의 먹이가 화식으로 대표되는 연기였다면, 산중의 병이나 바리때는 이 속세의 먹이와의 구별로도 상징지워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깥 세상은 어떤가. 저 출세 길로 대유되는 괴수나무의 굴혈이다. 거기에는 녹으로 대표되는 부귀라는 이름의 재화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쟁취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속인들의 일상생활이다. 여기 산중은 어떠한가. 그저 저 솔바람이 스쳐주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서 창이라 함은 그래도 저 자연과 나의 삶의 공간을 구별지어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창으로 경계짓는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될 것이가 그야말로 육척단신을 갈무리할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한낮의 한가함을 저 부귀로운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스님의 해탈적 사유를 잘 표현한 시라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원성스님 산중일기전



설봉스님 도예전

29~6월4일 롯데화랑

어린이와 청소년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설봉스님(무애원)이 29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9층 롯데화랑(02-411-6933)에서 생활도자기전을 연다.

이번 도자기전에는 스님이 직접 구어낸 다기 향로 촛대 등 불구와 식기셋트 장신구 등 도예작품 1백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화제의 전시



24일까지 마산 대우갤러리

'동승전'을 주제로 여러차례 개인전을 가진바 있는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이 18일부터 24일까지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0551-40-5000)에서 '산중일기'전을 갖는다.

곰 사슴 다람쥐 토끼 등 산짐승들, 소나무 국화 연꽃 개나리 등과 어울린 천진스런 동승의 하루일과를 해맑게 묘사한 작품 80여점을 볼 수 있다.

화제의 전시



◇ 강행원作 '장백폭포'.

강행원씨 개인전

21일까지 광주남봉미술관

윤산 강행원씨(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장)가 21일까지 광주 남봉미술관(062-232-6236)에서 8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릉도 전경' '저리도 고운 웃음' '봉원사의 봄' '장백폭포' 등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강' '킬리만자로' 등 해외 풍물을 그린 수묵채색 작품 6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종교예술제 10월9일 개막

문화예술을 매개로 종교상호간의 이해와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98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10월9일부터 27일까지 음악 미술 영화 학술세미나를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종교예술제 주요일정

종류	일시 및 장소	주관
음악제	10.27 음악당 콘서트홀	불교방송
미술제	10.9~16 미술관 3층 4·5전시실	한국기독 총연합회
영화제	10.9~20(토·일 제외) 한국영상자료원 영사실	천주교중앙협의회
학술 세미나	미정 서예관 컨퍼런스홀	천주교중앙협의회

불광-목아박물관 주최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상에 김호빈양



◇종합대상을 받은 김호빈양의 그림.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해 지난 5일 길상사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에서 김호빈(행신초등 6)양이 종합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김민재(하남 덕풍초등 3)군이 대상인 봉축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기념으로 열린 이날 부처님그리기대회에는 전국의 어린이 1천5백여명이 참가했다.

봉축위원회 지정

불교 이미지 통일을 위한

「불자의집」 교패



▣특징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부식이나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반영구적입니다
▲크기 5.5cm×7cm
▲보급가 1개당 1,000원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여름불교학교(현수막, 모자, T셔츠, 부채)전문

참사람 열린고육 .....변화하는 대학

'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 (야간) ☎ 260-3097~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4(목) ~ 6. 12(금)09 3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18(목) 14 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90주년 기념학술관 2층)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전공)및 면접
2)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 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 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하며 해외자매대학 유학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

불교지도자과정
가.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형일시 및 방법 1998. 6. 19(화) 14 00 서류전형 및 면접

● 문화예술대학원<신 · 편입생> (야간) ☎ 260-3606~7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학과	환경예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1(월) ~ 6. 12(금)10 00~17 00
(토,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20(토) 10 00 본 대학원(학술문화관 K동 3층)
5.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 각종 장학금 지급처도 있으며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편입생〉
1. 응시자격
가. 타대학원에서 지원학과와 동일계열 학과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한자
나. 전적 대학원에서 총 12학점이상 취득한자
2.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3. 원서접수와 교부 및 전형일시
신입생 입시일정과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에 문의 바랍니다.

문화예술지도자과정
1. 모집분야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2.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 · 문화 · 예술 및 언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 · 조경 등의 유관기관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4. 특전 식사과정과 동일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260-3114 FAX (02)260-3692
■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SINCE 1906

제 11 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 안내

"여름피서는 자녀와 함께 가족수련회로"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수신련으로 자기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로 나밖에 모르고 편하게 살려다 보니 윤리도 덕은 사라지고 IMF라는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布施行으로 공동체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차	대 상	일 자	인 원	회 비
1차	부모은중수련	7월 23일~25일(2박3일)	50 가족	무 료
2차	청소년	7월 26일~29일(3박4일)	100명	1인 30,000원

*1차 2차 동참자 교통비는 별도

■ 장 소 : 까치마을 수련원
■ 대 상 : 1차 - 부모은중도 법보시 동참가족(화가 김이랑님과 함께)
2차 - 초 · 중 · 고생 3차 - 일반가정 가족
■ 준 비 물 : 쌀 大1되, 필기구, 세면도구, 양말5켤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 접수마감 :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은 접수 안됨)
■ 접 수 처 : 까치마을 02)873-6646~7 FAX : 02)873-6648
(우편 151-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391-9번지)
■ 기 타 : 1. 후원 공양 보살님 및 지도자 자원봉사 모집
2. 회비 송금처 : 국민은행(812-21-0329-747 엄욱상)
3. 회비 송금이 되어야만 접수가 됨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촌장 법 전 합장

큰스님 · 석학들의 가르침서 얻는 지혜

화제의 책



물속의 물고기가… | 법산스님 엮음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바로 그대 안에 있다.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쉴 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법정스님은 인도 시인 카비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개선하고 심화시키는 명상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그동안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렸던 '고승초청법회'에서 법문했던 관응 녹원 원담 서암 월운 법정 청화 도문 스님 등 스물일곱 큰스님의 법문과 고형곤박사, 고은 시인,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의 강의를 정리해 담았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큰스님들과 석학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사, 8천원〉

소설로 읽는 무학대사의 일생과 수행

화제의 책



무학대사 | 노경식 지음

고려말기 사회적 모순과 불교의 폐단을 개혁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몸소 실천했던 무학대사(1384~1405). 함경도 안변 설봉산 토굴에서 참선수행하던 중 이성계와의 운명적 만남, 중생구제와 나라의 안녕을 위한 각고의 노력, 그리고 새나라가 건설되고 난 후 명예와 공리를 헌신짝 버리듯 떨치고 산승생활로 돌아간 무학대사의 인생역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무학대사의 일생을 드라마화한 BBS의 '고승열전' 시리즈를 쓴 작가 노경식씨가 소설로 재구성한 〈무학대사〉(상·하권)는 수행자로서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면모와 아름답고 순수하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스님의 모습을 그렸다.

이 책에서는 또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의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의 교류를 느낄 수 있으며, 무너지는 고려 왕실 앞에서 고뇌하며 충절을 지키려는 당대 선비들의 일편단심도 읽을 수 있다. 〈문원북, 각권 8천원〉

새로나온 책

▲생활 속의 법회=신심을 키우고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정기법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법회의 의미와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예절, 불자의 생활윤리, 생활 속의 수행, 가정 예불과 기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법회의 요령과 의식문을 함께 실었다. 도서출판 이바지 편집부가 엮었다. 〈이바지, 3천5백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장가 안 가길 잘했네〉〈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스님(대구 관음사 주지)이 법구경에서 1백30여개의 문장을 뽑아 재구성한 책. 원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현대감각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70여쪽에다 한 손에 잡히는 변형판이라서 어디서라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좋은인연, 2천원〉



▲지혜의 샘물에는 쉼표가 없다=사랑과 이별, 진리와 자각, 지혜와 경험, 노력과 성공에 관한 불교 이야기들을 한데 묶었다. 어느 노파가 밝힌 꺼지지 않는 등불 이야기, 지혜를 과는 스님 이야기 등이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을 준다. 그러면서 이 책은 뜻대로 안되는데 인생의 묘미가 있다는 역설적 메시지를 통해 삶을 더욱 힘차게 끌어안게 한다. 시인 황청원외 지음. 〈책만드는집, 4천원〉



▲영원한 현실=대원 문재현 법사의 법문집. 1백5가지의 주제를 통해 불법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한다. 눈으로 보는 모든 인식, 귀로 듣는 모든 인식,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인식하는 것, 뜻으로 분별하는 것까지도 쉬는 가운데 나타나는 밝고 또렷한 마음이 바로 영원불멸한 마음이며, 영원한 현실임을 깨우친다. 〈바로보인, 1만5천원〉

최봉수씨 '마하박가' 완역

국내 첫 팔리어 율장 번역

각주 · 해제 달아 이해 쉽게



'마하박가(Mahávagga)'는 팔리어로 된 삼장의 문헌들 중에서 율장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전은 범어(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것이 중국으로 건너와 한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도 팔리어 원전번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오역이 적고 부처님 당시의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수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가 완역한 〈마하박가〉(전3권, 시공사刊)는 팔리어 율장 중 첫째권인 '대품'의 원전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팔리어 율장 번역본이다. 이 대품이라는 말의 팔리어가 바로 '마하(Mahá, 大) 박가(Vagga, 品)'다.

팔리어 경전은 이들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남방불교가 원초적인 불교형태를 가장 순수하게 유지해 오고 있고, 팔리어 경전이 현존하는 여러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불교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하박가〉출간 의미는 크다.

팔리어 원본 '마하박가'는 큰이야기, 포살, 우안거, 자자, 가죽, 약, 카티나 옷, 법의, 참파, 코삼비 등 모두 10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출간된 〈마하박가〉는 제1권에 제1편 큰 이야기를 담았고, 제2권에는 제2편 포살에서 제5편 가죽까지, 제3권에는 제6편 약에서 제10편 코삼비까지를 담았다.

'마하박가'는 율장이지만 계율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제1편에 깨달음이나 전도, 교화, 화상과 제자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부처님이 왜 처음에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기를 꺼리셨는지 등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또 계율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법조문처럼 "첫째 이것은 하지 마라, 둘째 저것은 하라"는 식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다. 어느때 어떤 비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를 보고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므로, 또는 꼭 필요한 일이므로 "하지마라" "해도 좋다"는 식의 관단을 내리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정사 안에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끓이고, 또 스스로 음식을 끓이는 일을 금했던 부처님은 기근이 들자 정사 안에 저장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또 비구들이 밖에서 불안하게 먹자 다시 안에서 먹어도 좋다고 했으며, 사람들이 비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지 않자 스스로 끓여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제6편 '약')

'마하박가'는 이처럼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었던 율이 기계적인 원칙의 강요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상황 철학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 〈마하박가〉는 이런 가르침들마다 제목과 번호를 붙여 놓았고 어렵거나 꼭 알아야 할 용어마다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또 권 앞에 해제를 달고 각 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아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따라가도록 했다. 여유있고 깔끔한 편집도 '율장'이라는 딱딱한 느낌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최봉수씨는 "율장 이해는 율장 속의 단순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 또는 깨달은 자로 구성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남방 상좌부의 성전어(聖典語)인 팔리어로 된 율장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발간의미를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지혜가 하나씩 30가지 꾀 이야기'

"대장경속에 동화 있네"



산골마을 마음씨 착한 농부집에 사는 쥐가 마루 밑에서 금화꿰짝을 찾아냈다. 몹시 가난했던 농부에게 쥐는 금화를 하루에 한개씩 물어다주자, 농부는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쥐와 반씩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쥐가 음식을 매일 고양이들에게 빼앗기자 이를 안 농부가 유리구슬을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들은 유리구슬 속에 숨은 쥐를 깨물려다 이빨이 부러져 도망가고 농부와 쥐는 행복하게 살았다.('금화를 물어다 주는 쥐')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동화집에서 나왔을 법한 이야기. 그러나 서로 도와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는 다름아닌 팔만대장경에서 나온 이야기다.

전문동화작가 정해왕씨가 엮은 〈지혜가 하나씩 30가지 꾀 이야기〉(웅진출판 刊)는 팔만대장경에서 이야기를 발굴한 것으로, 대부분 소개된 적이 없는 이야기 30가지를 뽑아내 묶은 유아용 그림동화다.

여기에 실린 동화들은 팔만대장경 속의 경전들 가운데 본생경, 백유경, 현우경, 잡보장경 등에서 뽑아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쳐 쓴 이야기들로, 한결같이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친구간의 우정을 중요시하는 이야기, 협동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이야기, 생명을 존중하는 이야기,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 욕심과 거짓말을 경계하는 이야기 등.

계다가 각 편마다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전개가 달라 책읽는 재미를 한층 높여준다. 악어 원숭이 사자 해오라기 게 코끼리 메추리 수달 뱀 거북이 여우 개구리 등 30가지의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마다 재미있는 그림들이 시원하게 그려져 있어 유아들에게 밝은 정서를 함양시키고 동물들과 친근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기법으로 본 일상을 詩로"



장석남 두번째 시집 '젖은 눈'

"베란다에 놓인 봉숭아꽃을 바라보세요. 그 꽃이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들은 지금 우리 앞에 무수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성철'의 주인공을 맡아 관심의 초점이 된 시인 장석남씨(33)가 자신의 두번째 시집 〈젖은 눈〉(솔출판사 刊)을 내놓았다.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선어록들을 읽은 그가 일상적 소재를 산문적 어법으로 다루면서 연기법을 흘리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는 시집이라는 큰 물위의 작은 물결이고, 시집을 내는 것도 삶이라는 큰 물의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결은 사라지면 역시 물일뿐이고요"

'봉숭아 씨를 얻어다 화분에 묻고/…/후일 꽃이 피고 씨를 퍼뜨릴 때/…/그 중 몇은 물빛 손톱에게도 건너간/…' 시 〈봉숭아를 심고〉가 바로 그렇다. '새가 앉았다 날아간 나뭇가지'를 보고 '물결들이 건너간 물 위'를 보고 일상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그늘을 보면서 세상 모든 현상이 연기법에 의해 생멸됨을 노래한다.

"시를 접하면서 불교와 가까워졌습니다. 시는 불교와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씨의 시심은 '오, 저 물 위를 건너가는 물결들처럼'(서문) 불심으로 흐른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에밥,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9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5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6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7	팔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8	선학강의	현 각	불일출판사
9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수선회
10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윤 청 광	서울출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불축.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 날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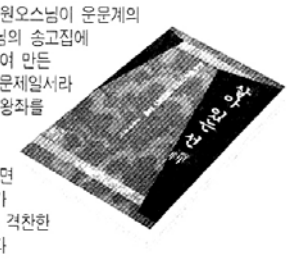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 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식가로 불릴 만큼 총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

불교와 과학의 만남 "불교 이해폭 넓혀"

고려대장경硏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세미나

서구 과학과 접목시도
불교이해의 길 확장
— 소흥렬 교수 —

불교적 수행과정
마음과 의식의 진화
— 윤혜린씨 —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공(空)'과 '연기(緣起)'.

이 두 사상이 "서구문화 및 현대 과학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화·다원화되면서 불교해석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세미나가 9일 오후2시 동국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소흥렬교수(이화여대 철학)는 "외부 사상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개, 발전된 불교가 만약 외부 사상과의 관계를 끊고서 불교만의 세계를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불교를 서구 현대과학의 영역과 접목시켜 보는 등 현대적 의미로의 재해석은 또한 다양한 불교이해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소교수는 "서구의 도구주의적 발상이 〈중론(中論)〉에서 보여준 용수의 논리적 분석 방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한다면 유용한 임상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 심리학 등의 인지과학과 의식과학적 탐구가 불교의 '무아(無我)'나 '무심(無心)'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불교의 마음 이해와 현대과학의 마음 설명을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불교와 마음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혜린씨(이화여대 철학 강사)는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진화'의 개념을 확대해 마음의 진화 또는 의식의 진화 가능성으로 연장해보면 불교적 수행의 과정이 우리의 의식에 가져오는 변화가 곧 마음과 의식의 진화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깨달음은 마음의 진화를 추동하는 힘이다"며 "불교는 마음의 진화에 기반해 있으며 불교적 수행법은 마음의 진화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적 인과로서의 연기'에서 박소정씨(이화여대 철학과)는 연기와 인과의 형이상학적 차이를 밝히는 가운데 불교의 '연기'와 서양의 '인과(因果)' 개념의 접목을 시도했다.

박씨는 "인과의 개념이 확장되고 연기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상호적 인과'의 연기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기와 인과를 연관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보다 포괄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전제한 박씨는 "서양철학에서 원인 설명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4가지 유형, 즉 '형상인' '목적인' '질료인' '동력인' 가운데 현대 과학이 유효한 인과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하는 동력인과 질료인 외에도 새로운 속성의 출현과 그러한 속성의 인과력이 함께 설명되는 범위로 인과의 개념이 확장된다면 상호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과 연기' 세미나는 올 연말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며, 6월13일 열리는 제2차 세미나에서는 △불교적 추론의 모형(김욱선·이화여대 철학) △불교와 의식의 과학(소흥렬)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9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과 연기' 세미나.

학술단신

불교학회 춘계학술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제29회 춘계학술연구발표대회를 21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승랑 상승(僧朗相承)의 대승진리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반야사상의 동점(東漸)과 그 이해(계환스님·동국대 교수)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02)260-3122

불학연 25일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는 '근대불교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25일 오후 2시 동국대 소강당에서 춘계세미나를 연다.

△일제의 종교정책(김순석·호서대 교수) △일제하 승가교육과 근대화(정혜정·동국대 강사)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 (02)732-4921

8회 가산학술상 공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제8회 '가산학술상' 및 〈가산학술총서〉 연구자를 공모한다.

'가산학술상' 공모 대상은 불교학 및 관련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미발표 논문 초록 1부와 중장기 연구계획서 1부, 발표논문 및 저서를 이력서와 함께 6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

문헌에 나타난 연기·苦 고찰

이종철교수 논문 발표



〈구사론〉등 문헌학적 기초연구에 바탕, '연기(緣起)'와 '고(苦)'가 불교적 세계관의 성찰인 '형이상학'임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교수는 9일 열린 '97년도 외부과제 발표세미나'에서 '연기'와 '고'의 문제를 분석한 논문 '연기와 고-불교와 형이상학'을 발표했다.

이교수는 "삶의 개별적인 현상 자체보다는 한결 근원적인 '그 어떤 것', 곧 삶의 근저에 놓여있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성찰이 '형이상학'이라면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영역에 관계된 제 문제는 불교사상에 보이는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연기의 범어표기 'pratityasamutpada'의 성립과정을 통해 어의(語義)분석을 시도하고, '연기의 이구(二句)' 해석에 관련된 제문헌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기의 함의를 고찰했다. "연기의 함의는 〈구사론〉의 저자 와수반두가 밝힌 '연기의 이구(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하므로 저것이 생기한다)'로 드러나며, 연기적 세계관은 필연성의 세계를 부정하고 본질적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체개고는 성자(聖者)의 현관(現觀)이란 인식행위에서 제시된 명제다 △'고'의 성립근거는 '성자들이 거부하는 것'에 있다고 제시했다. 즉 번뇌에 물든 삶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현상(無漏法)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무상한 존재로, 무상한 존재는 무루혜(無漏慧)를 갖춘 성자들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苦)이라는 것이다.

이교수는 "이번 연구의 초점을 부처님의 근본사상에 맞춤으로써 불교적 세계관을 재음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국제소식

獨 명상센터 규제법안 파문

독일 연방의회가 정신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자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안하고 있는 '상업적 정신치료 관련 소비자보호법'이 독일 불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독일의 오쇼미디아(oshsmedia)가 보도했다.

이번 파문은 연방의회가 초안한 '보호법'이 독일불교계의 명상 요가 등의 치료 행위를 상업적 의료행위로 분류한 반면 고회 등이 설립한 연구소의 의료행위는 비상업적인 것으로 구분 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명상센터 내에서 일반 수행자들의 보시금과 후원금으로 정신요양·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독일불교계는 이번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명상센터의 운영 조차 까다로운 '보호법'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과행적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베리아서 티벳불교 곤혹

러시아 불교학자 아유세에프(Ayusheyev)가 티벳의 고대 의학서적을 보존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고서는 9세기 무렵 티벳에서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 〈인체 해부도〉로 1953년까지 티벳의 라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중국의 강점과 더불어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 아유세에프는 "러시아 정교의 교세가 가장 큰 시베리아 지역에서 티벳불교와 문화의 말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찰들은 도서검열를 강화, 티벳불교서적를 계획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의 문화단체들이 마련해준 비밀 피난처에서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아유세에프는 이 고서 외에도 40여점에 달하는 티벳불교미술품을 보호하고 있다.

美 뉴욕 '티벳하우스' 개원

티벳 불교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티벳하우스'가 4일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티벳 승왕 달라이 라마,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미국의 불교신도들이 대거 참여한 문화원 개원식에서 티벳하우스 중앙홀에 세워진 황금불상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티벳하우스는 티벳의 고전과 현대의 예술뿐만 아니라 티벳의 언어와 의학, 종교 서적 등을 전시해 티벳의 문화를 서구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독립을 요구하는 단식투쟁과 분신자살 등 최근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그들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국제단체 불교우의회

지역·교파초월 불교정보 열람
달라이라마·틱냑한스님 등 설립

지역과 교파를 초월한 불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 곳은 불법 포교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불교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불교우의회(Friends of Buddhism, 이하 FOB)가 개설한 사이트.

티벳의 달라이 라마(Dalai Lama), 일본의 스즈키 로시(Suzuki Roshi), 베트남의 틱낙한(Thich Nhat Hanh), 대만의 성운스님 등 현대 불교신도들이 존경하는 고승들이 가상공간에서 설립한 FOB는 티벳·중국·인도·베트남 불교계의 연합단체로 널리 알려졌다.

△올해 8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까라짜끄라 진언(Kalachakra Mantra)에 관한 대규모 강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티벳의 승왕 달라이 라마는 이번 강좌에서 진언에 담긴 여래의 온갖 공덕을 가르치고 불교신도들의 평화 정신을 고양할 예정이다.

까라짜끄라 진언은 일체경을 두고 여닫게 만든 서가의 중심에 돌아가는 기둥은 세워놓고, 이것을 돌려서 대장경을 실제로 읽은 공덕을 기리는 진언.

2천5백년전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언은 고대 인도와 티벳에서 널리 애송됐다.

이 곳에서는 진언의 원문와 영어로 음역된 것을 열람할 수 있다.

△중국 북경 소재 링광(Ling Guang) 사원에 세워진 부처님 사리탑에 대한 북경인들의 친견 소식을 전해준다. 치(Qi)왕조(424-498) 시대에 건립된 사리탑은 전장 51미터의 대탑. 중국불교연합은 1964년부터 이곳에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일본의 불교도들을 초청, 대규모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해상의 사리탑 전경 사진을 다운로딩(가져오기)할 수 있다.

△ 동산·틱낙한·성운스님 등 FOB가 선정한 14명의 고승의 수행, 교학 등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승 중에는 중국 선승으로서 일본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동산(Dong Shan·806-869) 스님의 오도송과 법거량이 상세히 기록된 행장도 열람할 수 있다.

△부다다사 스님의 〈사색의 양식(Food of Thought)〉, 아잔 슈메도스님의 〈조용한 마음의 가르침(Teaching from the Silent Mind)〉 등을 비롯해 28권의 불서도 선정하고 진언이 수록된 테이프 8종도 소개한다. 또 〈반야심경〉과 〈열반경〉을 영어·한문본으로 각기 제공하며 진언과 티벳불교와 관련된 일반상식도 알려준다. 게쉐란 20년 이상의 법랍을 가진 스님 중에서 중관(Madhyamika), 아비달마론(Abhidharma), 율장(Vinaya), 논장(Pramana) 등의 공부를 마친 고승을 지칭한 것.

△FOB는 〈Reader's Garden〉이라는 인터넷 전자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FOB가 권장하는 '생활선'과 관련된 불교적 사상이 많이 실려 있다. FOB의 생활선은 올바른 생계로서의 사업체와 지역 공동체에서 협동으로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독특한 서구불교 생활양식. 이를 통해 FOB는 현대 서구사회와 관련있는 방식으로 불교를 표현하고 불교의 본질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http://isis.infinet.com/rinpoche/

재가불자를 위한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연구원은 재가 불자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신행활동을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불교의 전통수행 방법을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생활불교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재가 불자들의 일상사와 인생 결절점의 통과절차에 필요한 불교의식을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참여가 용이하게 구성하여 전통불교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 위원회에서 재가불자 신행 체계화라는 주제에 따라 연구한 내용입니다.

• 교 양 반 •
일용의식 : 조석예불, 기도, 공양의식, 법회의식
상용의식 : 문성, 안택, 개업, 준공의식
통과의례 : 돌, 결혼, 회갑, 장례, 성묘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기 초 반 •
도량석, 종성, 예경, 불공, 천도의식, 특별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 금강경강의 •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원 장 성 마
(불교방송문화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강사)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主人公이 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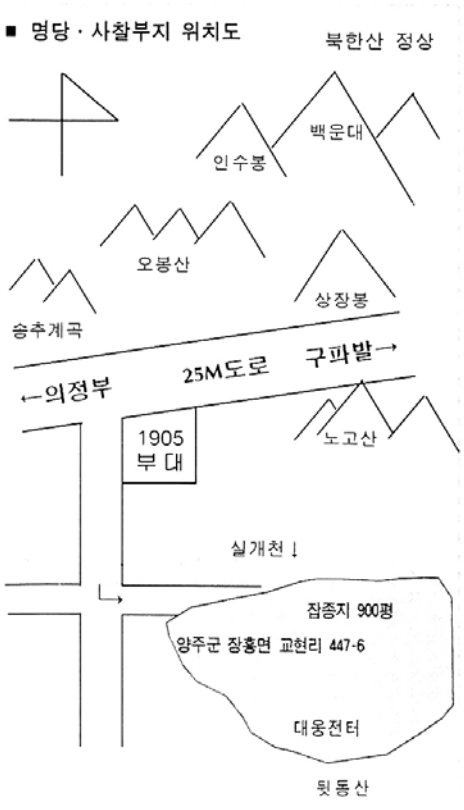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궤도이탈(軌道離脫)로 혼돈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빚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涼)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작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저 한다.

• 참 고 사 항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 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희를 맞아 평생의 숙원을 결실코자 함.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

⊙ 도심속의 명당 · 사찰부지 ⊙

■ 명당 · 사찰부지 위치도



● 정남향!
● 북한산의 명봉이 한눈에 들어오며
● 노고산 심곡의 옥수같은 계곡물이 앞마당으로 흐르는 명당의 사찰터
● 병풍처럼 둘러쳐진 뒷동산 배경은 부처님을 바라보는듯 편안함을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느낀다고 함
● 도심속의 심산계곡 여름엔 숲이 우거져 시원하고 겨울엔 눈부신 햇살에 쌓인 낙엽이 솜이불처럼!

교 통 편
· 구파발 지하철 3호선까지 승용차 10분거리
· 의정부 지하철역 10분거리
· 서울 시내버스 156번 통과
· 불광동-의정부간 시내버 34번 통과
· 고원선 기차
· 원각사지 송추 유원지
· 장흥국민관광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447-6
☎ 0351)826-3665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0

마조의 딱지돈 ①

*대매(大梅)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馬祖)가 대답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나 혜개가 말한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으며,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하리니 그가 곧 부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매는 여러 사람을 이끌어 저울눈금을 잘못 읽게 했다. 어찌 알았으리. 부처를 말했다면 사흘동안 입을 씻어야 하는 것을. 진정한 대장부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따위의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고 도망간다."

*송하여 가로되, "푸른 하늘 아래 밝은 태양. 절대 뭘 찾아 나서지 말라. 그런데도 다시 부처가 무어냐고 묻는가. 이는 훔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

卽心卽佛:

馬祖, 因大梅問, 如何是佛. 祖云, 卽心卽佛. 無門曰, 若能直下領略得去, 著佛依喫佛飯, 說佛話行佛行, 卽是佛也. 雖然如是, 大梅引多少人, 錯認定盤星. 爭知道說個佛字, 三日漱口. 若是個漢, 見說卽心是佛, 掩耳便走. 頌曰, 青天白日, 切忌尋覓. 更問如何, 抱贓叫屈.

혜능에게는 뛰어난 제자 다섯이 있었다.

1) 남양혜충(南陽慧忠 677~775): 혜능의 법을 이은 다음 등주(鄧州)의 백애산(白崖山)에서 띠집을 짓고 40년을 정진하며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황제 숙종(肅宗)이 소문을 듣고 그를 수도로 청하자 궁궐 근처에 머물며 다음 대종(代宗)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선의 진리를 폈다. 그래서 국사로 불린다. 영광은 컸으되 후계가 없어 고적했다. '늘그막에 외롭고 고적한' 나머지, 덜 익은 알을 쪼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앞의 제 23강을 기억할 것이다. 국사가 시자를 세 번 부르자, 시자가 세 번 대답하는 것을.

2)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절강 영가 사람. 어려서부터 경(經)과 논(論)에 밝았다. 천태에 정통하고 유마와 반야로 눈을 떴다.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경지를 알아보고 싶어 혜능을 찾았다. 첫마디에 혜능의 인가를 받았다. 곧 물러나려 하자 혜능이 물었다. "어찌 이리 서두르는가." "본래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서두르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런 줄은 누가 아는가." "스님께서 분별을 내실 뿐입니다." "그대가 생사 없는 뜻을 매우 잘 아는구나." "생사 없음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는 것은 누가 확인하는고." "분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감탄한 혜능의 권유로 하루 쉬어감으로써 일숙각(一宿覺)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저작 가운데 진리의 세계를 노래로 읊은 〈증도가(證道歌)〉와, 선의 기획과 구상을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직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이 있다. 이 사람에게도 후계가 없다.

3)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58): 이 인물에 대해서는 32강 이하 "육조의 의발"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본래 신수의 제자였다가 신수가 무후의 조정에 불려가자 조계의 혜능을 찾아갔다. 732년 낙양 근처 활대(滑臺)의 개운사(開雲寺)에서 열린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신수의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선의 남종 정통론을 주장하면서 사상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신회와 그 일파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혜능은 정통의 6조로 끌어올려 졌고, 이후 선은 남종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신회 자신은 혜능의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의 후계도 적막했다. 그리하여 남종선의 계승은 다음 두 사람에게 맡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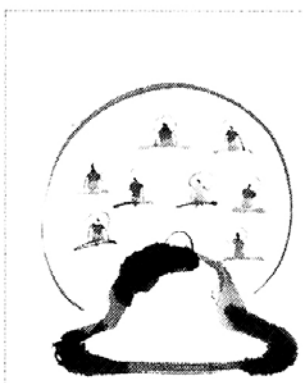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4) 청원행사(靑原行思 ?~740):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과묵한 성격으로 "아직 사성제(四聖諦)도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여 혜능을 감동시켰다. 나중 청원산에서 가르침을 폈는데, 제자가 오직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하나였다.

밝은 태양아래 뭘 찾아 나서나

'마음이 부처' 충분히 이해하면 그가 곧 부처

그래도 그는 "뽑난 동물이야 많겠지만 기린 하나면 족하다(衆角雖多, 一麟足矣)"고 흡족해했다. 과연 그랬다. 석두희천은 수많은 선장들을 길러냈다. 지번의 덕산을 기억할 것이다. 점심때도 아니 되었는데 밥그릇을 들고 어슬렁거리다가 지청구를 먹는 일하며(19강), 금강경주석을 지고 거들먹대다가 떡파는 노파에게 정수리를 맞고, 용담의 촛불로 눈을 뜨는 것을(45~48강). 선의 오대 문파 가운데 운문(雲門), 법안(法眼), 조동(曹洞)이 그로부터 뻗어내렸다.

5)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 열 다섯의 나이로 육종계통에 출가하여 스무살에 계를 받았다. 훌륭 길을 닦다가 숭산의 혜안(慧安)을 찾아갔고, 혜안은 그를 다시 혜능에게로 보냈다.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물건인 듯이 얘기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說似一物卽不中)." "닦거나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더럽힐 수 없는 것이 여러 부처가 지키던 바다. 너도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회양은 오랫동안 육조를 모시다가 남악에서 선풍을 떨쳤다. 그에게도 제자는 많지 않다. 다만 '천하를 주름잡는 말 한 마리'를 키웠을 뿐이다. 오늘 살펴볼 마조가 그 사람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0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쳤지만, 우리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정어(正語)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마도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추방됐다는 감정을 가질 것이다. 사회인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배가 암초에 부딪

정어 ③

쳐 좌초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원초적 두려움을 나타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진실은 바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애착, 두려움, 폭력 등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서 나타내기를 꺼린다.

포장된 감정과 여과된 생각이 섞이지 않은 감정들을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같은 감정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들키지 않게 감춘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감정들은 오해의 씨앗이며 전쟁의 불씨가 된다. 오해와 전쟁은 우리가 내면에 숨기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해와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

애착 · 두려움 · 고독 등 내면의 어두운 감정이 진실한 말 가로막아

을 어떻게 보고 표현하고 놓아주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알아야 한다. 마음의 그림자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둠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선행을 행하면 특별한 순간에 보상받지만, 위선은 현잡꾼, 불량자, 아첨꾼들의 마지막 탄원일 뿐이다"고 말했다.

선행은 먼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선행을 베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움직임과 마음 간의 연결상태(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사로운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단지 그 상태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대개 마음의 말, 진정 필요한 어떤 말을 하지 못한다. 진실한 말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단지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를 위해 잠깐 멈춰선 것일 뿐이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두려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 무엇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우리는 옛기억을 더듬을 때 대부분 기분이 유쾌했던 일을 생각해 낸다. 또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분명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에 담겨진 삶의 도리를 그대로 표현했던 순간일 것이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팔정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수행하며 세 속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다. 우리가 내면의 혼동스러운 대화를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춰진 마음을 보고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끝없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고독이다. 또 그것은 지루함, 두려움 등이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한다. 이 감정들은 공(空)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정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정어의 실천으로 말이다. '깨달음'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 진실한 말 등에 눈을 뜬 상태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보고 들으며, 마음과 함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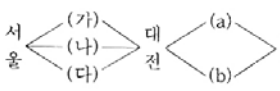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⑤④

결합과 인연

김 용 운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이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것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 (개) 하나에 대해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씩 있다.

이 갯수는 서울에서 대전에 가는 다른 방법 (내), (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개), (내), (대), 3가지에 대해서 각각 (a), (b) 두 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2'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m개, 그리고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n개 있을 때, A와 B가 합해질 때 취하는 선택 방법은 m×n가지이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9

모든 생물 유전자 구조 공통점 조합상태 따라 다양한 種 발생 불교의 연기론 조합설과 같아

인간의 모든 활동은 유전자가 한다. 말할 때는 우선 유전자가 작동한다. 유전자가 작동하여 언어에 관한 정보를 뇌에서 뽑아 내어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걷는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유전자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유전자의 구조와 원리는 모든 생물에 관해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곰팡이나 한낱 대장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간의 것과 같다. 이 사실은 곧 모든 생물이 같은 생명의 씨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생물의 시작은 세포이지만, 그 움직임은 유전자의 한결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의 기본 원리가 같은 것이므로 모든 생물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만물제동(萬物齊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과학 차원에서도 진리인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비록 구조와 원리가 같다고 해도 그 조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장균과 인간의 유전자는 같다. 그러나 그 조합이 달라짐으로써 전혀 다른 종이 된 것이다. 조합이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곧 '연기'이다.

연기란 여러 요소가 서로 얽혀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쌍의 부부의 만남을 설명할 때 '연이 있어서'라고 한다.

이때 두 사람의 연(가능성)이 잘 결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 선택 하나 하나가 연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성인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수는 각각 70조개 정도로 이들이 합해져서 생기는 연기는 70조 곱하기 70조, 따라서 약 4900조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70조개의 유전자를 갖는 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다.

익살쟁이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미모의 여배우로부터 청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의 명석한 머리와 나의 외모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쇼의 대답은 "나의 못생긴 얼굴과 당신의 나쁜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정말 끔찍할거요"였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이 대화는 연기의 수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쌍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의 결합 가능한 수에서 자신의 유전자 70조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전자만 생각해서도 한 사람의 탄생은 천문학적인 연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의 희귀한 연기의 결과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는 것은 과연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신비스러운 일은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와 엉뚱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연기에 신비스러운 자기조직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엔진의 부품은 약 만개 정도가 된다. 이들 만개의 부품은 설계도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는 환경과 마음의 결합으로 절묘한 연기의 열매를 형성하며 자기조직을 실현시킨다.

불교 철학에서는 만사가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기의 결과는 일정한 조화가 엿보인다. 부처님의 뜻이라고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고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뿌린대로 거두는 農心배워요"


◇새벽예불.


◇새벽참선.


◇실상사 농장 귀농인들과의 대화.


◇즐거운 새참시간.

9일 봄 햇빛이 따사로운 지리산 실상사농장.

찰랑찰랑 물 잡긴 논배미에서 남녀노소가 어울어진 한 무리의 도시인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한 줄의 모를 심고 한번씩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허리를 편다.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지루하지가 않다. 산자락과 맞닿은 하늘을 응시하면 자연과 호흡하는 미래가 보인다. 허리와 다리에 적지 않은 고통이 느껴진다. 한 톨 쌀과 먹거리의 소중함이 뼈에 사무친다.

이들은 저마다 하나씩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찌든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농부산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른바 귀농희망자들이다. 8명의 여성 농군후보를 비롯 24명의 교육생은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 해운회사 임원, 기자, 동대문시장 상인, 공무원, 은행 지점장, 커피숍 주인, 대학생 등 이력도 다르고 60~24세의 연령차도 컸지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불교적 삶의 가치를 깨닫는 기쁨은 다를 수 없었다.

지난 8~11일 지리산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실시된 불교귀농학교 현장교육은 '선농일여(禪農一如)'의 불교적 귀농교육의 첫 현장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남녀노소 24명 동참
생명살리는 농사통해
경쟁심 잡초뽑듯 없애고
이웃과 협동심 나누며
신토불이·선농일여 체험

이었다. 3박4일간 진행된 현장교육은 새벽 예불과 참선으로부터 시작해 오전 오후 노작, 저녁 예불과 토론 등으로 진행되어 대부분 불교입문자인 참석자들이 불교도 배우고 농사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꽉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첫날은 입재식과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의 법문, 불교예절, 참선 등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했지만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작이 실시됐다. 과제는 실상사 화엄학림 스님들과 함께 하는 모내기와 더덕밭 김매기. 대부분 처음 해 보는 농사일이 서툴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스님들과 함께 한 울력이어서인지 뿌린대로 거둘 것을 믿는 '농심(農心)'이 인과(因果)를 믿고 선을 행하는 '불심(佛心)'과 다르지 않음을 실감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배움으로써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체험하기도 했다.

10일 노작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더덕 발매기, 곤달비 수확 및 잡초 제거 등을 실습했다. 잡초와 싸워 이기는 농작물의 모습이 도시에서의 생존경쟁을 떠올렸다. 이제는 경쟁의 마음을 잡초처럼 뽑아 버리고 이웃과 협동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만물을 살리는 땅의 자비심을 배워 욕심없이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선 땅을 살리는 유기농법을 해야 해."

11일은 건축비가 적게 들고 난방·통풍이 잘 되어 건강에 좋은 45평 규모의 '흙집'(실상사부설 함장연구원)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9·10일 저녁 7시30분에 각각 진행된 '실상사·농장 운영자들과의 만남'과 '귀농 및 인생계획 발표회'는 귀농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철우 실상사농장 대표 등 4명의 선배 귀농인들은 불교적인 삶, 환경친화적 농업이란 이상과 농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촌에 잘 적응하는 노하우는 없을까요?" "아이들 교육은 문제가 없나요?" "유기농법은 몇년만에 시행이 가능한가요?"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요?"

"품앗이를 통해 농업기술을 배우고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학생수도 적고 자연속에서 도시에 뒤지지 않는 열린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애들이 좋아해요." "유기농법을 위해서는 땅을 살리는 퇴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년이 걸립니다." "공동협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결칠 수 있어요."

선배들은 교육생들의 세부적인 질문에 정성스레 답하면서도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욕심없이 산다면 성공적인 귀농이 가능하다는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10일 저녁 귀농계획 발표회는 저마다 이번 교육이 현장교육 후 허망한 계획을 좀더 현실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나름의 장단기 귀농계획을 털어 놓았다. 대부분 자급자족에 만족하면서 자연 유기농법을 실시하고, 수행자의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교육생들에게는 며칠간의 산사 생활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농운동의 가장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한 것도 중요한 수확이었다.

그러나 교육생들은 지속적인 불교귀농운동의 확산을 위해 귀농학교에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모임 또는 단체구성 △가나안 농군학교, 귀농운동본부 등과 프로그램 공유 △교육 기본자료서 필요(일지작성, 작목별 설명, 귀농성공사례 수록 등) △재배기술, 불교강의, 흙집짓기 등 프로그램 전문화 △월1회 정도의 농업현장 방문 등등.

불교귀농학교는 7~9월 장기 현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 5~8일 제2차 단기 현장교육 △6월 13~14일 현장탐방 △6월20일 제2기 귀농학교 개강식 △9월(또는 11월) '농촌문제를 보는 불교적 관점'(가제) 주제의 심포지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야 6반, 농지 3만평의 실상사농장에 귀농학교 수료생 중 일부를 참여토록 하고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생태농장을 개설, 도시인들이 대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글·사진=김재경 기자


◇농사일의 기본은 모내기. 처음하는 일이라 허리는 아프지만 대자연속의 충만감이 느껴진다(사진 위).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며 마음의 번뇌도 솎아낸다



"생태농사 짓는 불자공동체 건설"

실상사 불교귀농학교장 도법스님



"실상사를 불교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실질적인 생태농사를 짓는 공동농장으로 가꿀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귀농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농촌 사찰이 지역 농업경제와 문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데 불교귀농학교가 밑거름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귀농 및 농촌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조계종 사찰 유휴토지 및 활용가능한 토지의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휴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각 사찰별 조사작업 내지 의견 취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귀농운동 지원은 지방자치시대의 포교전략으로도 긴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농사지으며 생활불교 배울터"

귀농결심한 연석흠-황수옥부부

"시골로 돌아가 한가로운 전원에서 생활불교를 구현하며 여생을 보냈까 합니다."

1기 불교귀농학교 현장교육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연석흠(60·서울 송파구 풍납2동·건축설계 감리사) 황수옥(57)씨 부부. 슬하에 2남2녀를 둔 연씨 부부는 모두 농촌에서 태어나 30년이 넘게 살아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년에 충남 아산에 정착할 계획이다.

연씨 부부는 토담집(황토방)을 짓고 무공해식품을 생산하며 욕심없이 살기 위해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에 밭과 과수원 그리고 전답 9천평을 오래전에 마련해 두었다. 논 3천평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성공한 귀농' 이렇게 사전준비·영농실습 등 거쳐야

'실직태풍'이 몰아치는 도시를 떠나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리해고가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고 귀농하려는 도시인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귀농은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귀농에도 일반 취업이나 창업 이상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 철저한 사전조사와 수요예측이 필수적. 사업품목(재배작목) 사업규모(경지규모) 투자비용(시설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평균 농지가격은 밭의 경우 평당 1만9천원선. 농가주택은 평당 2백여만원이다. 비닐하우스 시설비용은 한평에 평균 9만4천원. 유리 온실의 경우 한평에 40여만원이다. 영농 기본장비인 트랙터와 중형 경운기는 각각 7백만~1천만원, 1백80만원.

실습영농 농협중앙회 등 귀농을 돕는 단체가 마련한 영농 실습과정에 참여한다. 농부들이 추천한 작물을 골라 휴경지 등 땅을 빌려 1년 정도 농사를 지어본다. 주택이나 농지는 동네사람과 친해진 다음 1, 2년 뒤 매입하는 것이 좋다. 1천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영농지원 영농 희망자는 농협이 갖춘 전산망 '하나로복덕방'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주택 농지 농기계의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지원하는 농촌정착자금도 놓치면 손해다. 주소지를 농가로 옮기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춘 사실을 농촌지도소에서 확인받은 50세 미만 영농 창업 희망자는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26, 5608).

귀농정보 △불교귀농학교(02-723-1884) △귀농운동본부(02-742-4611~2) △농협중앙회(02-397-6459,0333-53-2531~5) △흙살림연구소(0445-33-8179) △한국자연농업협회(0445-32-8777)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02-3401-6543) △시군 농촌지도소(대부분 지역번호+5959).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자수로 보는 '부처님 생애'

남상민씨 자수전
국립민속박물관서
6월1일까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묘사한 '성등정각'.

섬세한 여인의 손에 의해 한 땀한 땀 바늘과 실이 수천수만번을 움직이면 화려하고도 조화가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이러한 자수예술로 표현된 부처님일대기를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불자자수가 남상민씨(64·한국자수문화협회 명예회장)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6월 1일까지 여는 '자수예술로 읽어본 부처의 생애'.

남씨가 수년간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 65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 생의 전 과정을 모두 91개의 주제로 세분하여 생생한 그림으로 엮었다. 특히 지난 74년부터 5년에 걸쳐 완성한 도솔래의상 비탑강생상 쌍림열반상 등 팔상도는 이번 작품전의 백미. 이외에도 관세음보살도 등 불 보살도와 성철스님의 영정 자수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이경숙 기자

아미타 부처님의 최신력으로 극락정토의 장엄을 세웁니다.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튜울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에버랜드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독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정상에 따른 왕관없이 우대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1개월이상 단체에 한함)

상품명	상품내용	일반개인	일반단체	아미타전 우대가격 어른	중고생	어린이
아미타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 자유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1	아미타전+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1종선택	15,000	13,000	10,000	7,000	6,000
아미타2	아미타전+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2종선택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3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 자유+식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4	자연휴양림 아미타전관람포함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737-8881 팩스: 737-0697,737-0696)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이양품(利養品) ②

夫欲安命 부욕안명
息心自省 식심자성
知鼠藏穴 지서장혈
潛隱習教 잠은습교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쥐가 구멍에 몸을 숨기는 것 같이
고요히 은둔하여 가르침 익혀라

約利約耳 약리약이
奉戒思惟 봉계사유
爲慧所稱 위혜소칭
清吉勿怠 청길물태

이양을 단속하고 귀를 단속해
계율 받들어 고요히 생각하면
지혜롭다 기림 받으리니
맑고 좋은 것 게을리하지 말라

如有三明 여유삼명
解脫無漏 해탈무루

當知是過 당지시과
養爲大畏 양위대외
寡取無憂 과취무우
比丘繹心 비구석심

마땅히 이 허물 알아야 한다
이양은 크게 두려워 할 것이니
적게 취하여 근심 없으면
비구는 곧 마음 깨닫는다

非食命不濟 비식명불제
孰能不噉食 숙능불취식
夫立食爲先 부립식위선
知是不宜嫉 지시불의질

먹지 않으면 목숨 부지 못하니
누군들 능히 먹는걸 헤아리지 않으랴
무릇 먹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나
이 이치 알아서 질투하지 말아라

嫉先創已 질선창이
然後創人 연후창인
擊人得擊 격인득격
是不得除 시부득제

미워함은 먼저 나 해치고 남도 해친다
계율 받들고 맑고 좋은 것 게을리 말라

寡智餐識 과지선식
無所憶念 무소억념

만일 세가지 밝음(숙명·천안·누진)이 있으면
벗어나 번뇌 없을 것이다
온갖 알음알이 적게 하여
잊혀지지 않는 생각 없게 하라

其於食飮 기어식음
從人得利 종인득리
而有惡法 이유악법
從供養嫉 종공양질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남을 좇아 이익 얻지만
거기에 나쁜 법이 있다면
공양에 따라서 미움을 기르게 된다

多結怨利 다결원리
强服法衣 강복법의
但望飮食 단망음식
不奉佛教 불봉불교

원망과 이양에 많이 맺히면
억지로 법복을 입었지만
다만 바라기는 먹고 마시는 것뿐
부처님 가르침은 받들지 않는다

미워함은 먼저 나를 해치고
연후에 남을 해친다
남을 때리면 나도 얻어 맞나니
이것으론 미움을 없앨수 없다

寧噉燒石 영담소석
吞飮洋銅 탄음양동
不以無戒 불이무계
食人信施 식인신시

차라리 불에 달군 돌을 먹고
구리 쇠물을 마실 지언정
계행이 없으면
남의 믿음어린 보시를 먹지말라

사문품(沙門品) ①

端目耳鼻口 단목이비구
身意常守正 신의상수정
比丘行如是 비구행여시
可以免衆苦 가이면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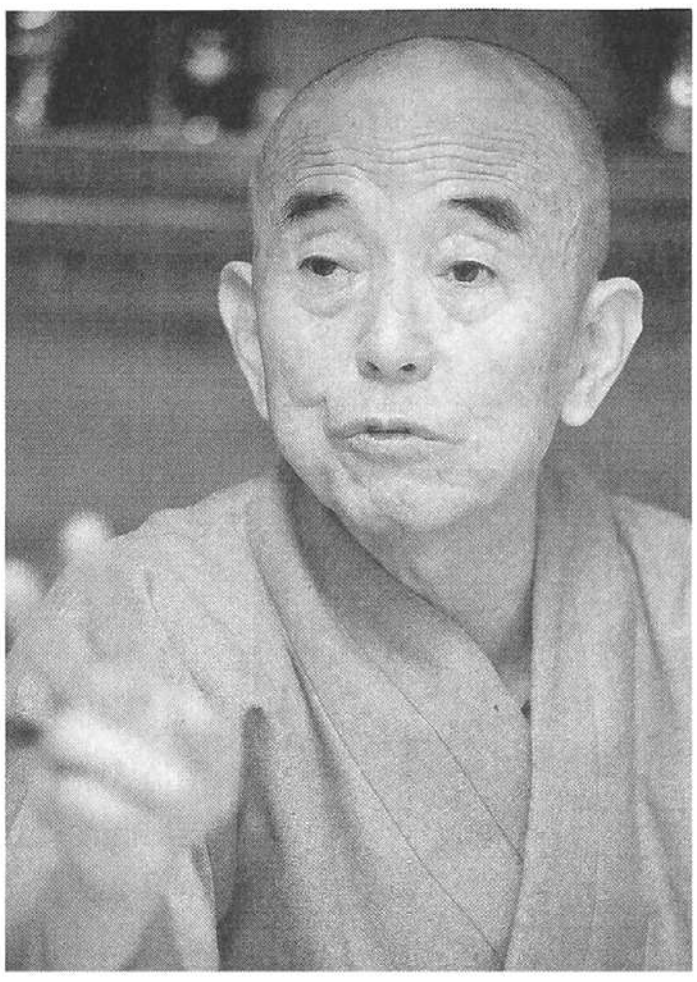
눈·귀·코·입을 단정히 하고
몸과 뜻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가 이와같이 행하면
그로써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자리가 무엇일까

종성스님 〈임제선원장〉



약력
- 1930년 전북 부안 生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교에서 물교학 전공
- 1968년 백양사에서 서옹스님을 은사로 득도
- 現 임제선원에 주석
-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辨〉 등 논저 다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우주의 본성은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다'
화엄경 법문은 대장경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다.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응당 우주의 본성을 살펴보니 일체가 오직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도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화엄경〉 법문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며 골자입니다.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근본이라 하여 유기적 정신작용도 무기적 물질(無機的 物質)이 고도로 발전한데서 나오는 것이라 하니 과학적 인과법칙 상에서도 크게 불합리한 사상입니다. 무기적 물질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물질이지 유기적 정신체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을 뒤집어서 물질이나 정신의 근본이 한 마음이니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닌, 색공불이(色空不二) 색심일여(色心一如)의 도리를 설하신 것입니다.

불법은 바로 이 마음도리를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깨닫고서 선언하시되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고, 유정 무정이 모두 부처를 이룬다(一切衆生 悉有佛性 有情無情 悉皆成佛)"고 하셨습니다.

후대의 조사스님들도 이 진리를 깨달아 증득하신 것이니 조동종의 유명한 천동정각(天童正覺) 선사께서는 그의 〈묵조명·默照銘〉에서 "일체 만상삼라가 광명을 내며 설법하고 있으니 각각 서로 증명하여 밝고 맑게 드러났다" 하시고, 유명한 송나라 때의 대문호 소동파 거사도 이 마음도리를 실제로 깨닫고 오도송에서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이요, 푸른 산빛은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랴. 깊은 밤에 깨달아 얻은 팔만사천 도리를 뒷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까?(谿聲便是長廣說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 하였습니다.

나는 출가 전 세속에서 부처님의 마음법에 대하여 처음 접했을 때 이치적으로는 크게 수긍이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우주만유와 유정 무정의 근본이며, 초목와석과 산하대지가 방광설법(放光說法)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서(禪書)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조국사의 〈수심결〉과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등에서 '이 마음은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고, 죽어서 깜깜하지 않고, 초롱초롱 살아 있다(空寂靈知 惺惺寂寂)"고 하신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일부러 짓는 마음이지 저절로 성성적적한 본래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심히 가슴이 답답하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철일철야를 대의심삼매(大疑心三昧)에 들어 식음을 전폐하였으니, 타고난 약체인지라 신체의 수기(水氣)가 마르고 화기(火氣)가 치성하여 머리는 불덩이 같고 눈에서는 불이 왔다갔다 하는 대열병을 앓았습니다. 이때 일본 임제종의 중흥조이신 백은선사(白隱禪師)도 참선중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셨음을 알고 일본의 선승 야마다 레이링(山前靈林)이 쓴 〈선학독본〉을 읽었습니다. 참선중에 상기가 될 때는 가만히 기운을 내려서 단전에 화두를 들고 조식(調息)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를 하라는 구절을 읽고, 이와 같이 앉아서 딱 숨 한 번 들이쉬는 찰나, 지금까지의 칠통 같던 큰 의심이 타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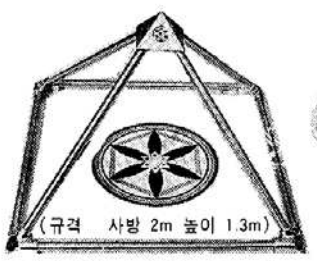
이때가 출가 전인 25세 때의 일이었으니, 홀로 우주의 근본인 마음의 문제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7일만에 그 의심을 타파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에게서도 화두참구법을 배운 일이 없었지만 알고보니 조사스님들의 화두법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선지식의 지도를 조금만 받았다면 그런 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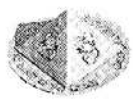
이후로 세간에서 임운자재(任運自在: 모든 일에 사로잡힘 없이 정진함)하게 지내면서 조사어록과 경전을 두루 섭렵하던 차 인근의 효산(曉山)스님이 변산 내소사 서래선림(西來禪林)에 해안(海眼)선사라는 선지식이 계시니 친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선사를 찾아뵈니 일견에 선풍도골의 도인 기풍이 있었으며, 문장과 강경설법에도 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사께 입실하니 선사께서는 "임제선사가 30방을 맞고 깨친 소식이 무엇인가?" 묻기에, 일언지하에 무어라고 답하였더니, 선사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인가하시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세간에 있으면서도 큰 공부를 성취하였는데, 너희들은 무엇하느냐"며 경책하시었지요. 그후 선사만 기거하는 서래선림의 토굴에 여러 날 유숙토록 권유하시며 전법게를 주시고, 선사께서 강의하신 〈금강경〉 원고를 교정하여 서문을 쓰고 출판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원고만 교정해 보내드리고 출판까지는 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나는 제방의 선지식을 친견하고 출가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효산스님이 "만암대종사의 사법제자(嗣法弟子)로서 동진비구로 당대 대선지식이신 서옹선사(당시 법명은 石虎禪師)께서 일본에서 귀국하셔서 전남 장성의 백양사에 주석하고 계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성취하고 인정을 받은 터라 거리낌없이 서옹선사를 찾아 뵈니 학형(鶴形)의 자태에 눈빛은 늠름하게 빛났습니다. 입실하여 문답하니 선사께서 "깨침이 아직 구경처(究竟處)는 아니니 조금 더 공부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에 나는 일본 선사들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부경지를 피력하였으나, 선사는 "아니야, 아니야"라며 허락치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공부를 깊이 반성하며 선사의 지시를 거역치 않고 더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비한 우주 에너지(기)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규격 사방 2m 높이 1.3m)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의약품을 놓아두면 약성이 증대되고 부작용이 제거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 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풍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큰스님 수행한담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1969년 백양사에서 열린 동국대 동국사상연구회 수련회때 서옹스님 등과 자리를 함께 했다. 맨 앞줄 왼쪽부터 법산, 증성, 서옹 스님, 故 홍정식 박사.

화두란 의심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조금 얻은 것에 만족하면 도리어 미혹
선지식 지도따라 이론과 실천 하나로

그러자 선사께서 출가하여 공부할 것을 권유하시고 바로 다음 달인 7월 보름에 수계득도할 것을 명하셨어요. 이때가 37세피로서 행자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계한 셈입니다.

이후 선사를 모시고 백양사 선원에서 3하안거를 마쳤어요. 선사께서 72년도에 조계종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상경하시며, 서울로 오도록 명하시어 뒤이어 상경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30여년을 선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수선정진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일단 선지식을 만나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이 되어야만 의단(疑團)을 부수고 화두를 바로 알아서 통명자기(洞明自己:자기를 분명히 밝힘)하여야 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치고 나서도 몽산선사(夢山禪師)는 반드시 대종장(大宗匠)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치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깨쳤다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깨달은 것 같아도 경계에 대하여서는 도리어 미혹하여, 말내는 것이 술취한 사람 같고, 행동이 속인과 같으며, 마음 기틀의 숨고 나타나는 화두견처를 인정받지 못하면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줄곧 떠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며, 공부가 익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조사스님들의 엄훈을 따라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처음 서옹선사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때 떠나버렸다면 공부에 큰 진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다시 깊이 참구를 해보니 종전의 깨침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공부가 있음을 알겠더군요.

무릇, 화두공부의 철칙은 먼저 움직임을 떠나 고요할 때 한결같은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으로 꿈속에서도 공부가 한결같은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잠이 꽉 들어서 꿈도 없는 데서 한결같은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에서, 다시 죽은 수는 심중유망(心中有妄:마음 가운데 아직 망념이 있음)의 제망점수(除妄漸修:망념을 제하여 점차 닦음)인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께서 남악스님에게 묻기를 "도리어 수증이 있느냐?"(還可修證否) 하니, 남악스님이 답하되 "수증은 없을 수 없으나, 오염은 없습니다." 하였으니, 돈오점수와는 천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선계의 일각에서는 통불교를 주장하여 선교일치니, 염선일치니 주장하니 조계종의 근본 종지인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종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망중대망(妄中大妄)입니다.

화두를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진리를 보게하는 것입니다.

임신년(1992) 납월 팔일에 서옹선사께서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丈室, 제산은 졸납의 법호)에게 부촉하시는 전법게송을 주시니, 서울의 관악산 기슭에서 임제선원을 개당하여 장안의 수재들과 지성인들이 모여들어 정통조사선을 편 지도 어언 10여 성상이 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선조사(先祖師) 만암대종사(曼庵大宗師)의 문집을 편집 출간하였고, 요즈음은 서옹대종사의 문집을 결집 편찬하는 일로 여념이 없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로 은법사(恩法師)이신 서옹선사께서 계시니 큰스님을 모시고 보좌하며 공부할 따름이지 아직 나같은 사람이 외람되이 앞에 나설 때가 아니므로 공개적인 법문은 고사하지만, 그러나 기자가 뒤에 공부하는 납자들에게 탁마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격외송구(格外頌句:격 밖의 본분도리를 제창한 송구)를 두어 수 간청하니 서옹선사의 고준한 법문에 단적으로 화답한 게송 2수를 드릴까 합니다.

吾師肯提水逆流(오사긍제수역류)
倒騎須彌出重關(도기수미출중관)
無佛無跡淸風凜(무불무적청풍름)
一劈擊破萬疊山(일권격파만첩산)

우리 스승께서 즐겨 물이 거꾸로 흐르는 법문을 제창하시고
거꾸로 수미산을 타고 겹겹 관문을 부수어 나가도다.
부처도 없고 종적도 없고 맑은 바람이 늠름한데
한 주먹으로 만첩산을 쳐부수도다.

臨濟指揮百萬軍(임제지휘백만군)
靑天霹靂平地風(청천벽력평지풍)
曹洞隱顯死中活(조동은현사중활)
啐啄綿密軍竟同(준산면밀필경동)

임제는 백만대군을 지휘하는 기상이니
푸른 하늘에 벽력이 일고 평지에 풍파가 일도다.
조동의 종풍은 숨고 나타나 죽은 가운데 살아나니
기봉이 준산하고 행지가 면밀함이 필경에는 한가지로다.

끝으로 백양사 백학봉 앞에서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 화답한 격 밖의 소식을 담은 송구 하나를 붙입니다.

馬祖全提大一喝(마조전제대일갈)
叶聾動地又翻天(토롱동지우번천)
殺佛殺祖鐵樹花(살불살조철수화)
任運高歌白鶴前(임운고가백학전)

마조가 온전히 들어 크게 할을 하니
혀를 토하고 귀먹으니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뒤집히도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니 무쇠나무에서 꽃이 피고
임의로 백학봉 앞에서 높이 태평가를 부르도다.

정리=정성운 기자

나와 경전 〈53〉

대보적경



김 선 근
동국대 교수 · 인도철학

〈대보적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신 가운데 가장 중심부분인 방등부(方等部)에 속하는 경전이다. 큰 법의 보배를 한 곳에 쌓았다는 뜻의 이 경은 결코 하나의 단독경이 아니라 중국의 보리유지(菩提流支)가 서북인도 초대를 받아 황제의 명을 받들어 많은 별개의 경들을 집성한 것으로서 일종의 혼합경이다.

〈신수대장경〉 제11권은 보적부라는 명칭으로 〈대보적경〉 1백20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관련된 단독경들을 엮어 놓았다. 이 경의 내용은 간략한 교훈들이 '10' 또는 '32' 등의 숫자로 열거된 실례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내용자체가 '보적(寶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이 경을 형성하는 일관된 형식의 사상을 간추리기는 어렵다. 〈대보적경〉은 49회 77품으로 구성되어 각 회는 각각 별개의 성격을 띤 다른 경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례를 들면 제1회는 〈대방광삼계경〉에 제5회는 〈무량수경〉에 해당하며, 제46회는 〈7백송반야〉에, 제48회는 〈승만경〉에 해당되고, 제12회는 〈대승보살장정법경〉이 들어 있다. 다시말해 〈대보적경〉에는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구하는 불퇴전의 법력에 대한 설법이 있는가 하면 초기 경전의 중심사상인 삼법인, 12인연이 설해지고 무량수불의 인위(因位)에 대한 설명과 48원으로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법문이 들어있다.

이 많은 내용을 낱낱이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육바라밀에 관한 해설이 들어 있는 제12회의 〈대승보살장정법경〉의 '보시'에 관한 가르침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청정한 보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이다.

첫째, 업보의 도리에 맞는 보시를 행하라. 둘째, 삿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셋째, 신심과 해행(解行)에 입각해서 보시를 행하라. 넷째, 해태심을 가지는 일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다섯째,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여섯째, 항상 용기와 의욕에 차서 보시를 행하라. 일곱째, 도중에 후회하는 마음없이 보시를 행하라. 여덟째, 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편협하게 치우치는 일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아홉째, 계를 벗한 사람에게도 경멸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비롭게 보시를 행하라. 열번째, 과보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이것을 열 가지 청정보시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시에는 재시와 법시 그리고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한없이 축복된 일이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이다. 그러나 준다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주는 대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에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간, 주인과 종사자, 그리고 스님과 신도 등- 속에서 살아간다. 남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하는 것이 보시이다. 오늘의 사회를 보다 훈훈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보시행이다. 왜 우리는 보시행을 실천해야 하는가

불교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의 사고방식은 이성 작용에 의한 자타의 입장의 전환을 기본으로 삼는다. 나에게 있어 자기가 더없이 소중하듯이, 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 사실의 자각을 밑바탕으로 해서 보시의 당위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천명을 훨씬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인연있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내가 베풀기 보다는 받는 편이 더 많다. 그래서 나는 빚을 지고 사는 삶을 산다. 가끔 인연있는 분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대보적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깨우치곤 한다. 이 경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면 할수록 맑은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나의 정신적 갈등이 해소됨을 느낀다.

무량수경·승만경 등 방등부 경전 집성
3법인 6바라밀 12인연등 쉽게 해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산-절-사람 하나될 때 미륵세상"

'98사진영상의 해

속리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3

덕유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백두대간의 산경은 삼도봉, 황악산, 추풍령을 지나 속리산으로 이어진다. 속리산은 충북의 보은군과 괴산군 경북의 상주시를 가르며 우뚝 솟은 절경이다. 최고봉인 천황봉(1058)을 중심으로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등 8개의 봉(峯)과 문장대(1033) 입석대 경업대 배석대 학소대 신선대 봉황대 산호대등 8개의 대(臺)로 이뤄진 속리산은 울울창창한 숲과 고목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명산이다.



◇문장대에서 바라본 속리산 산맥. 우측 봉우리가 관음봉이고 좌측에 솟은 봉우리는 묘봉이다. 산역은 추풍령, 황악산을 걸쳐 덕유산으로 흐르며 백두대간을 잇는다.

속리산의 고승들



◇의신조사.

법이 항상 머문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그곳에 가면 법을 지키고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와 영심대사를 비롯 조선시대의 신미, 수미, 학열, 학조, 일휴선사를 거쳐 근래에 입적하신 금오스님까지.

법주사와 인연을 맺은 최초의 고승은 창건설화에 보이는 의신조사(義信祖師). 조사는 인도유학을 통해 불경을 수입했고, 속리산에 법주사를 창건했다.

법주사가 대찰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진표율사(眞表律師)와 그 제자 영심(永深) 등이 이곳을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으로 삼아 발전시키

신라 의신조사 553년 개산
진표율사 점찰법회 개설
신미·수미대사 중흥 불사

면서부터. 진표율사는 열렬한 미륵신앙의 신봉자로 미륵불의 도래를 위한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다. 참법(懺法)은 매우 독특하고 혹독해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몸을 내던지는 수행을 거듭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 제자 영심스님에 대한 행적은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할 뿐 출생연대나 출가, 입적시기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본래부터 속리산에 머물렀고 진표율사에게 법을 전수받은 후 속리산에 머무르며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연 것으로 보아 법주사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법주사는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이자 참회의식을 집행하는 본산으로서의 사상성을 지니게 됐다.

조선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속리산의 불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온 것은 신미(信眉)와 수미(守眉)대사의 역할이 컸다. 신미와 수미대사는 세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찰중수, 불경간행 등 중흥불사를 도맡으며 불교중흥에 힘썼다.

근대에 이르러 속리산에 주석했던 고승은 한국 정통 선맥을 이은 금오선사(金烏禪師). 보월선사의 법계를 이은 스님은 말년에 법주사에서 납자를 제접해 당대의 법석이 극에 달했다. 또 월산스님을 비롯 월남, 법행, 월주, 월탄 등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해 법맥을 잇고 있다.

'법이 머무는 땅' 법주사 이름 따와
군민 초파일 전후 편안기원 재 올려
역대 왕들 발길따라 갖가지 사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려 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데
세속이 산을 여의려 하는구나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봉우리 거의 보살명호

신라 헌강왕 12년(886) 속리산 묘덕암을 찾은 고운 최치원이 읊은 노래다.

산과 사람 그리고 도, 이 세가지가 서로 멀리 할수록 세상은 삭막해 진다. 그러나 이 셋이 분별없이 하나로 모아질때 세상은 좋아진다. 인간의 세상과 도의 자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읊은 최치원의 탄식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5월의 신록이 나날이 그 푸르름을 더해가는 속리산을 찾는 사람은 잠시나마 경제대란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속리산의 풍광은 세속의 일들을 떠난 마음으로 산을 즐기는 참맛을 주기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기 때문이다.

속리산 전체는 하나의 도량이다. 여덟개의 봉우리 이름 대부분이 보살들의 명호란 점에서도 그렇고 법주사를 중심으로한 미륵신앙의 면면한 계승이 속리산을 하나의 도량으로 만들어 놓



◇90년 점안된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았다.

속리산은 왜 속리산일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원래 속리산은 구봉산(九峯山)이라고 불렸었다. 어느날 금산사의 고승 진표율사(眞表律師)가 구봉산을 지나가던 중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달구지를 끌고가던 소가 진표율사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우는 것이었다. 달구지를 탄 사람이 내려서 "이 소들이 왜 스님을 보고 우는 것입니까. 스님은 어디서 오시는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는 승(僧)인데 일찌기 변산의 부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가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친히 계법과 진생을 받아 절을 짓고 오래 수도할 곳을 찾아 가는 길입니다. 이 소들은 겉으로 어리석으나 속으로는 현명하여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무릎을 꿇고 우는 것입니다." 율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감동하여 "축생에게도 이러한 신앙심이 있는데 사람에게 어찌 신앙심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한뒤 낫을 들어 머리카락을 잘랐다. 율사는 그와 함께 구봉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보고 표식을 남긴후 금강산에 가서 발연수(鉢淵藪)라는 절을 창건했다.

달구지를 탄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진표율사의 무릎 아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곳, 다시말해 세속을 여의고 입산한 곳이란 의미에서 구봉산은 속리산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진표율사와 달구지를 탔던 사람이 표시해둔 길상초가 난 곳에는 이후 영심스님과 융종 불타스님 등에 의해 절이 세워졌다. 그런데 〈조선불교통사〉는 신라 24대 진흥왕 14년 인도에 유학했던 의신스님이 불경을 흰 노새에 싣고 귀국했는데 그 노새가 걸음을 멈추고 울부짖은 곳에 절을 세워 법주사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 법주사 좌측의 마애여래상 아래쪽에 새겨진 스님과 노새의 암각화가 이 설화를 입증하고 있다. 법주사와 길상사가 같은 점인지는 알수 없지만 속리산의 대표적 가람 법주사는 의신스님에 의해 개산되어 진표율사와 그의 제자 영심스님 등에 의해 흥성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는 산내 암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경내에 3점의 국보(쌍사자석등 5호, 팔상전 55호, 석연지 64호)와 6점의 보물(사천왕석등 15호, 마애여래좌상 216호, 대웅전 915호, 원통보전 916호, 신법천문도병풍 848호, 쾌불탱 1259호), 9점의 유형문화재(희견보살상 등)를 품고 있다. 1990년 점안된 웅장한 청동미륵대불(25m)도 법주사를 상징하는 '미래의 문화재'다. 법주사 일원은 사적 및 명승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명한 정이품송과 망개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산내 암자 중 가장 규모가 컸다는 복천암 좌측에는 조선 전기의 고승 수암화상(신미대사)과 학조대사의 부도탑이 엇비슷한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다. 높짓한 8각의 받침돌위에 기단부의 하대, 중대, 상대석이 놓여 있으며 별 장식이 없이 조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탑신은 원형이다. 수암화상의 부도는 1480년에 학조대사의 부도는 1514년에 세워졌음이 희미한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공민왕 친필현판 전해

또 복천암에는 공민왕의 친필을 각한 '무량수'란 현판이 보관되어 있어 속리산에 왕들의 발길이 미쳤음을 알게한다. 조선조때 세조는 복천암에서 자신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수많은 신하를 죽이고 조카를 폐위해 영월로 유배보낸데 대한 참회를 했다. 세조가 복천암 계곡의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고 종기가 나았다는 이야기와 세조가 지나가려 하자 연(輦)이 걸리지 않도록 나무가지를 치켜 올려 정이품의 직위를 받았다는 정이품송 이야기도 속리산과 그 품안의 도량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대변한다. 중사자암은 선조의 원찰이었다. 선조는 중사자암을 유달리 좋아 했으며 그 아래에 왕당을 짓기도 했다. 선조가 1758년에 하사한 친필 병풍은 현재 법주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법주사쪽의 속리산은 불교유적이 풍성하지만 그 반대편인 상주쪽은 그렇지 못하다. 지형이 험한 탓이다. 그런 가운데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장각동)의 칠층석탑(보물 제683호)은 균형이 잘 잡힌 빼어난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고려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장각동이 장각사의 옛터임을 말없이 일러주고 있다. 장각동이란 이 지역이 우복동의 쇠뿔에 해당한다고 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우복동이란 소의 뱃속 형상을 한 사람살기 좋은 승지를 말하는 것인데 화북면의 7개 동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동네가 우복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천암에 보관된 공민왕 친필.

속리축제 승속 한마음

법주사를 들어가는 오리숲은 쾌적한 산길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절 앞에서 갈라지는 산길을 따라 오르는 길은 문장대와 천황봉으로 이어지는데 어느길을 택하든 중간에 암자를 만나 쉬면서 부처님 도량의 푸근함을 맛볼 수 있다.

세심정을 조금 지난 곳에서 길은 둘로 갈라진다. 좌측은 복천암과 중사자암을 거치며 문장대로 오르는 길이고 우측은 상환암 상고암 경업대 입석대를 거쳐 신선대로 오르는 길과 은폭동 학소대를 거쳐 천황봉으로 오르는 길이 이어진다. 어느 길을 택하든 속리산의 비경은 끝이 없다.

속리산은 보은군민들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속리산 축제는 더욱 풍성했다. 4월 30일부터 부처님 오신날인 5월 3일까지 열린 속리축제는 시조경창대회나 조각전 사진전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등 세속의 풍물로도 이어졌지만 법주사 입구에서 승속이 함께 어우러져 지낸 천황봉산신재는 산과 사람과 도가 하나로 모여 사람의 세상을 굉안과 자비로 만들어 주길 기원하는 경건한 의례였다. 무엇보다 속리산의 축제는 법주사에서 대미를 장식했다.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이어 해가 지도록 국악연주와 탑돌이가 펼쳐지는 것이다. 보은농공고 학생 2백여명이 재현해 보이는 탑돌이는 절이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초파일에 절을 찾아 풍년과 가정과 나라의 화평을 빌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성불과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지는 비장한 염원의 의식이다. 탑돌이가 끝나고 계곡에 어둠이 내리는 시간 가지각색의 장엄불을 앞세우고 사내리를 한바퀴 도는 제등행진으로 속리산 축제는 막을 내렸다. 속리산 축제는 산과 절과 사람이 하나되는 새로운 서원의 축제였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매년 5월에 열리는 속리산축제 중 천황봉 산신재는 법주사 스님들과 군민이 함께 지낸다.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7층석탑.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로 파헤쳐진 속리산.

■ 주민들 용화지구 환경권 수호

온천개발 따른 식수원 보호
3년동안 법정투쟁 '승소'

속리산 문장대에서 서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산맥이 뻗어 내려 청화산으로 이어지는 곳이 용화지구다. 그런데 이 용화지구에 문장대 온천지구와 1㎞의 거리를 두고 95년 12월 8만1천평 규모의 온천개발공사가 승인됐다. 96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 상당한 구릉지가 파헤쳐지고 초목들이 베어져 나갔다.

문장대·용화 온천지구는 행정상 경북 상주시에 해당되지만 온천개발이 될 경우 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수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엄청난 오염이 예상된다는 입장에서 청천면 주민들이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6년 6월 청천면 주민들은 서울고법에 내무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사업승인 및 허가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주민들이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 투쟁을 계속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청천면 주민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3년여 동안 지속돼 온 문장대·용화 온천지구 환경분쟁은 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투쟁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인정한 첫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청천면 주민 30여명은 3월30일 '속리산 자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환경지킴이 단체를 결성해 화양동 등 관광지역의 환경훼손 행위와 돌산개발 억제, 생태조사, 환경교육장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용성스님 5대 수행



1. 염불 수행하여 삼매현전하고
2. 참선수행하여 의단독로하며
3. 간경수행하여 혜안통투하고
4. 주력수행하여 업장소멸하며
5. 불사수행하여 복덕을 구족케하라.

협찬 대성사(583-1475)·대각사(765-0972)
경주천룡사(0561-748-8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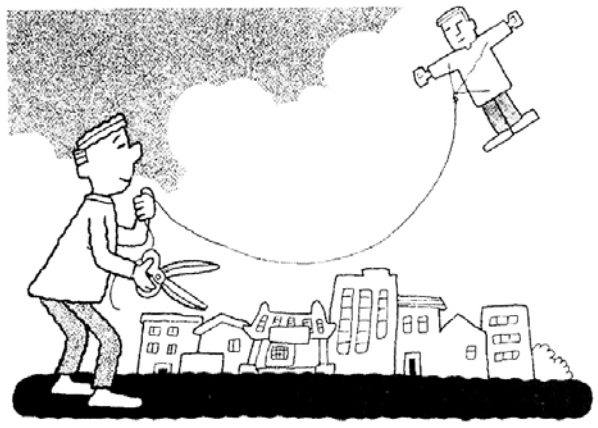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문지방 너머도 천리만리도 '한생각'


그림 · 최주현

"돈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고 걸르지 않고 함부로 쓰면 그게 업의 근원되니 잘 써야겠죠"

"마음은 체가 없어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자기가 업보 지어놓고 끄달리며 살다니…"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바로 불(佛)이며,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교(敎)라는 것입니다. 미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뜻합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이며, 모든 일체 생명과 삶이 불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불교니 하고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개의 몸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또 지구 하나를 우리들 전체의 집이라고 볼 때 온갖 일체 생명들이 다 지구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데 네 집 내 집이 따로 있으며 네 종교 내 종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 이름일 뿐이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가 공기주머니라는 대기권에 싸여 있다는 사실, 또 그 공기주머니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라면 우리는 지금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기주머니 안에서 더불어 살고 있고,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기에 불자(佛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두가 불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런 뜻을 말씀하셨지 모습이나 이름을 가지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고 따지는 걸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뼈 한 무더기로, 그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던 도중 한쪽에 놓인 뼈 무더기를 보시고는 그 앞에 절을 하셨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이신데 어찌 이런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라고 여쭈니까 "모두가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뼈 한 무더기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러면서 진화가 되고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형성됐노라고 말입니다.

그 수많은 광년을 거쳐 올라오면서 지금의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벌레 한 마리도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못났든 잘났든 내 모습이었고 내 삶이었고 내 마음이었고 내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말하면 저것 말해야 하고, 여기 가면 저기 가야 하고 또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함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상(四相)을 갖지 말라, 든 걸 놓아서 녹여라, 끊을려면 끊어지지 않으니까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니 그대로 놓아라"고 하셨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중생이 심신(心身)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네 가지의 상(相)을 말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것도 버리고 내가 한다는 것도 버리고, 둘째는 남이라는 것도 버리고 남이 한다는 것도 버리고, 셋째는 내가 중생이라는 것도 버리고 남이 중생이라는 것도 버리고 또 내가 이만하면 갖추었지 하는 오만과 아상을 버리고, 셋째는 내가 산다는 생각, 즉 수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다 버리고 우리 인생길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사는 데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살얼음을 딛고 한철 놀다가는 나그네길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비를 갖출 수 있고, 악도 선도 갖출 수 있고,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넓게 쓰면 넓은 대로 공용을 할 수 있고, 넓게 쓰지 못하면 그냥 행(行)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건데도 수억겁 동안 쌓인 관습과 습관과 욕심 그리고 애착 등 모든 습 때문에 얽매여서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철 살고 나면 내 몸도 가져갈 수 없는데 무엇을 욕심내고 애착합니까. 그리고 행복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악연이나 선연도 자기가 지어서 만나는 것이지 누가 내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팔자운명이 따로 있거나 인과응보가 따로 있거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지어놓고 거기에 걸려서 끄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항상 말을 하죠. 모두에게는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고 보이는 자기가 있다구요. 보이는 자기로 인해서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벌어졌으니 보이는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당신의 종자는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될 수 있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이름과 형상을 믿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나 한다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법당이 있습니다만 법당도 꼭 사찰에 있는 법당만 법당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몸뚱이가 바로 법당입니다.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상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일 수 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라면 번소간도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인 셈이죠.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도 '아, 저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니 모두가 둘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둥글려서 한다면 일배를 올린다 해도 삼천배 못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이치를, 이렇게 시원하고 광대무변한 이치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도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지방 너머도 한생각, 천리 만리도 한생각, 지구 바깥도 한생각, 한생각이라는 것은 빛보다 빨라서 한 찰나에 나고 들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찌 상대가 있고 생활이 있고 부처님이 계신 줄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과 여러분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수없는 보살이 탄생을 했고 보살의 이름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의 불종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약사가 돼주고 의사가 돼주고, 또 때에 따라서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주고 좋은 데를 못가면 지장이 돼주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네들을 찾아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법당에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만 명이라 할지라도 또 만 명의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공의 한마음에 잡어넣는다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허공에 꽉 차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응신으로 나투어 화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성명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는 응신으로 나투어 화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어느 모습으로 됐을 때, 어느 것을 봤을 때, 어느 마음으로 됐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다고 하겠느냐, 내가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부처라고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찰나찰나 고정된 게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내가 함이 없이 했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발짝 떼놓으면 한발짝 없어졌고 한발짝 떼놓으면 한발짝 없어졌습니다. 묵묵히 떼놓을 뿐이지 무엇을 내가 떼어놨다고 하며 어떤 발자국을 떼어놨을 때 내가 네 발자국을 떼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뒷 발자국처다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떼어놨다는 생각도 없이 앞으로 또 한발짝 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부 그러합니다. 찰나찰나 화해서 들아갈 뿐이니 집착에서 벗어나 놓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데 공장에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고 열심히 납품을 해도 수금도 되지 않고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그게 당신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주인공의 회사니 주인공이 다스리게 모든 걸 맡겨놓으세요. 당신은 물질세계에서 물질로서 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는 바로 참당신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참당신이 현실에 물질적인 당신하고 같이 수레바퀴 돌아가듯 같이 돌아가야만 서로가 상봉을 하는 것이며, 같이 여여한 것이며, 같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같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것이며, 같이 찰나찰나 나투게 돼 있습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 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 각종 번 · 장엄 번 · 전산(금·은전)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 - 교리 · 입문편

여시아문의 시대

20C의 창조자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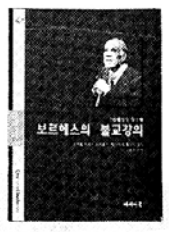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책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단순히 서구 지성의 불교 이해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갈 현대인 모두에게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가 왜 '내일'의 '대안'일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 주는 보르헤스야말로 20세기에 21세기를 온전히 앞당겨 살아갔는지도 모르겠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리했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33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337(팩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241쪽
값 5500원/ 여시아문 펴냄

수록 내용

Ⅰ.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와 불교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보르헤스와 불교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재미있게 읽는 보르헤스

Ⅱ. 불교 강의
전설상의 붓다
역사상의 붓다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불교의 우주관
윤회
불교 교리의 핵심
대승불교
라마불교
중국불교
탄트라 불교
선불교
불교윤리
불교란 무엇인가(강연요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무 제뿌리 믿어야 공덕 있듯이…"

☞ 15면에서 계속

다. 그러니 보이는 당신은 현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맡기고 심부름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기계가 고장도 안나고 회사도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불의 시봉자가 돼야만 하겠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시봉자죠. 항상 내가 했다는 게 있고 내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한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용납을 안하십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세상 허공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닌 데서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라고 내세운다면 그건 이미 부처가 아니죠.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돈도 생명이 있고 컵 하나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게는 다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연 선연 자기가 지어 만들고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 사는것
누가 내것 만들어 주는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대로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말로 떨어져서는 부처님께서도 용납 안하시지만 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뜻과 행이 똑같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진실한 말이라야 공법의 수레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닥치죠. 모두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인과성 업보성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 대처를 하시렵니까. 그래도 찰나찰나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들은 좀 낫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우환이나 병고액난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세세생생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인연까지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연은 짓되 착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업을 짓지 않아야 과보를 받지 않으며 셋째 과보를 받지 않아야 윤회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윤회에 말리지 않아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것과 관하는 것은 다르다, 기도하는 것은 타의에 놓고 돌로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관하는 것은 자의에, 바로 직접 하나로 보고 닥쳐오는 대로 맛을 보고 자기 종자를 알 수 있게끔 바로 자기에다 놓는 것이다"라고요. 생사에서 벗어나는 첫째가 업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업을 짓지 않는 첫째는 바로 내 안에다 몰록 놓고 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觀)입니다.

관하게 되면 바로 대뇌로 통합니다.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몸 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자기 소임 맡은 곳에 작용을 해줍니다. 이것은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찰나찰나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은 다음으로 해결을 하고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몸으로나 말로나 운력으로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정수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부처님 정수에서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시고 언제나 평등공법으로써 여러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아 모를 뿐이지 지금도 부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찾으려면 문이 없는 문을 찾아야지, 문이 있는 문을 찾는다면 백날을 찾아도 그 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돼 있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입력이 돼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팔자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차례로 나오는 걸 어찌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헌 물을 새 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게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걸 입력하면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 입력한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새로운 걸 입력하면 앞의 것이 지워지고 새로 녹음한 것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끊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다가 관하고 놓으라구요. 예전의 공부하던 분들은 '이뭣고' 하고 화두를 들고 계셨지만 이젠 이미 그 놈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들어가야죠. 일거수 일투족이 다 거기서 그 놈이 하는 거니까 놓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자불' 이라고 그러죠. 내 자불을 모른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일체 만중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관하면 새로운 것이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레와 같이 돌아가는 그 뜻에서는 팔자운명도 없고,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잘못됐다 잘됐다가 붙을 자리도 없고, 억울한 점이 붙을 자리도 없고,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인과성이니 세균성이니 업보성이니 하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짓는 것도 없고 선을 짓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만약 마음이 고정돼 있어서 선으로만 간다면 악이 생기고 악으로만 간다면 또 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해도 양면을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찰나찰나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불, 즉 불성이 본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자기의 근본인 불성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서 움죽거리지도 못해요. 아마 송장이 될 겁니다. 자기의 뿌리, 자불만이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자라 생각하고 거기다 놓을 때 비로소 안에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생각이면 그 의식들도 다 한생각으로 따라주니까 그게 조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 놓게 되면 깨우쳤든지 못 깨우쳤든지 그걸 떠나서 벌써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가정이 유유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꾸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인간까지 오면서 무엇인들 안 돼봤겠습니까? 벌레를 한 마리 보더라도 벌레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모습일 때가 있었겠지.' 또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더라도 '나도 저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았었겠지' 라는 생각으로 둘로 보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다보면 가만히 앉아계시는 부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하리까. 진짜로 안다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면서도 천리를 마다 안하고 한생각에 한찰나에 뛰시는구나. 우리도 만약 부처님 마음과 둘이 아니라면 한찰나에 미국도 뛰고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도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음은 자유롭고 체가 없어서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내 몸이라는 집은, 이 시자는 바로 내 의식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됩니다. 자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정자 난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 영혼과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형성을 시킵니다.

그럼 법의 부모는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참 자기죠. 그러니 보이는 데 형성해 놓은 자기 몸은 자기 자식이나 같죠. 그러나 그 육을 길러주는 부모가 또 있습니다. 육을 길러준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도 둘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근본처에 한자리를 하게 되죠.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도 형제도 모두가 그러합니다.

"自佛 모르고 일체 제불 마음 어떻게 아나"

진짜로 자기 자불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다면 이 몸이 있는 것 자체가 그대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깊은 속에 바로 내 자성이 있지' 하고 그 자성이 있는 줄 안다면 무조건 거기다 관하고 거기다 놓고 생활하십시오.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다 말입니다. 그런다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을 알게 되고,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걸리고 그러는데 좀 대담하게 걸림없이 공부를 하실려면 부처도 둘로 봐선 안됩니다. 법당에 부처님을 만 분을 모셔놨다 하더라도 그 만 분이 바로 일불입니다. 일불을 아시려면 일불도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일불조차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아시려면 바로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지 않게, 즉 위로 봐도 안되고 아래로 봐도 안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정녕코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고 부와 자가 상봉하면서 자기의 일체 의식들을 조복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나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그대로 여여하게 볼 것이며 여여하게 대치할 것이며 여여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정된 게 없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어디 하나 고정된 게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 먹었을 때, 어떤 것 했을 때, 어떤 것 말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나 자체도 공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이치를 아신다면 부모가 잘못되거나 자식이 잘못되어도 한찰나 한생각에 녹아질 수 있는 묘법을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몇 해씩 앓으셔서 자식들 고생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이 아파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고생을 시키기도 하죠. 비록 몇 억겁 전의 유전성이나 업보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찰나 밖엔 안됩니다. 지금 한생각이면,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데 합쳐지니까 그게 삼천년 전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삼천년 후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싹악 없어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야단을 치는 것보다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치려고 마음을 쓴다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때리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요, 깡통을 찰 놈아!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이 진리 속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법인지 잘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 쓰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 안 내고 쓰는 마음이라고 함부로 쓰거든요. 화가 난다고 툭탁거리면서 함부로 말을 해대지요. 한번 마음의 용광로에서 거르지도 않고 말입니다. 안보이는 말이라고 해서 해버리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업이 되고 유전이 되고 누적이 돼서 현실로 자꾸 나오게 되니 한 생각이 모든 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잘 써야 되겠죠?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면 잘났든 못났든 한철만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차원이 있어서 다음에 몸을 받을 때는 자기 차원에 따라 삼천세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천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상세계와 하세계를 잇는 교차로인 중세계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따로따로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주위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下)의 생명들은 육을 뺏고 뺏기고 살지만 고등동물인 인간은 정신계를 뺏고 뺏기면서 살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어올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주리라"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신계는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고 빈 집이 되니 그것은 주인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주장자를 뺏어올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어떤 것이 닥쳐와도 대처를 하고 가야 될텐데 집이 비었으니 무슨 대처를 합니까. 대처를 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보이지 않는 게 닥쳐와도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고는 팔자니 운명이니 하며 울고불고 야단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가 들어서 못한다, 또 뭘 먹으면 안되고 어딜 가면 안되고 하는 등등 못하는 게 그렇게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아요. 내 일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일일이 이사가는 날도 물어봐야 하고 내가 먹는 것도 물어봐야 하니 도대체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그런 답답하고 귀찮은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이미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이 됐습니다. 마음을 맘대로 쓰는 데는 자유자재권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맘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은 한다, 저것은 못한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미리 지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그렇게 붙어 돌아가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을 뛰어넘을 수 있거늘, 어찌 한마음을 뛰어넘지 못해서 우환과 가환을 송두리째 대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떤때는 눈물 날때가 많습니다. 측은하고 불쌍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대신 밥을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줘도 여러분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밥을 제가 떠먹어야 배가 부르지,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똥눠 줄 수도 없고, 밥먹어 줄 수도 없고, 잠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깨우쳐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자녀들한테도 '너의 몸은 나무와 같아. 나무는 뿌리로 인해서 살지? 그러니 뿌리가 없으면 죽을 거야. 네 뿌리를 진짜로 믿고 중심을 안으로 세워서 살아야 해.'하고 일러 주십시오. 그것은 방편이면서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경생의 양식이 될 겁니다. '그 뿌리에서만이 네가 아프면 낫게 해 줄 수 있고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으니 너의 뿌리인 너의 불성을 믿어라.' 하든지 '주인공을 믿어라.' 하든지 '자부처를 믿어라.' 하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그 진리를 참구해서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몸이 크다 하는 것은 한생각에 찰나찰나 움죽거리는 사이없이 움죽거리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지금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아시려면 오직 보이지 않는 자기 속에 참자기 불종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화두로 삼으세요. 화두라는 것이 딴 사람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생겨난 자체가 이미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때 '아하, 네 놈이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다면 그냥 제놈한테다 무조건 놓는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주시오'가 아닙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까 네가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해.' 하고 과감하게 놓는 거예요.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도 아니고 못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도 아닙니다. 양편을 다 놓고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러운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글자를 배워서 익히라고 경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읽을 때도 글자를 보지 말고 그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분을 보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게 볼 수 있어야만 그걸 진짜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법문(法門)' 이러는데 문이 있는 것이 법문이 아닙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법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佛法)'하죠? 불법은 불법이 없다는 것에도 속합니다. 너무나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까닭에 불법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벽이라도 뚫고 들어가야지 언제 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문이 없는 문을 알아야지 문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공부 못해요.

부처님도 둘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 마음이 여러 보살의 이름으로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부처님의 마음 즉 한마음 속에서 전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배우고 가신다면 부처님이나 스님들을 뵐 때 너무나 성스럽고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흥, 그냥 만들어 놓은 부처인데 뭐.' 이러시겠지만 완전히 터득을 하신다면 하다못해 돌 하나 세워놓은 것도 살아서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합니다. 보십시오. 봄이 되니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며 나무는 인내하며 놓고 갑니다. 나무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뜻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대를 둘로 보지 마시고 높게도 보지 마시고 낮게도 보지 마시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아 평등하게 보십시오. 그래야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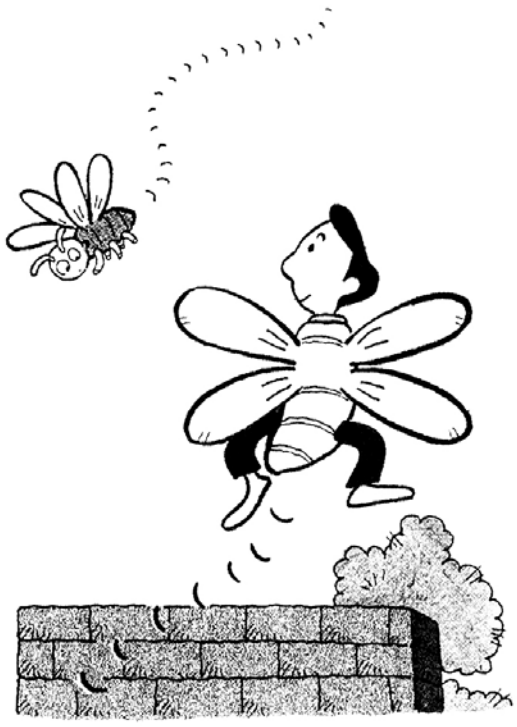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결과 바라지 말고 자기부처 시봉 잘하세요"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보은암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看病會**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위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신개발 및 집중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인천후음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초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철학(명리) 학인모집중

● 인원 : 5명
● 철저한 개인지도로 전문가로서의 말문을 열어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자님께 무료지도함.

032)865-9475
011)765-9475
성원사 용현 포교원 석 천 합장

氣明緩屛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맑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해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 전화상담도 可, 황금회원 모집중

02)897-7731 ●
016)340-4459 ●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 구인구직 •

공양주를 모십니다.

유서깊은 禪 수행도량
백양사 운문암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인 원 : 2名
■ 연 령 : 제한 없음.
■ 연락처 (0685)92-7706

※ 빠른 시일내로 연락 바랍니다.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로서 정법을 수호하는 조용한 도량이 있다면 (**부전스님**으로서) 기도하고저 합니다. 연락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경남북도 이남지역

011)807-6725
탄 휴 스님

구 인

50~60대의 여자분으로서 가사일을 돌보고, 함께 숙식을 할 수 있는 참한 사람을 우대하고 싶습니다.

051)508-1145

• 수련원 •

사찰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
45-7604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인 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법회 · 공연 •

● 무료담선법회

: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 · 수 · 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 학 원 •

국 악 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3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교미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상사) 대웅전 영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타
● 마산(천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타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 貴 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 장의 · 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증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법당/합동봉안/성주위패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타종교인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직영사 직영 108명의서비스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의를 올려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다후 관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우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 장의부 / 영묘각 사무국
과천안양항상동 / 충청대기 032)6128-108 / 032)6673-404

• 탈종공고 •

● 탈 종 공 고 ●

법 륜 관 음 사
대도행(박월남)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0416)825-4070
공주시 반포면 합봉2구 238-1

• 필 방 •

대흥당필방
02)
732-7326

• 기 타 •



어떤 것이 영원한 현실인가?
햇빛은 뜰위에 조는데
처마끝 제비의 노래여!
대천도 자취흔적 없는데
꽃동산위 흰구름 한가롭네

도서출판 바른법 ☎597-2460

전등록, 무문관, 벽암록, 천부경, 금강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에 이은 바로보인 불법시리즈 제 7 탄 !

부처님의 78대손이신 대원 문제현 선사님의 법문집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 사찰안내 •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목암주나무 묘목 판매

062)
222-6003
(주간)

062)
234-0095
(야간)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 위치 : 조계사 버스 승강장 근처

◆ 3층, 4층 면적 15평.
보증금 7백만원, 월세 7십만원

◆ 6층 면적 17평,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십만원
(보증금 월세 협의가능)

02)723-5442
02)732-4082

경남 통영시 청정1급수지역
"나한기도처"

◇ 대지평수 : 1,200평
◇ 건물 : 46평(요사방 2개, 법당 1개)
◇ 가격 : 2억 2천 (조절가능)

012)1067-0108

◇ 부산시 진구

◇ 국유지(대지): 1천평
◇ 대웅전(27평), 산신각, 요사체 2동(60평)
◇ 울창한 숲속(대웅전 뒷편), 오륙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 가격: 2억 5천(조절가능)

017)585-0067
012)1568-6936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내
◇ 법당, 요사채, 산신각(30평)
◇ 부지 : 6만 2천평
◇ 산자수명 지기충만 연수원, 기도처, 고시원 최적지
◇ 창녕군청에서 3분거리
◇ 포장도로 주차장 완비
◇ 토속음식점 2동포함
◇ 매도가 : 2억 8천만원

0551)817-1242~4
016)565-3366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보증금 : 2 500만원
◇ 법 당 : 60평

053)943-4170
016)586-3669

■ 사찰 임대하실 분

◇ 위치 : 종로구 홍지동
◇ 평수 : 60평
◇ 매가 : 1억 8천(전세도 가능)
◆ 비어있는 상태, 바로 입주가능

0333)683-5820
02)394-1277

◆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체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제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제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체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치 : 서울 관악산 남측자락
◇ 전세보증금 : 2억 5천
◇ 대 지 : 100평
◇ 건 물 : 200평, 3층건물
- 1층 : 식당 , 요사채
- 2층 : 거실, 스님방외 3개
- 3층 : 법당

02)723-4599

◇ 위치 : 인 천 승이로타리 중심가

◇ 법당 : 3층건물 3층 45평
◇ 방3, 욕실, 주방
◇ 시설완비
◇ 전세 : 1,000만원

032)886-8785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토굴(암자)구함

경상남북도에 위치한 조그만 수행처 구합니다.

연락처 :
011)847-0076
012)558-1158

사찰 전세 운영하실 분

◆위 치 : 수원시
◆법 당 : 15평
삼존불 봉안 및 옥상 전체 사용중
◆요 사 : 35평
◆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기증
◆전 세 : 5,000만원(시세이하)
◆특 징 : 제반 시설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몸만 입주하시면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건물주인이 스님이고 지방으로 이주차 싼 전세가액에 드립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본 사찰은 집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 보살및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 초장중이 없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출상담 : 012)1648-6334

◆ 포교당 양도

◇ 위치 : 대구시내 시장입구
◇ 법당만 30평, 방2
◇ 부엌, 화장실, 옥상
◇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세요.

건물주 053)557-1145

◆ 도심포교당 하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비어있는 상태, 바로 입주가능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 사찰양도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대로변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방2, 사무실, 주방, 법당
◇ 여법한 불사
◇ 가 격 : 2천만, 월 60만 (불사금 有)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 위 치 : 서울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유지 : 약 3천평
◇ 전통 목조 범당 동굴 산신각 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6억원정

※주직: 02)547-4554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체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전세가능-4천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사찰 건축 및 목제 안내

⊙ 내용 :
사찰건축
사찰조경
단청
목조주택(한국황토방)
→ 전문

⊙ 사찰목조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 확보
· 대웅전 12평,20평,24평,34평,54평,108평 은 지을 목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건축희실 스님 · 불자님들 연락바랍니다.

(주)천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
011)735-4168/012)935-4168

법사종 경제회복 기원 및 종정·총무원장 취임법회

"21세기 신 대승불교운동 나서자"

원덕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교계 각 종단의 전·현 종정 대종사님, 여러 총무원장 큰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과 각계각층에 계시는 내외빈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법석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사·법사·계사 여러 스승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공철학이며 실상철학이며 무진 연기철학인 불교, 바로 그 자체가 평등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사상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여성인 저를 총무원장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생활불교 지향·복지사업 주력
재가법사 양성·공제조합 설립

이같은 일은 이 시대, 아마 저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이요 법사종 종도의 원력으로 생각하고 지난날의 전 법활동을 거울삼아 성과 열을 다 받쳐 종무행정은 물론 전법활동에 전력을 다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처님 전에 서원하며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 입니다.

불교란 부처님 말씀대로 자성을 밝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몽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깨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중생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쓰다듬고 정화시키며 궁극에는 견성성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때 생활불교·현대불교 나아가 세계불교를 지향하는 재가법사운동으로써 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신 대승불교란 기치를 새로이 내걸고 과감히 현시대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명실상부한 반야지혜불교로 유무생명의 실체적 불교를 지향하고 실질적이고도 체험적인 불교를 지향하며 모두의 불교, 자연과 더불어 하는 불교, 무진연기 세계와 함께하는 불교, 개방불교, 다원불교, (전방위불교)실용불교, 동화불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불교, 심(心)불교운동의 동체대비사상으로 과감히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종단 종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힘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첫째 전법을 위한 법사양성지도자 배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법사의 총 역량을 응집할 것입니다.

셋째 재가불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실천적 불사를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불자 가가호호마다 불단설립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사전법의 상징인 법사회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법사전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에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이같은 둘사를 전개함으로서 전국불교 법사와 법사종도들의 위상을 드높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사종도는 이에 심기일전하여 법사 본연의 임무에 총실함으로써 내일의 이정표로 함께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같이 봉행하는 법회는 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을 위한 공적이 허다하였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나라를 위한 호국불교를 했고 또 구국에 앞장 섰습니다. 또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을 외치며 나라 안팎에서 애국의 역군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이번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 구하기와 경제회복에 전 불자가 다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호국불교로서 부강한 나라 청정한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총 매진합시다.

끝으로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법회를 원만히 진행되게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약력

- 1946년 경기도 파주 生.
- 1961년 동호스님을 은사로 묵담스님을 계사로 봉원사에서 득도. 불명 소황, 법호 원덕.

동국대 대학원 인사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학과, 문예창작과 수료.

- 1970년 금강원 창립 겸 주지원장 및 원장(현재) 취임
- 1980년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현재)
- 1981년 대한불교여성회 중앙총본부 창립인 겸 사무총장
- 198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미포구 여성회장 및 상임위원(현재)
- 1987년 미포경찰서 선진질서위원(현재)
- 199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현재)
- 1992년 (사)법사불보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현재)
- 1992년 창송교도소 종교위원
- 1992년 영등포구치소 종교위원(현재)
- 1994년 (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법인설립 이사장 겸 회장(현재)
- 1995년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1998년 4월 대한불교 법사종 제2대 총무원장 취임

수상

- 조계종 전국신도회 표창장
- 태고종 총무원장 표창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상
- 제6회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 94년 대통령 표창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회)
- 96년 국민훈장석류장

저서

- 1980년 어린이 불교성전
- 1981년 〈일기쉬운 불교교리〉

종정 취임기념 게송



◇청하 하순성 종정

천상사시춘작수(天上四時春作首)
지유공심수수화(地有公心樹樹花)
운고기산심수장(雲高氣山深水長)
수급불류월만정(水急不流月滿情)

하늘은 사시사철을 봄으로부터 머리를 짓고
땅은 공정한 마음이 있어서 나무나무마다 꽃을 피게 한다.
구름은 높고 기는 산과 같고 물은 바다 같고
물은 급히 흘러도 달은 물 위에 떠 있듯 정은 가득하고
세상은 급히 변할지라도 너와 나와 부처님과 뎃은 정은 변치 말세.

강령·종시·지표

강령
반야(般若·지혜)
자비(慈悲)
화동(和同)

종시(宗是)
불법을 지킨다
불법을 익힌다
불법을 전한다

지표
사람마다 불자되게(人人佛子化)
집집마다 불당되게(家家佛堂化)
곳곳마다 불토되게(處處佛土化)

창종 선포문

자비 평등정신 바탕 보살도 구현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 불법을 펴신 지 어언 2500여년이라.

불법의 전법과정에서 파생된 각양각색의 종파의 난립과 명멸함이 마치 불교적 백가재명이라.

저 신라의 화쟁논사인 원효대사의 통불교적 안목은 석존의 재시현인양 그 법통 찬연하였도다!

그러나 불교의 귀족불교화와 선승위주의 불교 배불훼석의 조선불교는 불교를 산중불교화하여 불교를 침체의 수렁에 빠뜨렸으니 심히 통탄할 일이라.

다행히 조선말기 만해 한용운스님의 불교유신이 우리 모두에게 햇빛을 안겨주듯 참신하여 새로운 전법의 광명이 될 듯 하더니 8·15 조국해방을 전후하여 수많은 법난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각자 고집스러운 종지만을 거머쥔 채 아상이란 멍에를 벗지 못하고 전법의 대상마저 인식못하는 듯 편견과 아집은 날로 더해가며 갈수록 부처님 본래의 전법정신에서 멀어져 감을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수많은 종단의 종지 갈등을 지양하고 통불교적인 차원에서 명실공히 부처님의 자비평등정신을 바탕으로 민초를 뿌리로 하는 전법의 궤도를 수정 지향함으로써 안으로는 보리를 구함에 전념케 하고 밖으로는 전법도생케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인 보살도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이 땅에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두루 유전케 할 것이라!

삼가 석가세존의 가호아래 모든 불자의 무궁한 번영을 빌며 본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다.

불기 2538(1994)년 11월 11일

연혁

1994년 11월11일 창종선포
1995년 1월21일 교육원(강원도 홍천군 소재) 현판식
1995년 5월21일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기원 제30회 경로위안대법회
1995년 8월1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남북평화 통일기원대법회 봉행
1995년 11월12일 하순성 총무원장 일본문화진흥회로부터 국제아카데미상 수상
1996년 11월11일 법사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1997년 3월15일 종립 법사대학 설립. 제1기 법사과 포교사과 각각 60명씩 모집
1997년 8월10일 법사대학 개교 제 1기 신입생 입학식
1997년 6월25일 국립묘지 호국영령 및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 묘소 추모법회
1998년 4월17일 나라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법회, 제1세 하순성 종정 및 2대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식

기구표



대회사 연제 윤호석 총재

"간절한 참회 발원으로 위기극복 동참합시다"



존경해 마지않는 교계 고승대덕 여러분과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귀빈과 사부대중께서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봉축하고, 또한 외환위기로 나라경제가 파탄에 처한 이 난국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원과 더불어 차제에 종단의 체제 재정립을 위한 쇄신정책의 일환인 본종 제1세 종정의 추대와 제 2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가 금융위기로 경제가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 금고엔 외환이 바닥나고 금융위기란 독화살은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의 심장을 뚫고 전기업을 혼수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을뿐 아니라 하루에도 1만명의 실업인구가 거리를 방황하고 2차, 3차 산업의 도산상황이 목전에 이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 불자들은 지난날 이 나라 이 땅을 훌륭히 지켜왔던 그 호국불교정신을 오늘에 되새겨 부처님 전에 5분향례 올리며 깊은 참회와 아울러 간절한 구원의 발원은 물론 불교 본래의 생활덕목인 근검절약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실천적 선행으로 본 종단 쇄신차원의 하나로서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적 포교로 일관해 오셨으며 본 법사종을 창종하시어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청하 하순성 대법사님의 본종 제 1세 종정 추대식과 아울러 교계에서 30여년이란 오랜기간 여성법사란 신분으로서 전법에 전념해 오신 원덕 성순경 법사님의 본종 제 2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하므로써 종단의 발전은 물론 오늘과 같은 난국대처에 불자로서 크게 기여될 것이라 믿고 여기 본 법회를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이 두분의 앞날을 위해 성원의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제1세 종정 및 제2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는 나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발원하면서 재기법사의 결속을 다졌다.

"근검절약으로 나라 살리자" 결의

하순성 종정·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사부대중 1500명 참석

대한불교법사종(총무원장 성순경)은 4월17일 올림피아호텔 임페이리얼 홀에서 나라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제1세 하순성 종정 및 2대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식도 더불어 가졌다.

이날 법회는 월운(동국대 역경원장) 대산(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송정(조동종 총무원장) 봉주(前 조계종 호계원장), 대우(前 조계종 교무부장)스님을 비롯해 오형근 前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김명륜 국회의원, 임창렬 前 경제부총리, 서강대 명예 총장 박홍신부, 홍두표 前 KBS사장, 황상구 前 대구지검장, 이외윤 (사)불교교화원총재, U PHone myttmy 미얀마대사, Ven Banagala upatissa 스리랑카 큰스님, 티벳 링포체 스님 외 11명의 스님 등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발원문 대회사 낭독, 종정 법어, 총무원장 취임사, 축사·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명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선근공덕으로 머지않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불자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가 보살의 수많은 보시공덕을 다른 이에게 회향하는 '입일체평등 선근회향(入一切平等 善根回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결의문을 통해 호국불자임을 재다짐하고, 근검절약정신 고취, 절공양음식 간소화, 외환사용 절제, 실업자 구제에 힘쓸 것 등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1994년 11월11일 창종선포식을 가진 법사종은 유발·삭발승니와 재가법사, 신도로 구성돼 있으며, 4백여 사찰과 2천여명의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유마경〉과 〈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법사종은 미래불교는 재가불자들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진단, 법사중심으로 대사회 포교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 '생활불교' '현대불교'를 주창해 재가불자들의 권익과 한국불교의 일대전환을 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여법사회 6월25일 예수재
경제회복·업장소멸 기원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6월25일(음력 윤 5월2일) 오전 10시 금강원 설법전에서 경제안정기원 및 업장소멸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윤달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성순경 회장은 "생전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미리 자기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재의식이다"면서 "△빈궁곤고(貧窮困苦)를 면하고 △기한(飢寒)의 고(苦)를 면하고 △선망부모(先亡父母)가 왕생극락하고 △수명장수하고 △생사초탈하고 △건강하고 재주, 지혜의 구족 △재산, 권속 풍족 △지위와 명예 높아지고 △삼매(三昧)가 현전하여 염라대왕을 친견하고 △생전사후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응호 친견하는 공덕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참접수 (02)395-2571~2 Fax (02)395-2574

대장경은 호국정신 깃든 문화유산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사찰 후원법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한달 동안 수안사 영화사 진관사 등 6개 사찰에서 진행되어 모두 205가족이 후원을 약정했다. 현재 학림사 소림사 용암사 등 전국의 17개 사찰이 후원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후원법회 일정이 확정된 사찰은 다음과 같다.

△서울 사자암 5월26일 △광주 증심사 5월28일 △대구 성화사 7월23일 △창원 성주사 8월22일 △진주 연화사 9월 21일 △부산 감로사 10월22일 △진주 의곡사 10월20일

4월 한달간 6개사찰서 후원법회
205가족 동참…17개사찰 법회추진

캠페인 참여권유

"IMF이겨낼 지혜의 불사"



세민스님

문화유산은 우리가 아끼고 오래도록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가운데 혜인사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민족지혜의 결집입니다.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판각한 팔만대장경은 민족역사의 수많은 난중 속에서 우리에게 호국정신을 가다듬는 민족정신의 지주였습니다. 이제 경제적 국난인 IMF를 극복하는 지혜로 다시 새생명을 갖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에 우리 사찰 보살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안사 주지〉

"세계인 가슴에 불심 심자"



일원스님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국민의 힘으로 전산화한다는 것은 참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고난사와 함께 우리 곁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전산화되어 세계인이 함께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이 가슴 벅찬 팔만대장경 불사를 여러 보살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팔만대장경은 우리 민족정신의 집약체입니다. 그 팔만대장경 한자 한자의 의미를 오천만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전하는 민족불사, 바로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입니다. 〈영화사 주지〉

"부처님가르침 나누는 계기"



실상스님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를 접한 지 꽤오래되었습니다. 늦은 동참이지요. 어제는 우리사찰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끼의 식사를 이웃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사로 IMF라는 경제적 고(苦)를 함께 나누는 의미를 가진 저희 사찰의 주요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장경은 고려시대 몽고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의 정신이 만들어 낸 문화유산입니다. 그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함께 보고 나누는 일, 바로 우리 모든 불자가 참여하여야 할 민족의 불사입니다. 〈법왕사 주지〉

■ '경판 50매 동참' 백일기도 김민자씨

"자랑스런 겨레유산 널리 알려야죠"

"〈광명〉지에 난 팔만대장경 전산화 후원인 모집을 읽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잠실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가족경판 후원에 동참하시더군요. 영가들을 위해 〈옅반경〉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셨어요. 주위의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고 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팔만후원인 모집에 화주가 되어 경판 50매 동참불자를 모으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1월23일부터 1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이라는 발원문을 쓰고 팔만 후원인 모집에 나선 김민자씨(잠실중 서무부장)는 5월3일 부처님 오신날 1백일기도를 회향할 때까지 1인경판 1명, 가족경판 19명, 영가경판 5명, 1구좌경판 92명 등이 동참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던 김씨는 지난해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초발심을 일으켜 더 열심히 불법수행에 나섰고 그 결과 팔만대장경 50매 동참의 서원도 세울 수 있었다.

김민자씨는 "3월부터 소쩍새 마을 봉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 큰 딸과 함께 부엌 봉사를 하고 후원금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한 대를 기증하려고 틈틈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대에 30만원인데 제가 일과후 병이나 박스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이 넘었는데도 고작 2만원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앞으로 부업도 하려고 해요"라며 올해의 또다른 서원을 밝혔다.



법회 후원인 명단

철보사 강대조(경북 안동)

수안사 ▶김동환 김화순 김민수 김민성(서울 강남구) ▶원혜상 원불국화 이성호 이지환 이정숙(서울 관악구) ▶최명자 윤경순 윤지영 윤상범(서울 서초구) ▶김종현 최관숙 김창신 김인수(서초구) ▶조축연 우승택 강경희 우용택 홍희주 우상원 우재연 우승원 우재원 우이홍 박갑수(서초구) ▶강진수 우승현 강정우 강선우(서초구) ▶이경자 명영훈 명진만 명진영(서초구) ▶주영복 박봉자 주용식 박용진(서울 강남구) ▶최영식 주금순 최용훈 최유진(강남구) ▶주흥식 김은희 주한우 주아영(강남구) ▶이성호 주비자 이효정 이직(강남구) ▶서안순 조성택 김은경 조동철 조혜옥(서울 광진구) ▶이호선 박경숙 이주현 이도영 이도희 이지희(서울 광진구)

진관사 ▶황태성 황용운 황태진 이혜정 김상기 황미정 정종필 황미숙 김세희 김세은 황진현 황민철(경기 고양시) ▶이재정 최상분 조병래 이승건 이용주 이재용 이유분 이상희 이규희 이중희(전북 김제) ▶윤대오(경기 고양) ▶김명옥 만병년 장태승 장재훈 김도인 윤미섭 김형진 이을종 김명애 이태훈(서울 은평구) ▶김무수 곽주경 김민재 김윤경(서울 은평구) ▶장헌근 장경애 정호연(서울 서대문구) ▶만덕행 김수응(서울 은평구) ▶서재규 박향순 서유진 서미경 박경숙(경기 고양) ▶김봉래 최미애 김동현 김동철(서울 강동구) ▶백은천 류영하 백영호 백영우 백진우 이승현 우현탄(서울 은평구) ▶박승백 안애심 박정훈 박향음(서울 은평구) ▶최순희 안석호 최여래성 안영준 주수양 박건홍 박진호 박진성(서울 서대문구) ▶정상욱 정연재 정주희 정재훈(서울 서대문구) ▶진운해 김지현 진승아 진승림(서울 강남구)

영화사 ▶일원스님 ▶조상임 와다베후지오 임일순 조대성 조호익 조환희 조영숙 조내덕 정재호 정선영 홍장호(서울 송파구) ▶김선본심 이주영 이주호 이동준 이현준(서울 송파구) ▶박정례 유철동 유희태 유소희 유진희(이하 서울 광진구) ▶정승환 정옥선 정재희 정영우 정선희 ▶민명자 한상국 한경희 한용석 ▶유태우 김정목 유동석 유동윤 유선아 ▶이옥자 이옥자 정택현 정선이 ▶정선자 송중식 송병관 송병길 ▶환기열 이성숙 황성준 환가연 ▶박씨

화양사 ▶최정효 김용자 최광석 최양희(서울 광진구) ▶조영환 최윤수 조한을 조보람(서울 광진구) ▶허태무 차순옥 허권범(서울 강동구) ▶송정근 최옥남 송승훈 송경희 송경조(서울 중랑구) ▶박수연 이경용 차주영 이정용 이준만 이진선 이지선(서울 중구) ▶김영순 이광명 엄미화 이우형 이윤경(서울 강남구) ▶박명율 홍보선행 박광태 현경미 박성태 황현선 박의준 박여원 박시훈(서울 광진구) ▶이명숙 이명숙 박건영 박현방 박정선 박정호(서울 중랑구)

동학사 ▶한민수 서기례 한상현 한상건(대전 서구) ▶김문홍 조보경 김지용 김지현(대전 중구) ▶김만순 김정은(대전 서구) ▶장문철(서울 강남구) ▶김흥덕 이명숙 김동환(대전 대사동) ▶강승구(충남 천안) ▶정낙훈 이혜순 정권희 정대휘(대전 서구) ▶반재구 변보영 반승현 반지영(대전 유성구) ▶김을식(대전 서구) ▶오안권(대전 유성구) ▶윤정욱(대전 서구) ▶이준승 이준언(대전 서구) ▶김기숙(충남 천안) ▶조세현 안경희 조영환 조영준 조영미(대전 유성구) ▶박수남(서울 종로구) ▶서혜광(서울 강남구) ▶박윤수(대전 서구) ▶오세림 서혜희(서울 서초구) ▶박세종 서혜숙 박정길 박정규(서울 서초구) ▶서승희 백승권(서울 강남구) ▶이종남 서원희(대전 유성구) ▶유종진(서울 강남구) ▶이원희(대전 서구) ▶배정준 배진균 배진성 배진옥(대전 중구) ▶민부곤 안귀례 민부곤 최수연 민상철 민해인 민춘일 민문영(서울 노원구) ▶박옥순(경기 남양주) ▶김영구 이순희 김민수 김민지(부산 사상구) ▶서경희(일본 요코하마)

극락정사 ▶서청원(서울 동작구) ▶오실상화 오철재 이충호 이현민 이충선 이태민 이소영 이충길 이수정 이송이(서울 동작구)

운문사 ▶이참우 최대신행 이금천 박수덕행 이정언 이소민 이영재 이정환(부산 동래구) ▶진용태 이영교 진영학 진미정 진미연(울산 동구)

법왕사 ▶이정란 안도기 안영혜 안영음 안철홍 안성찬 김영희 김영(대구 수성구) ▶백정렬 정성규 정재왕 전정분 김영미 정성원 정성욱 정성인 정유정 정희정(대구 수성구) ▶백상현 조정혜 백승열 백은영 백수영 백혜영 백인혁 백인숙(대구 수성구) ▶심유복 이월명화 곽재호 곽수연 곽은영 곽찬호 곽매립 곽태인(대구 수성구) ▶서명덕(대구 달서구) ▶박길수 조두한 조규흔 김남수 조수현 조영주(대구 수성구) ▶유태현 장효정 유정민(대구) ▶강의배 김재란 강문정 서정식 강미경(대구 북구) ▶고성관화 한광수 한병수 한완수 한인수 한상곤 한상욱 한성훈 한성호 변미연 김귀남 유용순 이승희 한연주 한아름 한다름 한유진(대구 수성구) ▶이선주 조영일 송두연 조성주 조아라(대구 북구) ▶조영삼 채교순 조희원(서울 노원구) ▶조영호 신금 조원태(서울) ▶권실상(대구 수성구) ▶이선소 장학표 장원철 장준우 장보윤 서용숙 장성명(대구 중구) ▶노기주 류홍렬 류경필 류현필 류지해(대구 달서구) ▶제진해 장숙희 제현우 제경미(대구 수성구) ▶제봉해 안창희 제성훈 제차훈(대구 수성구) ▶김잠분 권상태 김잠분 권재현 권수현 권은경 권주희 권보형(대구 북구) ▶우복도 우공덕화 이기형 이조형 이경애 이재형 이경숙 이경미 이위남 이은영(대구 수성구) ▶정순 정보리심 김보성 권미향 김건우 김민정 김숙현 박진흥 박종한(대구 수성구) ▶도상문 이두리 도현석 도윤정(대구 수성구) ▶이옥련 박순상 이옥련 박재호 최순영 박숙희(부산 동구) ▶서재길 박금분 서현정 서민석(대구 동구) ▶배기환 이숙 배준호 배준현 신복기(대구) ▶조정호 이강원 김정희 이병찬 이수진 이장원 장희순(대구 수성구) ▶조병호 한경희 조문숙 조은석 장미정 조민규(대구 중구) ▶김삼금(대구 수성구) ▶전송자 김경남 김동국 김경희(대구 수성구) ▶김임태 김명숙 김대영 김정영 김기영(대구 북구) ▶전삼수 이병헌 전승민 전승열(대구 수성구) ▶박성규 박종연 박예지 박종화(대구 수성구) ▶유금선(대구 수성구) ▶장점식 서덕자 서훈수 서지윤(대구 수성구) ▶김덕규 김영선 김진훈 김진현 김진대(대구 북구) ▶박영남 배용희 박영남 배준우(대구 북구) ▶김우정 박선희 김동원 김동석 백은숙(대구 수성구) ▶박경자(대구 북구) ▶이영희 김경환 김세룡 김세진(대구 수성구) ▶신창진 권순득 권범해 권지인(대구 수성구) ▶이상주 임춘우 임문경 임윤호(대구 동구) ▶이상태(대구 수성구) ▶서병동(대구 수성구) ▶박준형(대구 수성구) ▶이윤덕 석재규 석영달 석지현(대구 수성구) ▶우종돌 이율화 우지형 우지수(대구 수성구) ▶김은경 김삼곤 황귀숙 김교연 김종협 김종태 한상희 김장수 김보림(대구 수성구) ▶김경숙 김태환 서보석 김대현 김수현 김대욱 김지연 김경주 김민정 김민지(대구 수성구) ▶이동화 이점선 최무희 이호형 이북순 이미경 이영희(대구 북구) ▶김순자(대구 남구) ▶이애경(대구 달서구) ▶김근숙 배덕조 배현주 배현정 배진희 배상희(대구 달서구) ▶이정란 김명순 이우열 이희경(대구 서구)

가족 후원인 명단

서울 ▶이영순 이근윤 이근영 이건곤 이동건(서초구) ▶박맹지 정진식 정대영 정연경(송파구) ▶박은희(강남구) ▶이혜경 이두우 강윤덕 김순금 이미정 이상용(강북구) ▶김오순 정성섭 정지윤 정지만(동작구) ▶김성희 김정기 김건우 김성우(강남구) ▶전혜원(관악구) ▶최옥기 김정연 이란주 김좌광 채무육 김음전(송파구) ▶김태선(중구) ▶이종태 이혜성 이소영 이은우(송파구) ▶최덕규 김남수 최진우 최주연(은평구) ▶김현정 장효분(강남구) ▶우상덕 한순화 우아림 우형주 손석순(강남구) ▶최상욱(용산구) ▶권옥순 허태영 허휴정 허승보(송파구) ▶김종국 김종수(구로구) ▶신금철 박연정 박연진 박주혁(송파구) ▶권순택 권지원 권유란 권용현 장옥순 박선희(중랑구) ▶음두삼 최지희 음효미 음상미(용산구) ▶박영준(강남구) ▶정인택 오정민 정순철 정창열(노원구) ▶정창영 정민영(동대문구) ▶최성환 배영숙 최석주 최석우(서초구) ▶박승희 조성철 조아영 조준표 박원석 백분이 박원현 박철희(은평구) ▶박영희 박한수 홍순희 정찬용 박영주(성북구) ▶오광욱 오영주 오연미 오석준(동작구) ▶이남준 이옥섭 최창경 이주욱 이주영(동작구)

부산 · 울산 · 경남 ▶이경자 최 영 선 최봉진 정태입 최영순 최미영 최승재 최재빈 최지원(금정구) ▶박윤길(수영구) ▶조재현 김덕찬 박태남 김중근 조재현 김혜원 김민아(진구) ▶노봉수 심여준 김귀수 신하남 노형조 윤순악 노영수 박하수(남구) ▶전삼주 김양순 전용수 정효순 전상우 전상봉(남구) ▶김경자 심지혜(사하구) ▶권옥순 이복희(동래구) ▶강충혁 강기수(동구) ▶자승현(동래구) ▶하영란 조민영(동래구) ▶김태일(남구) ▶변충웅 박두이 변종수(서구) ▶박봉춘 이은경 박신현 박근모 현기연(울산 동구) ▶강원기 조양제 강호석(창원) ▶손근(진주)

대구 · 경북 ▶이현식 조경혜 이화진 이홍재(달서구) ▶이창덕 이태숙 이상헌 이윤경(남구) ▶윤행숙 정승환(중구) ▶이순욱 이정환 이용직 이정현(수성구) ▶김경식 이순희 김동환 김지현(북구) ▶이재은 이태희 김행자 하미경 이왕건(경산시)

인천 · 경기 ▶윤윤석 김영선 윤미옥 윤주영 윤주완 윤성용(남동구) ▶표연순 김환송 대원각 김법우 박본각성 김연진(남구) ▶강영신 강호경 강승현 강다영 양재순 박순자(고양) ▶정귀혜(군포) ▶김순연 정대균 정일한 정일에(과천) ▶박효남(수원) ▶김미경 백제기 백기현 백준현(부천) ▶박숙이 김영주 박숙이 김유정 김민지(의왕) ▶오법순 이선용 이해창 이해원 이애승(부천) ▶김영순 정점순 김이호 김태형 김태원(부천)

강원 · 전북 ▶이분아 김유성 김주영 김형균 김희진 김희균(철원) ▶김명곤(김제)

※나머지 명단은 추후 게재합니다.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개종후 불교비방에 참담
신도회장 검증후 뽑아야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가족신문(98년 3월28일자)을 읽고 이 글을 쓴다.

'나의 신앙고백'이라는 한 코너에 조계종 강원도 신도회장을 지냈다는 이모씨의 글이 실렸는데 불교를 비하 · 비방하는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느 종교든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개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십만의 신도들을 대표하던 사람이 개종을 해 타종교의 신문에다 자기가 믿던 종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참담하다. 도 단위의 신도들을 대표할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신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행되야 할 자격조건은 확고한 신심이어야 할 것이다.

차후로는 신도회장 및 각 신행 단체장들을 선출할 때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다시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심이 다져지지 못한 불자들에게 악영향이 미칠까 심히 두렵고 극성스런 이교도들에게 더욱더 경거망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같아 염려스럽다.

최성구〈서울 강서구 등촌동〉

개신교도 새 공단이사장
'편향' 우려는 패배의식

새 정부 인사 결과를 보고 걱정을 하는 불자들이 많다. 특히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이 개신교도라 종교편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종교편향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이 개신교도나 가톨릭교도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불교인이라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뵐 것이므로 개신교 집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을 맡는다고 해서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진정한 개신교도라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뵐 것이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직위를 이용하여 훼불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편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물든 것이 아닐까. 우리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 때문에 종교편향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걸 기회로 미움을 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佛性)을 발견하여 우리 모두 성불하자. 그리하여 이 땅에 훼불행위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광빈〈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음의 우담발화 찾자"
사도 행하면 여래 못봐

〈금강경〉에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사도(邪道)를 행하는 것이며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는 사구게가 있다.

주위를 보면 무슨 이적이 있다고 하면 신도들이 몰리기 일쑤다. 몇달 전에도 경기도 모 절에 우담발화가 피었다고 방송에서 떠들고 해 많은 불자들이 앞다투어 돈을 내고 그 꽃을 참배하러 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꽃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방송에서도 사과방송을 내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우담발화가 형상의 꽃일까.

나는 지금 법우들이나 초발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다른 데서 형상을 찾지 말고 진정 자기안의 우담발화를 찾으라고. 나는 평생 〈금강경〉기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강경〉이야말로 너무나 큰 빛이고 진정한 우담발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옥노〈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사찰 찾는 푸른 불심
우리문화사랑 '흐뭇'

얼마전 불영사에 갔는데 청소년들이 스님에게 법당과 탑, 불영사에 얽힌 전설 등을 듣고 사찰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청소년들이 우리 불교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좀더 체계적인 불교문화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찰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규용〈경북 울진군〉



호소

중증장애인 도와주세요

저는 전신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처 · 자식은 6년전 떠나고 74세 노모가 돌봐주셨습니다. 4년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정부보조금 30만원, 후원금 26만원으로 살다 노모마저 쓰러지고, 저는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큰 형은 노동력이 없고 도움을 주던 작은 형마저 실직을 당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도 형제가 있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후원자를 찾아 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저의 시신을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권순철〈인천 연수구〉

(032)818-2397 (예금주: 권순철)
경기은행 031-13-1-00005053

용기 심어준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
적극적 자세로 재취업…"모두에 감사"

지난해 말 실직상태로 있을 때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백양사의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 수행결사'에 참여했던 것이 큰 힘이 됐다.

각처에서 모인 도반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며 마음을 달랠수 있었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와 같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신 주지 지선스님과 금강스님, 토진스님외 여러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때 이후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는 수행결사의 주제가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소극적인 자세가 적극적으로 전환되었고, 그로인하여 지난 4월 15일 김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업할수 있게됐다. 이곳도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들의 기대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 나갈 생각이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이제는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큰아들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둘째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셋째딸, 고3인 막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가족 모두에게 다시한번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더불어 대량 실직사태로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한다.

한인균〈경기도 김포〉

불자 세상보기

남북 민간교류 '통일 물꼬'

경제·문화교류 등 활발…방북 '올 3천명 넘을 듯'

지난 2~12일 분단이후 첫 순수 민간예술단체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한 민간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연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 4월28일 분단이후 최초의 현직총장(정범진 성균관대총장) 북한방문, 정주영 현대명예의장의 옥수수 1만t·소 1천마리 기증 방북 예정, 북한의 경의선·경원선 철도복구사업 검토 등 남북교류의 물꼬가 서서히 터지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의 남북교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종교인들의 방북, 북한주민 접촉 사례가 급증하고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교류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방문자 및 주민접촉자가 나란히 1천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주민접촉 2백68명, 방북 2백28명을 기록, 올말까지 각각 1천5백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당국간 대화의 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민간교류는 남북의 빗장을 열게 하는 '감로약'이 되고 있다.

특히 종교계는 북한동포를 위한 식량지원에 앞장서는등 민간교류의 선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는 밀가루 3천t을 북한으로 보내는 동시에 불추위 유지원 사무총장을 인도요원으로 파견했으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북한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의 준공식을 내달 중 가질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2천t의 밀가루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데 이어 서울대교구 한마음운동본부와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달중에 옥수수 3천t과 비료 1천t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신교는 지난달 15일 예장합동측의 성금으로 마련한 밀가루 2천t과 '평화의 쌀' 보내기 기독여성운동본부가 모은 쌀 57.2t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중 개신교의 경우는 북한선교를 담당할 인재육성에 나서는등 통일을 대비한 공격적인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예장통합이 지난 2월 북한 선교자 단기양성 과정인 통일선교대학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년 2학기제의 '북한교회 재건 사역자 훈련과정'을 개설, 3월9일부터 강의에 들어갔다.

개신교의 발빠른 움직임과 관련 불교계도 북한포교 전문 스님·포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무주공신인 북한주민의 종교 포교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7일 황장엽씨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종교·문화·경제계가 주도하는 민간교류는 남북대화를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것이란 게 통일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재경 기자



◇한마음된 남북 어린이. 리틀엔젤스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예술단은 어린이들이 만들어낸 화합의 무대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가을쯤 북한예술단 서울 교환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일보 제공〉

종교의 눈 "민족화해 동포애서 출발"

"어째서 무릇 생명있는 것들은 서로를 죽이고 괴롭혀야만 하는가? 진실로 이들의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단 말인가?"〈출요경〉

〈화엄경〉에서는 평화와 질서를 깨는 경향이 인간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總相 同相 成相)은 각자의 위치에서(別相 異相 壞相) 제본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박경선 사무차장은 "북한을 돕기 위한 민간교류일지라도 선교적 목적이나 공명심만을 앞세울 때 그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통일운동은 같은 동포라는 동질감과 상호신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불협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등 불교계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불교계 관련단체들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의견수렴과 특색을 살린 대북사업 추진, 대북포교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단순생계형 도둑이 늘고 있는가하면 복지부 사무관이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을 체험하고 난 후 노숙자들이 범죄유혹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빈집은 물론 대낮 사무실을 골라 터는 사례가 빈발하고 심지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도둑질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도둑질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 이기적 탐심을 이겨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자신은 물론 사회윤리를 무너뜨리는 악행이다. 도둑질의 과보는 어떤 것인지 경전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도둑질 "겨자씨 하나 훔쳐도 과보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도둑 마음을 품고 남의 재물과 이익을 눈독들이고 부러워하며, 혹 재물을 손에 쥐면 부질없이 낭비하여 빈 털털이가 되면 다시 탐착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바르지 않고 삿되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을 두려워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나니라 〈물설삼세인과경〉

▨도둑질하는 마음을 버리어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며 그 마음은 청정하여 가만히 훔치려는 생각조차 없다.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불설장이함경〉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後生)에 사람이 되어 부락(富樂)을 얻는다. 〈태자쇄호경〉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하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보(後報)에 축생이 된다. 〈범천신책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둑질 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도둑질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능엄경〉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 서원을 키워야 하나리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사마디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할지니, 만약 도둑질한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능엄경〉

세계불교인구 3억5천만여명

이슬람교-가톨릭-힌두교-불교 順

선교학자 바렛 조사

전세계 인구(약 59억)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3억5천6백87만5천명이 불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세계 불교인구 3억2천3백89만4천명과 3천3백만여명이 차이나는 숫자.

선교학자 데이빗 바렛이 최근 내놓은 1998년 연례통계에 따르면 이슬람교 신자가 11억7천9백만명, 로마가톨릭 신자가 10억명, 힌두교 신자 7억6천7백만명, 불자 3억5천6백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신교 3억명, 유색인종 토착기독교와 정교회 신자는 각각 2억명, 부족 전래종교 2억4천4백만명, 무신론자 1억4천6백만명, 신흥종교 9천9백만명, 시크교 2천2백만명, 유대교 1천5백만명 등의 순이었다.

"폭력 영상·게임물 청소년 살인 부추겨"

美 가바리노 교수 분석

등장인물을 죽일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청소년층의 인기와 최근 늘고 있는 미국 학교내 총격 살해사건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美 코넬大 제임스 가바리노 교수는 7일 호주의 ABC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총을 쏴 점수를 올리는 비디오 게임은 목표를 정해 타인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꺼리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두려운 훈련병들의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 고안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육군은 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5명의 병사중 단 1명만이 물리적으로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같은 프로그램을 검토했다는 것이 가바리노교수의 설명이다.

자식 구하려 불속 뛰어든 母情

한밤중에 집에서 불이 나자 어머니가 잠자던 두 아들중 작은아들을 구한 뒤 큰아들을 구하려고 불속에 뛰어들었다가 아들과 함께 숨졌다. 12일 오전1시 전북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점촌마을 전창균씨(40·목재소 운영)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전씨의 부인 금정숙(42)씨와 아들 서경(6)군 등 2명이 숨졌다. 소방관들은 "김씨가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무의탁노인 돌보는 여고생

3년째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대소변을 치우는 등 궂은 일을 해온 충남 흥성군 홍주고교 3학년 유정아양(18). 외롭고 병든 노인의 가족이자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여고생 보살'은 올해 선행 모범학생으로 선정돼 11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양이 돌보고 있는 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혼자 생활하는 같은 마을의 이씨 할아버지(65)와 뇌졸중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정씨 할아버지(67) 등 6명.

범인 딸 키우는 검찰청 직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붙잡힌 범인의 어린 딸을 검찰청 직원이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있어 화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이창우(52) 집행과장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도망다니다 붙잡힌 하재욱(36)씨의 딸 진영양(6)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다. 이과장은 하씨를 1백일간 노역하도록 구치소에 보낸 뒤 오갈 데 없는 딸 진영이를 하씨가 나올 때까지 보살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나, 하씨가 출소후에도 생활이 어렵자 계속 돌보고 있다.

실직자 가정에 무료 안경

구 서울시경앞 남대문극장 2층 남대문 뉴월드안경점은 8일부터 5월말까지 실직자 가정에 한해 무료로 안경을 해주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확인증과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찾아오는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안경과 안경테를 맞춰준다. 단, 한 가정에 한개만 무료서비스 한다. 평일 오전9시부터 12시사이 선착순 30명씩 총 1천명에게 서비스 한다.

퀵서비스 가장 4인조 강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 직원이라고 속여 오피스텔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서동진(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다. 서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ㅎ오피스텔 8층 ㅎ유통 사무실에 "물품배달을 하러온 퀵서비스 직원"이라고 속이고 들어가 혼자 있던 직원 김아무개(4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PC로 음란물 판매한 교사

서울지검 특수2부는 13일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음란비디오 및 CD를 판매한 부산모 초등학교 교사 한철희씨(30) 등 15명을 전기통신법 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PC통신망에 '회원제 윤락알선 모임' 메시지를 올려 회원들을 모집한 민대영씨(26)를 통신사기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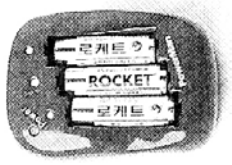
'문 늦게 연다' 아버지 살해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현관문을 늦게 열어준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용규씨(24)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버지 김귀남씨(53)가 술에 취해 10여분 뒤 문을 열어주자 홧김에 아버지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숨쉬게 한 혐의다.

새상품

"일반건전지 충전기"

외화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반건전지 충전기 '파워맨'.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반건전지를 충전해서 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제품은 워크맨, 호출기 등에 사용하는 규격의 건전지를 동시에 3개 충전할 수 있다.



'파워맨'은 일반건전지는 약15회, 충전용 건전지도 5백회 정도 재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

(주)한길인더스트리. 가격은 3만3천원. (02)418-0182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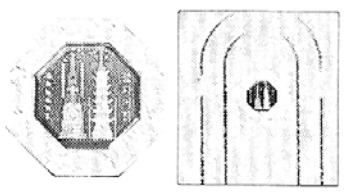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드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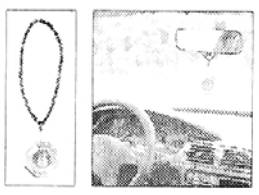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 8cm×8cm ·가격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질병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하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지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매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패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3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괄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은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시론

IMF졸업 언제일까

얼마 전 북경에 잠시 다녀왔다. 통일관계 자료수집을 위해서 비교적 자주 방문하는 중국이지만 갈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스카이라인(도심의 선)이 변하는 것이 첫 눈에 와 닿는다.

김대통령 국민과 대화 "오늘의 어려움 참아내야"

고층건물과 대형 쇼핑센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그도 그럴 것이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한마리 경제적룡(龍)'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민병용 〈한국일보 미주본사 논설위원〉

이런에도 몇몇 조선족 친지를 만났더니 "한국은 IMF 관리체제를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또한 "중국교포는 더이상 코리언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때마다 "한국은 또다시 경제 기적을 이룰 것이다. 과거에는 관주도형의 경제성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 금융, 국민이 새로운 조화를 이룬 선진국형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려주었다.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5월10일 '국민과의 TV대화'를 가졌다. IMF 국난속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소리를 진솔하게 경청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주요 질문에 "외채문제는 파국을 넘겼을 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금년은 어렵다. 앞으로 1년도 어렵다. 하지만 올해만 고생하면 내년에는 IMF를 졸업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에게 닥친 IMF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기업, 금융권에 있다. 물론 이를 벗어나는 길은 IMF와의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과 외환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앞에 있는 높은 산과 깊은 강을 건너야 한다. 그것은 한국 부실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 금융권의 개혁, 방만한 기업의 구조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노사정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 등이다. 또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과 일정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몫, 정부가 할 일, 기업의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변화와 희생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

오랜 미국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한국이 수많은 악순환의 고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는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 추진을 해나갈 뿐 장단기 정책개발을 통해서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데에는 약한 면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는 참물직전 새 대통령이라는 선장을 만나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으니 서로 단합해 목적한 종착지까지 가야 할 것이다.

내가 먼저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따라야 한다. 지도층이나, 있는 사람일수록 근면 검소 절약의 정신을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협동 · 단결의 민족정신 되살려야 모두 산다

역사이래 국난을 너무많이 당한 우리 민족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인내와 의지가 여느 민족과 다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서로 돕고 뭉치는 기질이 있다. 고난속에 피어나는 이웃 사랑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민족성이 되살아 날 때 IMF의 조기극복은 가능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서로가 믿고 도울 때 IMF는 2년내에 1단계를 졸업할 수 있다. 그래야 김대통령의 설명처럼 '2000년에 다시 도약하고 2001년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대통령이 '국민과의 TV대화'에서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칠흑같던 IMF터널을 빠져 나왔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열린마당

청와대 미사 · 예배



◇대통령의 청와대내 미사 · 예배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김대중대통령과 부인 이희호여사가 신부와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 미사 및 예배를 보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이와 관련 "주말 외부출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취임 초 청와대예배가 특정종교 편향이라는 물의를 빚은 적이 있으며, 이후 훼불사태가 이어졌음을 상기하며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도 사실이다. 반면 개인의 신앙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국민이질감 우려 공인 종교활동 자제

송강 〈종교편향대책위원장 · 미타사 주지〉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사를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적인 일들은 피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기에 국민에 대한 처신이 더더욱 중요하며, 어느 때는 개인의 이익까지도 미뤄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요즘은 국민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먼저 없애야 하는 시점이다. 다같이 힘을 합쳐 국난극복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에서 개인적인 신앙활동을 위해 미사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미사를 봄으로써 종교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활동이 공직사회나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자칫 대통령의 종교를 빙자해 자기종교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일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과거정권에서 보아왔다. 물론 지금의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에서 각료들의 종교편향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눈길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국민정부는 이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종교자유 차원 이해해야

권기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공인(公人)'이라는 위치는 지키기 힘든 자리다. '대통령'의 위치는 더 많은 특수성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인이기 전에 한 '개인'이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 공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지켜주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종교라고 본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와 국가정책의 혼동은 절대 있어서 안됨을 물론이다.

한 개인이 종교를 통해 얻는 정신적, 심리적 위안과 편안함은 매우 크다. 대통령이 개인적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 막중한 책무로 인해 얻는 중압감을 덜 수 있다면 대통령의 '종교'는 그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대중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한 것과 관련, '종교편향' 등의 말이 오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종교의식'의 부재도 있다.

만약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십분 고려, 다시 신중히 검토해보는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 청와대로 가야 하는 '종교'도 '만인의 경등'이라는 종교적 명제 앞에 떳떳한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회성격 아니면 묵인

효림 〈실천승가회 부의장〉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비록 대통령의 신분이라도 개인의 종교는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 스님들이 신도들의 집을 찾아 가정법회를 보듯이 신부나 목사도 대통령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방문해 미사와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신도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미사와 예배를 보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이희호여사가 주말 외부출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본다면 마땅히 가정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거 김영삼대통령처럼 목사는 물론 많은 신도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집회적 성격의 미사와 예배를 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인 것이다. 또한 김대중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온 중립적인 종교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김대통령의 치적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공인은 종교중립 지켜야

남현 〈스님 · 불교TV 기획실장〉

과거 문민정부하에 자행됐던 훼불사건 등 불교탄압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일어난 일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러번 거론된 얘기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설사 개인적으로 믿는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IMF체제의 현 상황하에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수권자가 경솔한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안될 일이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 좀더 신중히 판단해 준비된 대통령답게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종교인에 위화감 조성

정우 〈백련사 스님〉

신부와 목사를 초청하여 미사와 예배를 보는 것은 개인적인 종교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안된다. 그렇지만 청와대라는 국가최고통수권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종교사회에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에서 종교를 보지말고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종교계를 바라보기 바란다. 대통령의 하나의 작은 입장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파급효과로 다가옴을 인식해줬으면 한다.

편향적 시각 과민반응

김형균 〈물지사 대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목사와 신부를 초청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해야 한다. 이를 놓고 종교편향이니 운운하는 것은 과민반응이요 피해망상이다. 불교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마땅히 스님을 모셔다 법회를 본다는 것을 가정해보라. 불교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신앙생활로 여길 것이다.

다종교 국가라 하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청와대 직원들 모두에게 예배나 미사를 강요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말자.

명백한 종교편향 활동

이상대 〈대한불교청년회장〉

통탄할 일이다. 청와대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온 국민의 정서가 담긴 곳이다. 그 곳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종교 문화 사상 등이 수용되고 용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숨가쁜 정치일정을 핑계로 청와대에서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뜻을 저버린 처사이며, 특정 집단만을 대변한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의 집인 청와대를 개인의 처소로 격하시킨 것이다.

대불청은 김대통령의 파행적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사과 · 시정을 요구한다.

대통령 내외의 종교일뿐

손상훈 〈전불련 정책국장〉

대통령의 종교활동을 종교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대통령내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단지 지난 김영삼정권 때처럼 9시 주요뉴스시간에 대통령의 종교활동이 확대보도돼 대통령의 종교가 곧 국민의 종교인 것처럼 비치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 譯

명학(命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 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筆者의 辯'에서
494쪽 값 20,000원
동신판매
● 조흥은행 - 436-04-0546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축 협 - 047-11-12095-316
예금주 · 서 찬 배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 (3층) 전화 (02) 387-8429 전송 (02) 357-7493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손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특별보시 -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통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5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8년 6월 3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지방은 통신반으로 신청)

※문의 : 사무국
TEL(02)732-1206~8
FAX(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종단소식

조계종

대둔사 부산포교원 개원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1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 부산포교원을 개원했다. 대둔사 부산포교원은 20여평에 법당과 요사채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불교정착을 위해 각종 법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봉선사 월초스님 다례재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25일 큰법당에서 월초스님 다례재를 봉행한다. 1913년 봉선사 주지를 역임한 월초스님은 수국사 창건, 원흥사 명진학교, 개운사 강원, 봉선사 흥법강원 등을 설립했으며 1934년 4월 입적했다.

태고종

전국선원 하안거 결제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한 종단산하 전국 선원이 지난 10일 결제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일제히 하안거에 들어갔다.

30여명의 납자가 모인 선암사 칠원선원은 이날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인곡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을 비롯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종무원 노인시설 위문

제주교구종무원(종무원장 수암)은 4월 29일 노인요양시설 재주자비원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하고 일일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30여명의 동참자들은 7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공양하고 성금을 전달한 한편 노인들의 목욕과 빨래를 도왔다.

천태종

상월조사 24주 열반재

총무원(총무원장 운덕)은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제 24주기 열반대재를 22일 오전11시 구인사에서 봉행한다.

진각종

97회 종조 탄생절 기념

이날 행사에는 김도용 종정,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간부와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지난 1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4백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 종조탄생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석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4월30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석관1동에 소재한 석관제일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석관제일어린이집은 7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4개반에 71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일붕선교종

대구 교구원장 법성스님



대구교구원장 정법성스님(도광사 주지)은 지난 11일 지산스님의 후임으로 신임 대구교구원장에 부임했다. 〈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법성 지산스님을 비롯 원로의원 일암 대구종회의장 선재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종

묵조선 선방 개설 논의

총무원(총무원장 송정)은 지난 6일 경남 산청 호불사에서 5월 정기 간부회의 및 지리산 노고단 산행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선원장 대휴, 감찰원장 연봉, 포교원장 달제 등 종단 간부 32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묵조선 선방개설 등 종단 주요안건을 임시종회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법사종

포교사·법사 자격고시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31일 오전 10시 금강원에서 포교사·전법사·법사 자격고시를 실시키로 하고 응시자를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26일까지. (02)395-2571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농사 지으며 마음 닦으세요"

강원도 평창 약사암 주말농장 개방

3만여평 규모…수익금 복지시설 후원

어려운 시대. 주말마다 찾아가 농사도 짓고 정진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강원도 평창 청정지역에 농작물을 가꾸며 공부할 수 있는 주말농장 기도처가 마련됐다. 평창군 입탄리 백덕산 약사암(주지 성광)은 3만평 규모의 농장을 개방, 물자면 누구나 찾아와 일정 규모의 농장을 물하 받아 농사를 지으며 정진 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농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약사암 주말 농장의 회원이되면 성광스님이 3년에 걸쳐 직접 개간한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옥수수 무 배추 고추 당근 마늘 등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확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

농장은 계단식 밭으로 형성돼 있어 한 가족이 한 뙤기씩 분하 받기 적당하도록 개간 됐다. 약사암에는 포크레인과 관리기등 장비와 각종 농기구가 준비돼 있으며 회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농가가 마련돼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약사암에는 주말마다 5~6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옥수수와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약사암은 주말 농장에서 재배된 작물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해 불교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불교진흥기금은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96년부터 농장을 일궈 온 약사암은 그간 재배한 농산물을 강원도내 복지시설에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일부를 판매해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생산불교의 기치를 걸고 농장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만여평의 농장이 마련된만큼 이를 불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하려 합니다. 불자들이 찾아와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남을 위한 복전(福田)도 일구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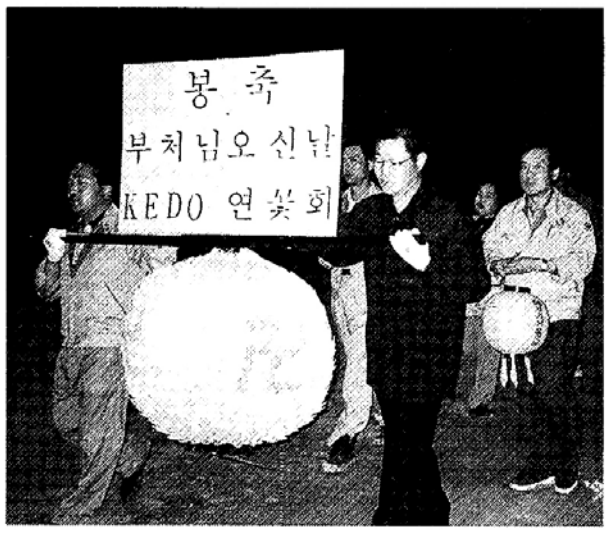
성광스님은 농사와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생산불교의 실천을 통해 IMF시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농장을 찾아와 일하고 기도하며 자연의 인과법을 이해하는데서 삶의 진솔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약사암은 주말농장 회원 모집과 아울러 농지개간과 불교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만등불사를 봉행키로 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374-33-5490)

평창=임연태 기자



◇강원도 평창 약사암 주말농장에서 주지 성광스님과 회원들이 옥수수를 심고 있다.



◇북한 신포지구 경수로 공사현장. 불자들의 모임인 연꽃회는 3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갖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北 경수로현장 봉축등 밝혀

연꽃회 "TV·비디오·법문테이프 등 절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3일 저녁 8시 북녘땅 함경남도 신포지구 경수로 공사현장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의 열기는 뜨거웠다. 경수로 불자모임 연꽃회가 연꽃 등을 밝히며 콘테이너 법당에서 정문~시공단사무실~법당을 돌며 경수로 지역에 부처님의 자비를 울려퍼지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창립된 연꽃회는 북녘에서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위해 4월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먼저 휴가자편으로 국내에서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현수막을 제작해와 모든 근로자가 모이는 식당외곽벽에 부착했다.

또 회원 사찰의 도움을 받아 연등 재료를 국내에서 선박편으로 반입해 종이연등과주름등, 대형연등등을 만들어 법당과 외벽을 장엄했다. 그리고 초파일 하루전인 2일 저녁에는 초파일전야법회를 봉행했으며, 3일 오전 봉축법회와 오후 8시 제등행렬법회 등을 진행했다.

연꽃회 김경철회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경전독송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초심자들인 회원들이 스님들의 법문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큰스님 법문테이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복지재단 설립

자원봉사·장학·국제구호사업 등 전개

태고종 중앙사회복지재단(가칭)이 설립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7일 서울 총무처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중앙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수탁,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학사업 △종도의 상호부제사업 및 공제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 △사회복지연구, 출판, 교육, 상담 및 후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종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단에 복지법인 없어 종단 산하 각 사암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법인 설립을 계기로 사회적 기여는 물론 종단적으로도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영령 천혼법회

광주 망월동 묘역서

광주민중항쟁 18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마련된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원효사주지)는 16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5·18민주영령 천혼대법회'를 봉행했다.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현지 광주불교사암련회장스님의 봉행사 지선백양사주지스님의 법어, 정수민 5·18 유족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2부행사로 허지연씨등 10명의 살풀이와 인간문화재 공옥진씨의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원효성사 탄신 1381돌

경산 제석사 다례재

원효성사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경산 제석사(주지 대경)는 오는 29일(음 5월4일) 원효성사 탄신 1381주년을 맞아 다례재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재는 1부 다례재와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 진행된다.

대전 연합신도회 창립

초대회장에 한만우씨

대전불교연합신도회(회장 한만우·대전싱공회의소 회장)는 27일 대전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날 법회는 1부 창립법회에 이어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초청법회, 최윤희무용단 및 대전불교합창단의 초청공연 등이 진행된다.

대전지역 재가불자 1백여명으로 결성된 대전불교연합신도회는 정기법회를 비롯 청소년 포교 및 장학·복지·환경정화사업 등 각종 불사를 펼칠 계획이다.

평생일군 절 신도회 기증

제주 흥룡사 홍순녀 보살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평생일군 사찰(시가 30억원)을 신도회에 기증한 노보살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주시 도평동 속칭 용장굴 태고종 흥룡사를 가꿔 온 홍순녀보살(70). 홍보살은 2천년부터 모든 권한을 신도회에 넘기기로 하고 부처님오신날인 3일 신도회 총회를 갖고 사찰명의 등기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룡사는 52년 남편인 덕종스님이 초가법당을 짓고 77년까지 운영해 왔다.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 찾습니다"

부지 30만평 확보…내년 대웅전 기공

"미국 포교의 큰 원력을 지닌 스님을 모십니다." 미국뉴욕 원각사가 주지스님을 초빙한다.

원각사는 71년 숭산스님의 가정법회로 출발, 76년 법안스님(前 동국대부총장)이 중심이 되어 3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뉴욕 거주 교포와 미국인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88년 법안스님의 건강이 악화돼 혜관스님을 새 주지로 추대했으나 혜관스님마저 재작년 열반해 지금은 신도회와 이사회가 원각사를 운영하고 있다. 임광우 신도회장은 "현재 대웅전 불사기금으로 30만달러가 조성되었으며, 내년에 대웅전 건립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교포들의 신앙을 이끌고 미국에 한국불교를 알릴 원력을 펼칠 스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12-927-7255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 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관광가이드 연수 포교저변 확대
조계종, 28~29일 경주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8~29일 불국사 및 경주 일원에서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가이드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가이드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연수회는 '우리 문화를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의 특색'(성타스님) '불교문화사 개요'(진철승 한국종교연구회 전 부회장) '사원건축, 불교세계관'(한정갑 문화답사 전문가) 등의 강의와 불국사 석굴암 황룡사지 경주박물관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연수국장 법경스님은 "관광가이드는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또다른 포교사"라며 "불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주요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다.

北 문화재 DB화 인터넷 사이트도
南 한민족문화연구소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소장 이채락)가 11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북한문화재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금강산 국제그룹(회장 박경윤)를 통해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등의 문화재자료를 제공받은 후 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북한 문화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또 가상 박물관과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CD롬도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총 3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보화 관련분야에 있어 최초의 남북협력사업이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민족문화재의 연구·보존을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승공경 제자사랑 영성여중(교장 안은자)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퇴직교사와 현직교사, 재학생 3대를 이어주는 스승과 제자 사랑의 노래부르기를 펼쳤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퇴임교사, 현직교사, 재학생으로 구성된 4팀과 현직교사와 제자로 이루어진 3팀의 노래공연에 이어 연극공연, 어머니합창 등이 진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인천청교련 '청소년 쉼터'

거리상담 나섰다

매달 1회 가출청소년등 선도…유해환경 어머니감시단 추진

어버이날인 8일 밤 11시 인천 월미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현란한 옷차림의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다.

스님이 다가가 대화를 청해보지만 "웬 스님?" 하는 듯 고개를 돌릴 뿐 대꾸가 없다. 오락실에는 18세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여학생들이 서툰 화장으로 앳됨을 감춘채 모여앉아 있다.

"왜 밤늦게 나와있니? 집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거야?"

"집 없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자유롭고 좋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럽지는 않니?"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사는데 뭐가 부러워요."

스님은 여학생들 틈바구니에 섞여 이것 저것 질문을 해봤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가출이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외모치장을 후회하기는커녕 즐기고 있었다. 오히려 이것저것 묻는 스님을 귀찮다는 눈초리로 올려다 봤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밤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유도하는 이동 거리상담을 8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안, 월미도 등지에서 시도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선일스님과 쉼터 교사 7명이 상담자로 나서 유흥가를 방황하는 아이들과 어렵게 상담을 한 결과 가출학생들의 대다수가 주유소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 지속적인 선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거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인 청소년 쉼터의 김현경교사는 "파출소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말에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토요일 밤에 이동상담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 쉼터에는 가출 청소년 외에도 실직자 가정의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이 몸을 의탁하고 있다.

청교련 인천지부는 어머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모집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의 어머니를 10인 이상씩의 조직으로 구성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시단의 역할 및 활동, 유해환경 실태와 지도방안, 청소년 심리와 이탈지도 방안, 성교육 등을 교육해 현장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3일까지. (032)761-4855/7942(친구사이)

〈김지연 기자〉

영산재 세계구전유산으로

유네스코 '구전유산' 추진…각국 연구관 파견

유네스코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4차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 시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75년부터 발효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 등록제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주로 유형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특히 우리나라는 93년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지침서를 각 회원국에 권고했는가 하면 이번 집행이사회에는 학예연구관을 파견,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제도의 도입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은 영산재, 종묘제례, 판소리, 민요, 농악 등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들이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네스코는 금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155차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의 선정기준과 심사위원을 선정, 구체적 추진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상은 매 2년마다 세계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구전무형문화유산을 선정,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경주남산등 3곳 세계유산 신청키로
유네스코 한국위결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경주남산을 비롯하여 전북고창과 화순지역 등 3건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록신청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18건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주남산등 문화유산은 문화재관리국의 정밀조사를 거쳐 6월초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불국사·석굴암 '191억보험'

문화재급 건물 최고액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국내 주요문화재급 건물로는 최고의 보험계약 액인 총 보험금액 1백91억 2천만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6일 불국사와 석굴암 1천5백60평에 있는 건물과 불상 탱화 등에 발생하는 화재손해에 대해 2001년 4월까지 보상키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보상금액은 불국사 1백40억여원, 석굴암 50억여원등 총1백91억2천만원이다. 이에따라 불국사는 3년간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완전소실됐을 경우 최고급의 건축자재와 최고 숙련 기술자를 동원해 새로 짓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대상에서 석가탑 다보탑 등 건물 외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의 청운교 백운교 등 주변문화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 선거 입후보자 해인골프장 반대서약

해인총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덕곡면투쟁위원회 고령군사회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고령군청 대회의실에서 고령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서약식'을 가졌다.

출마예정자들은 "해인골프장이 고령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훼손하는 사업이기에 골프장 건설이 취소될 때 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4만 고령군민 앞에 서명한다"고 서약했다.

부산 실천불교운동본부 창립

인권·통일등 7개분과

부산 실천불교운동본부(본부장 안승운)가 13일 국제신문사 소강당에서 진관스님 초청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법회는 진관스님 강연(불교 그리고 통일) 정비파 목관화 초대전 등으로 마련됐다. 교계 사회운동단체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실천불교운동본부는 인권 문화 통일을 비롯 7개분과로 구성, 장기수 및 양심수 유가족돕기 사업, 문화·인권사업, 통일·시민·사찰환경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원 운영, 시민포럼, 정기법회를 통해 지역 각 단체들과 교류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갑상 사무장은 "교계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탁소리

종교간의 벽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화합의 상징으로 화제를 모았던 목사의 사찰 강연이 개신교계내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광주 주월성결교회 방철호목사의 광주 대각사강연(4월 12일).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간 교류는 많았으나 불교와 개신교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터라 방목사의 사찰강연은 사회와 종교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종교인들의 화합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됐으나 개신교에서는 논쟁이 일고 있다. 우석교회 김철영목사는 '신앙계(발행인 조용기)' 5월호에서 '나는 이래서 목사 사찰강연을 반대한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화합과 일치 논리는 반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종교는 전도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은 아니다. 불교신자는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혼미하게 하는 일로 사탄의 계략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공박했다.

이에대해 방철호목사는 같은 책에 기고한 '나는 이래서 사찰에서 강연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종교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사회간 대화는 불가능하고 동서갈등과 계층간 갈등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인간사회에 있는 아집과 갈등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과 용서로 융해시켜 이땅에 평화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교 본래의 목표와 본분과 사명을 저버린 채 종교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립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행위가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베이루트에서는 기독교민병대와 회교민병대가 총구를 겨누고 있고, 영국의 에이레에서는 신교도와 구교도가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다.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할 종교가 살육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가슴아픈 비극이다. 종교간의 화해무드가 단절되지 않길 바란다.

뉴스 & 뉴스

중앙승가대 개교 19주년

중앙승가대학교 개교 19주년 승가한마당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앙승가대 교정에서 펼쳐졌다.

'얽매임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주제로 설법대회 법고경연대회 체육대회 연극공연 수화발표회 학술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화합의 한마당을 통해 승가대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쉬지 않고 정진하고자 하는 승가인의 의지를 담아냈다.

소쩍새, 장애체육대전 참가

소쩍새마을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6일 원주기독병원직업재활원과 함께 체육행사를 가졌다. 종교를 뛰어넘어 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로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준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피구, 이어달리기, 축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한편 소쩍새마을은 19~22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쳐지는 '장애인 체육대전'에 강원도 대표로 마을 가족인 한준희(16·정신지체 2급·원주청원학교 중등부1년)군을 멀리뛰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

경남 사천 모충사(주지 백산) 사회복지법인 삼소원은 20일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 기공식을 갖는다.

사천시 송포동 산 145번지에 건립되는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은 무료양로원, 요양원, 무료어린이집이 들어설 계획이다. 2백40평에 지상3층 규모로 12월 완공예정인 무료양로원은 70여명의 무의탁 독거노인을 입주할 수 있으며 2천년까지 요양원과 무료어린이집 불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살의 미소' 발언 물의

10일 열린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TV 대화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지부가 11일 김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의 제목을 '보살의 미소'로 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논평은 "김대통령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국민들이 겪는 좌절과 분노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김대통령의 웃음을 보살의 미소에 비유,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 물의를 빚자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는 즉각 '대통령의 미소'로 수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편 대구불교산악회와 대불정 대구지부, 대구청년승가회, 대불련 대구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의미도 모르면서 불교용어를 남발했다"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구 달성에 '스님바위'

대구시 달성군에 '스님바위'가 탄생했다. 달성군문화원은 유가면 비슬산 대견사지 인근 바위의 이름을 공모, 12일 '스님바위'로 명칭을 확정했다. 4월20~30일까지 공모했으며 '스님바위'를 명명한 사람은 대구시 서구 김영수씨 등 4명.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천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주는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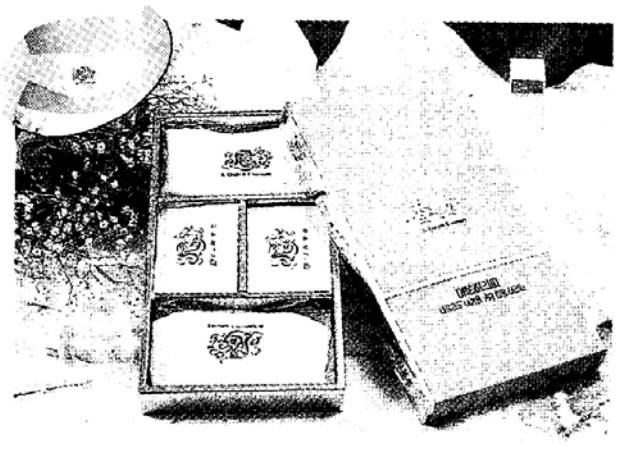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통신전문가 –
한국통신프리텔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97년 10월 1일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통신프리텔, 국민 여러분의 믿음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100만 가입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엄청난 마케팅 신기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통신의 100년 노하우에 첨단 PCS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국민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동전화의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1997년 6월 국내최초 이동전화 신용카드 복합서비스 실시
- 1997년 9월 업계 최다 예약가입 고객 달성
- 1997년 9월 PCS 최초 지하철 광중계방식 제안 및 설치
- 1997년 10월 PCS 016 상용서비스 개시
- 1997년 10월 이동전화업계 최초 보증금제도 폐지
- 1997년 12월 PCS 최초 광분산 시스템 도입 및 상용화
- 1997년 12월 주요 일간지 선정 PCS업계 최다히트상품 선정(12개)
- 1998년 4월 통합망 완성으로 완벽한 전국통화 실현
- 1998년 4월 업계 최초 양방향 문자정보 서비스 실시
- 1998년 4월 세계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 1998년 5월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전구간 서비스 완전 개통
- 1998년 6월 PCS를 통한 무선 데이터통신 실현
- 1998년 9월 통화량이 많아도 문제 없는 지능형 기지국 실현
- 2002년 꿈의 통신 IMT-2000 상용화

세계 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소리가 보인다
PCS 016